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張 笑 韻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연구

지도교수 김 성 규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장 소 운

장소운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1월

위 원 장 김 현 (인)

부위원장 이 상신 (인)

위 원 김 성규 (인)

<한국어 초록>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연구

장소운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에 '감다→깜다, 닦다→딲다'와 같이 수의적이지만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보고 공시적으로 그 지리적·언어적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어두 경음화의 개신지와 개신파를 추정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먼저 어두 경음화 현상의 지리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방언자료집》과 《방언자료집》을 통하여 520개 어두 경음화 단어를 선정하여 그들의 출현 지역 수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다섯 유형의 단어 분포를 통하여 지역별 어두 경음화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제주, 경기의 순으로 높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은 경남을 개신지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 추정하였다. 지리적으로 한국 북부보다 남부, 서부보다 동부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더 활발히 실현되고 있으며, 특히 경상도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어두 경음화 현상은 음운론적 요소인 어두 자음, 후행 모음, 음절수, 음절구조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 어두 자음과 관련하여 어두 자음 'ㅅ, ㄱ, ㅈ, ㄷ, ㅂ'의 순서로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높았다. 군별 자음별 실현율 분포를 통하여 어두 자음 'ㄱ, ㄷ, ㅂ, ㅈ'는 모두 경상북도 동남부, 경상남도 북부를 개신지로 하여 인접한 지역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어두 'ㅅ'은 이와 달리 경남 서부 지역에서 변화가 시작되어 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후행 모음에 따라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ㅔ, ㅗ, ㅣ, ㅐ, ㅜ, ㅏ, ㅓ, ㅡ'의 순서로 실현율이 높다. 그리고 다음절보다 단음절에서, 폐음절보다 폐음절에서

실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제2음절 초성에 따라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의 실현 양상에 큰 변동이 없었다.

제4장에서는 어휘·형태·의미론적으로 어두 경음화 실현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실현 경향성은 전체적으로 3장에서 본 음운론적 실현 경향성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먼저 빈도수와 관련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의 빈도수로 나타나고 빈도수와 비례관계 또한 없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품사별 어두 경음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 용언에서 잘 일어났다. 형태 구조별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형태론적 과정인 합성과 파생이 적용되어도, 어기와 비슷하게 일어나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또한 어두 경음화 형용사와 명사를 기존 의미론적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음이의어에서 동음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몇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기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5장 결론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본고가 가지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어두 경음화, 방언, 실현 경향성, 개신지, 지리적 분포, 의미 분류, 동음이의어

학번: 2015-22101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 3
1.3. 선행 연구 ····· 5
1.4. 논의의 구성 ····· 8

2. 어두 경음화의 지리적 실현 양상 ····· 9
2.1. 어두 경음화 단어 유형 ····· 9
2.2. 어두 경음화 지리적 특징 및 개시지·개신파 추정 ····· 17
2.3. 소절 ····· 20

3. 어두 경음화의 음운론적 실현 양상 ····· 22
3.1. 어두 자음별 어두 경음화 양상 및 분포 ····· 22
3.2. 후행 모음별 어두 경음화 양상 ····· 39
3.3. 음절수별 어두 경음화 양상 ····· 43
3.4. 음절구조별 어두 경음화 양상 ····· 45
3.5. 소절 ····· 49

4. 어두 경음화의 어휘·형태·의미론적 실현 양상 ····· 51
4.1. 빈도수와 어두 경음화 ····· 51
4.2. 형태론적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 ····· 54
4.3. 의미론적 어두 경음화 양상 ····· 64
4.4. 소절 ····· 75

5. 결론 ····· 76

<참고문헌> ····· 78
<부록> ····· 84
<中文摘要> ····· 117

1. 서론

1.1. 연구 목적

한국어의 자음 체계에서는 장애음을 평음, 경음, 격음으로 나누어 본다. 이들 중 경음은 한국 중세한국어에 이미 존재하여[1] 현대한국어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음화 현상을 통하여 경음의 출현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특히 근대에 들어서는 경음화 현상이 일반화되어[3] 지금껏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어 경음화 현상은 실현되는 위치에 따라 어두 경음화와 어중 경음화로 나뉜다. 김성규·정승철(2005: 160)에 따르면 경음화는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경음이 아닌 소리(평음)가 경음으로 대치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경음화는 발생 환경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 평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
②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말음 'ㄴ, ㅁ' 뒤에서의 경음화
③ 관형형 어미 '-을/ㄹ' 뒤에서의 경음화
④ 한자어에서 'ㄹ' 뒤 'ㄷ, ㅅ, ㅈ'의 경음화

김성규·정승철(2005: 161)의 보충 부분에서는 어두 경음화의 정의를 아래와 같

1) 중세 한국어의 경음은 각자병서와 합용병서의 표기로 나타내고 있다. 이기문(1982:47-69)에 따르면 15세기에는 'ㅆ, ㆅ'과 'ㅺ, ㅉ, ㄳ'의 경음이 있었다. 'ㅈ'의 경음은 근대한국어 시기에 와서야 발달했다고 본다.
2) 허웅(1985:504-513)에 따르면 [ㅅ]-계 합용병서는 대체로 서기 16세기 초기에 경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ㅸ]-계 합용병서는 16세기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는 경음으로 합류한 것도 있고, [ㅂ]-계 합용병서로 합류한 것도 있다. [ㅂ]-계 합용병서는 17세기부터 끝에서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여 1730년경에는 그 변천은 완성되었다.
3) 이기문(1982:168-168)에 따르면 15,16세기에 많이 나타난 바 있는 평폐쇄음의 경음화는 근대에 들어서면 더욱 일반화된다.

이 제시하였다.

> 어두의 평음(‘ㄱ, ㄷ, ㅂ, ㅅ, ㅈ’)이 경음(‘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었다는 뜻에서 어두 경음화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음운론 개론서의 경음화 현상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어중 경음화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두 경음화에 대한 설명은 아주 드물다. 이 사실은 이때까지의 경음화 현상에 관한 논의는 주로 어중 경음화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두 경음화 현상이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한명숙(2001)에서 두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일반적으로 변동 규칙은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어두 경음화는 단어 내부가 아닌 어두에서 일어나므로 음운 현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둘째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어두 경음화 현상을 사회·심리적인 요인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하여 본격적으로 언어학적인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밖에 어두 경음화 현상을 아예 잘못된 발음 습관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어두 경음화 현상은 단순히 공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곶[花]>꽃, 가마귀>까마귀, 듯듯ᄒᆞ다>따뜻하다, 불휘>뿌리, 삭>싹'과 같이 중세한국어에서 오늘까지 계속 진행된 현상이다[4]. 또한 현대한국어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깜다(감다), 딱다(닥다), 빡쥐(박쥐), 쑤세미(수세미), 짜르다(자르다)’ 등과 같이 음절경계나 형태소 경계와 같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에서만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연한 현상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통시적, 공시적으로 모두 관찰된 보편적인 현상은 변동 규칙을 설정할 수 없더라도 지리적·언어적으로 일정한 경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는 음운론적 연구의 주류에 속하지는 못하였지만 지

---

4) 중세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어두가 평음에서 경음, 합용병서에서 경음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이기문(1982:47-69)에 따르면 중세한국어의 어두 자음군이 근대한국어에서 경음으로 변하여 이로 말미암아 어두 경음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어두 자음군 ‘ㅺ, ㅼ’과 ‘ ㅽ, ㅾ, ㅿ’의 경음화는 각각 16세기와 17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허웅(1985:504-513)에 따르면 어두 자음군은 17세기와 18세기 초 사이에 경음으로 바뀌었다.

속적으로 방언의 하나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전국 방언을 모두 다루는 논의보다 개별 방언을 가지고 어두 경음화 현상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방언의 어두 경음화 현상과 관련된 비교·대조 연구나 방언간의 상호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의에서 제시한 어두 경음화 단어는 상당히 적으며 연구의 관심이 어두 경음화 현상의 지리적 특징이나 어학적 특징 중 한 가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양단을 관련 지어 종합적으로 다루는 논의가 드물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에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언어 현상으로 간주하여 그의 실현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전국 방언에서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 단어를 충분한 방언 자료를 통하여 정리하고 공시적으로 그 지리적·언어적 실현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어두 경음화의 개신지와 개신파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또한 박동근(2000)에서는 서울말에서 어두 경음화가 1차적으로 방언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전국 방언을 가지고 어두 경음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방언에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가 표준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표준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을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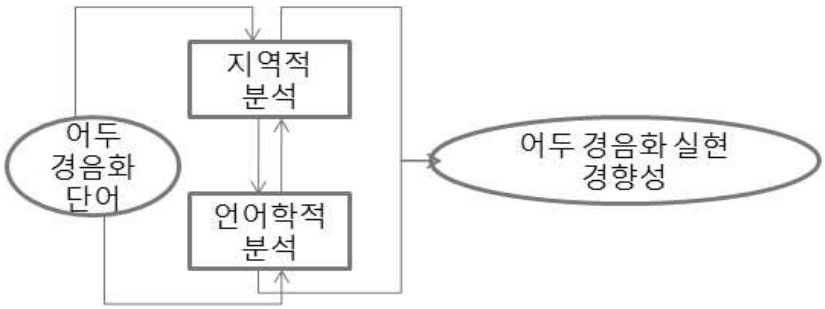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는 어두 평음 ㄱ, ㄷ, ㅂ, ㅅ, ㅈ이 한국 전국 지역어에서 경음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어두 경음화 현상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정신문화원에서 출간된 《한국방언자료집》[5]과 서울대학

5) 《한국방언자료집》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7년에 Ⅲ권(충청북도 편)과 Ⅴ권(전라북도 편), 1989년에 Ⅶ권(경상북도 편), 1990년에 Ⅱ권(강원도 편)과 Ⅳ권(충청남도 편), 1991년에 Ⅵ권(전라남도 편), 1993년에 Ⅷ권(경상남도 편), 1995년에 Ⅰ권(경기도 편)과 Ⅸ권(제주도 편) 총 9권을 출간된 방언 자료집이다. 군(郡)당 1지점씩 전국 138개 지점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60대 이상의 남자를 제보자로 선정하여 1,782개의 항목에 대해 격식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교 국어국문학과에 정리된 《방언자료집》 6)을 기반으로 어두 경음화 단어를 정리하여 지리적과 언어학적으로 교차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크게 지리적과 언어학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ㅅ’으로 시작된 어두 경음화 단어는 경상남도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과 같이 어두 경음화 현상은 단순히 지리적이나 언어학적인 분석보다 종합적인 분석은 더 가치가 있다. 이에 지리적, 언어학적으로 완전히 따로 분석하는 것보다 지리적인 분석에 언어학적 분석, 언어학적 분석에 지리적인 분석을 끼워 교차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다만 순서에 따라 주와 부의 차이가 있다. 분석 방법을 도식으로 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 분석 방법

먼저 어두 경음화의 지리적인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두 경음화 단어의 지역 실현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 실현 정도의 평가 기준은 어두 경음화 단어의 출현 지역 수이다. 어두 경음화 단어의 출현 지역 수에 따라 어두 경음화 단어를 다섯 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각 유형의 어두 경음화 단어의 지리적인 특징을 찾아 지리적 실현 경향을 유추한다. 나아가 어두 경음화의 개신지과 개신파를 추정한다.

---

6) 《방언자료집》은 한국내외에서 간행된 방언사전과 방언자료집에 수록된 방언형들을 표제어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만든 것이다. 이 자료집에 이용된 방언사전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병제(1980) 방언사전, 평양:과학, 백과사전출판사.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下, 東京：岩破書店.
韓國精神文化研究院(87-96) 韓國方言資料集 Ⅰ- 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리윤규·심희섭·안운(1992) 조선어방언사전, 연변:연변 인민출판사.
崔鶴根(1978) 韓國方言辭典 玄文社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鋏」語攷.

《방언자료집》은 《한국방언자료집》을 수록하였지만, 여러 자료를 통합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한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어두 경음화의 언어학적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을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어휘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어두 자음, 후행 모음, 음절수, 음절구조, 품사, 의미, 빈도수 등 언어학적 요소에 따라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단어의 실현 정도를 분석한다. 어두 경음화 언어학적 실현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사용한다. 어두 경음화 실현율은 표준어에서 어두가 평음으로 시작된 단어 중에 해당 방언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식은 아래와 같다.

$$R(\%) = A / B$$

(R=어두 경음화 실현율, A=어두 경음화 단어 수, B=어두 평음 단어 총수)

이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통하여 어두 경음화가 언어학적 요소에 따라 잘 일어났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실현율이 높으면 어두 경음화 현상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지리적인 분석에도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지역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에 따라 각 지역의 실현 양상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실현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어두 경음화의 개신지와 개신파를 추정한다.

이로서 어두 경음화의 지리적·언어학적인 요소에 따른 실현 경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중에서 경향성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을 밝히고 어두 경음화의 개신지와 개신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일찍부터 언급이 있었다. 최현배(1937:137)는 오늘날에 대종말이 된 '꽃(花)'과 같은 것은 옛날에는 '곳'으로 적었다고 제시하며 이에 대해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옛날보다 지금이 많으며, 말씨가 곱게 다음어진 서울말보다는 곱게 다듬어지지 못한 시골말이 더 많은 된소리를 쓴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기문(1982:53-55)에서는 어두 경음화의 원인을 표현의 강화[7], 사이시옷과 결

7) 이기문(1982:53)에 의하면 쎄븨여 일운젼치니(楞嚴經諺解 2.72), 皀角 ᄒᆞᆫ편을 ᄭᅮ드려 네헤 그처(皀角一片槌碎作四截, 救急方諺解 上 51)의 '쎄븨-'(揑)와 'ᄭᅮ드리-'(槌)가 각각 '비븨-',

합된 발음의 일반화[8], 후행 음절의 경음에 의한 역행동화 등으로 보고 있다[9].

근래에 들어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크게 언어 내적 층위와 언어 외적인 층위에서 다루었다. 그렇지만 어두 위치에는 음운경계나 형태소경계가 없기 때문에 언어 내적 층위에서 깊이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어두 경음화 현상을 언어외적으로 분석하는 논의는 대부분 사회언어학적 접근으로서 어두 경음화 현상을 나이, 성별, 사회 계층 등의 변수로 분석하였다. 이미재(1989)에 따르면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여자보다는 남자, 중류층보다는 노동자층에서, 공식적 형태의 말씨보다는 일상적 말씨에서 활발히 전개된다. 이밖에 사회언어학적 접근 방식을 취한 논의로는 이주행(1999), 이호영(2009), 장승혜(2011) 등이 있다.

최근의 언어 내적인 논의는 박동근(2000)이 유일하다. 박동근(2000)에서는 어두 경음화를 어두 자체의 음운론적인 자질이나 형태론적 특성에 한정해서 살펴보았지만 음운론적인 조건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형태론적 차원에서 실현됨을 알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어두 경음화 현상의 의미 기능은 강조의 의미를 실현하는 경우,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경우,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경우와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 네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어두 경음화의 동음충돌 회피 원리와 동음충돌 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받았지만 이러한 원리의 적용은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

어두 경음화 현상을 방언의 주요한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방언의 특징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을 언급한 논의는 한명숙(2011:54~57)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중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만 다루는 논문이 위진(2008)과 이근열(1996)이 있다.

'두드리-'와 공존했었다. 이들은 된소리의 인상적 가치가 격렬한 행동의 표현에 이용된 중요한 증거이 된다.

8) 이기문(1982:54)에 의하면 '곶'(花), '불휘'(根)가 대표적인 예다. 빗곶(梨花, 訓民正音解例 終聲解) 든너삶불휘(黃蓍末, 救急簡易方 1.93) 너삼쌀휘(分門瘟疫易解方 22), ᄂᆞᄆᆞᆯ쌀희(小學諺解 6.133) 등 단어의 어두음이 경음이 된 것은 사이시옷과 결합된 발음이 일반화된 데 연유하는 것으로, 이 일반화가 완성된 시기는 근대(17·18 세기)였던 듯하다.

9) 이기문(1982:55)에 의하면 'ᄃᆞᄃᆞᄒᆞ-'(溫)였던 것이 18세기에 'ᄯᆞᄯᆞᄒᆞ-'(同文類解 上 61)로 나타난다. 이 단어에서 제이음절의 'ㄷ'이 경음으로 발음되었고 그것이 제일음절의 'ㄷ'을 경음화한 것이다. 중세어의 'ᄃᆞᆯᄃᆞᆯᄒᆞ-'(常), 'ᄌᆞᆫᄌᆞᆫᄒᆞ-'(淨), 'ᄀᆞᆺᄀᆞᆯ리'(鶯) 등이 현대어에서 '떳떳하-' '깨끗하-' '꾀꼬리'로 나타나는 것도 이 부류에 속한다.

위진(2008)은 전남방언에 나타난 어두 경음화 현상을 통시적인 관점과 공시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통시적 관점으로는 전남 고문헌에서 어두 경음화된 어휘를 다른 지역 문헌과 비교하면서, 발생시기와 원인, 변화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공시적 관점으로는 전남방언사전에서 어두 경음화된 방언형을 추출하여, 경음화가 적용되는 음운환경과 특징을 해석하였다.

위진(2008)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앞선 연구들은 심리작용과 음운환경에서 원인을 찾았지만 위진(2008)은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어두 경음화의 원인을 의미분화로 주장하였다. 둘째, 어두 경음화의 발생지역을 적용빈도와 확산정도로 어두 경음화는 전남에서 발생하여 북동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셋째, 어두 경음화 적용된 자음과 결합된 모음을 어두 경음화의 음운론적 환경으로 삼고 분석하는 것은 앞선 논문에서 찾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 어두 경음화는 후설 단모음 앞에서 주로 적용되고 조음위치가 성대와 가까운 자음일수록 적용되는 빈도가 높다. 어두 자음별 경음화 빈도는 ㄱ> ㅈ> ㅅ> ㄷ> ㅂ이다.

통시적인 접근은 오종갑(2011)이 있다. 오종갑(2011)은 중세 혹은 근대 한국어에서 어두 복자음을 가졌던 어사 57개와 어두 단자음을 가졌던 어사 69개의 한국어 방언형을 《한국방언자료집》에서 찾아 어사별·지역별로 경음화 빈도를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개신지와 개신파를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두 복자음의 경음화율[10]은 어두 단자음의 경음화율[11]과 큰 차이를 보였다. 어두 복자음의 경음화 빈도가 전국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신지를 추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논의에서는 제외하여 어두 단자음의 경음화 개신지와 개신파만 제시하였다. 여기서 어두 단자음의 경음화는 폐쇄음(ㄱ, ㄷ, ㅂ, ㅈ)과 마찰음(ㅅ)로 나눠 관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그렇지만 폐쇄음과 마찰음을 구분해서 관찰하는 이유를 제시하였지만 폐쇄음의 내부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논의의 결과에 따르면 폐쇄음(ㄱ, ㄷ, ㅂ, ㅈ)의 개신지는 경북의 동남부 지역과 경남의 동북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개신파는 경남북 내부에서의 확산과 동시에 인접 도로 전파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찰음(ㅅ)의 개신지는

10) ‘ㅄ’을 제외한 복자음 100%, ‘ㅄ’ 88%
11) ‘ㄱ’ 44%, ‘ㄷ’ 55%, ‘ㅂ’ 40%, ‘ㅅ’ 53%, ‘ㅈ’ 6%

경남의 서남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개신파의 주류는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아류는 경남의 동북부와 경북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으나 그 세력은 미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종합적인 연구로는 한명숙(2011)이 있다. 한명숙(2011)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역사적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두 경음화 현상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시적으로는 서울말과 방언의 어두 경음화를 같이 살펴보았다. 먼저 서울말의 어두 경음화 현상을 사회언어학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지역 방언 어두 경음화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 >을 통하여 지역별로 어두 경음화 목록을 작성하여 어두 자음별·품사별 개수와 비율을 통계 내어 서로 비교하였다. 통시적으로는 15세기 이후 문헌에 나타나는 어휘 가운데 최초 출현형의 어두가 평음이었던 것이 이후에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들을 시기별로 고찰하였다.

한명숙(2011)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때까지 어두 경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나열한 것이다. 이중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의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한명숙(2011)은 아래와 같이 정리·보충하였다.

ㄱ.언어 외적 요인
①역사적 원인
②심리적 원이
- 심리적 각박함,
- 차별성,
- 언어 유희,
- 표현 효과
③상황적 원인
-발화 상황

ㄴ.언어 내적 요인
①의미 분화
- 시차적 의미 분화,
- 강조, 비하, 부정 등
②동음이의어의 모호성 회피
③기능 부담
④방언의 영향

다양한 자료를 다루는 면에서 한명숙(2011)은 기존 자료를 잘 정리하였지만 정리에서 더 깊은 분석을 이루지 못하는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 방언의 어두 경음화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논문들은 대부분 어두

경음화 단어 목록을 제시하여 단어 수량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이었다. 자료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이때까지 제시된 단어 목록은 상당히 적었고 특히 어두 경음화 단어 개수나 비율만 가지고 한국어 자체의 특징을 무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때까지 어두 경음화와 관한 논의는 개별 방언을 다루는 것이 많아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총합적인 논의가 아주 드물다. 그리고 이때까지 논문들은 대부분은 한 가지의 관점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을 분석하였기에는 이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어두 경음화 현상은 언어 외적이나 언어 내적 중 한 쪽에 영향만 받아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양쪽의 영향을 종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논의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어두 경음화 단어를 출현 지역 수에 따라 어두 경음화 단어를 유형화시킨다. 이를 통해 어두 경음화의 지리적 특징을 찾아내 개신지와 개신파를 추정한다.

3장에서는 방언의 어두 경음화 양상을 음운론적으로 분석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이 어두 자음, 후행 모음, 음절수, 음절구조에 따라 어떠한 실현 경향을 보이는지를 밝힌다.

4장에서는 어휘·형태·의미론적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이 빈도수, 품사, 형태구조, 의미 등에 따라 어떤 실현 경향이 있는지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고의 결론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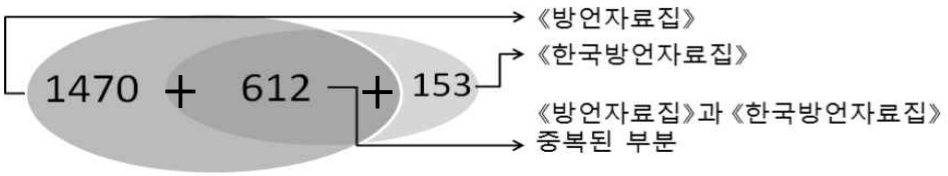
2. 어두 경음화 단어의 지리적 실현 양상

이 장에서는 한국 방언의 어두 경음화를 지리적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2.1에서 어두 경음화 단어를 출현 지역 수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2.2에서는 다섯 유형을 통하여 어두 경음화 단어의 지리적 특징을 찾아내 어두 경음화의 개신지와 개신파를 추정하고자 한다.

2.1. 어두 경음화 단어 유형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을 보기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원에서 출간된 《한국방언자료집》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정리한 《방언자료집》을 종합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어두 평음인 단어를 전국 각 지역어에서 어두 경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표준어에서 어두 평음 단어를 선별고자 한다.[12)]

《방언자료집》과 《한국방언자료집》 을 종합해서 현대 표준어형 기준에 어두가 평음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된 단어가 《방언자료집》에서는 총 2082개, 《한국방언자료집》에서는 총 765개가 있는데 중복된 단어는 612개가 있다. 이로서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를 아래 [그림 2]와 같이 총 2235개를 선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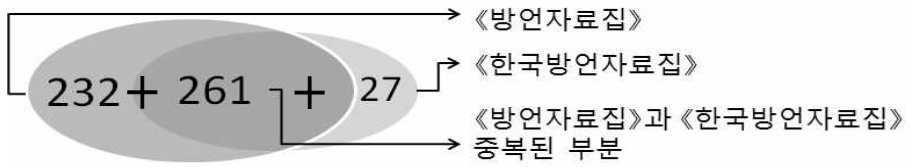


[그림 2] 《방언자료집》과 《한국방언자료집》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 수(단위:개)

이 중에서 전국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는 《방언자료집》에서

12) 본고에서는 '버스[뻐스]와 같은 외래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외래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한국어 음운 체계 이외에도 외국어 등 복잡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493개와 《한국방언자료집》에서는 288개가 [13]있다. 이로써 어두 경음화 단어를



[그림 3] 《방언자료집》과 《한국방언자료집》 어두 경음 단어 수(단위: 개)

아래 [그림 3]와 같이 총 520개를 선별하였다[14].

그런데 이 520개 단어 전국 각 지역에서 모두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두 경음화 단어의 출현 지역 수가 어두 경음화 단어의 지리적 실현 정도를 말해준다. 출현 지역 수가 많을수록 어두 경음화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전국에서 한 두 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단어는 지역특수성이 있어 전국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어두 경음화 단어의 지역적 특징을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어두 경음화 단어를 어두 경음화 단어의 출현 지역 수(도별)에 따라 유형화 시키고자 한다.[15] 방법 및 기준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어두 경음화 유형화 방법 및 기준

13) 이 중 중복된 단어는 261개였다.

14) 지역 분포 등 요소를 고려하여 어기와 그의 파생어, 복합어를 각자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감다'와 '감기다(사동)', '감기다(피동)'은 3개의 단어로 계산한다.

[그림 4]에서 보여주듯이 다섯 유형의 나눈 기준은 출현 지역 수와 특정지역 편재를 모두 고려하여 9개, 7-8개, 5-6개, 2-4개, 1개이다. 기준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러한 기준으로 어두 경음화 단어의 지리적 분포 특징을 가장 자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형별 520개 어두 경음화 단어의 유형별 단어 개수 통계는 아래 [표 1]과 같다.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유형 Ⅴ	계
개수	17	63	69	234	137	520

[표 1] 어두 경음화 단어 유형별 단어 개수

[표 1]에 의하면 유형 Ⅰ의 단어 수가 가장 적고 유형 Ⅳ의 단어 수가 가장 많다. 이제부터 다섯 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언어학적 특징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두 경음화 단어를 유형별에다가 자음별로 나눠 제시하고자 한다.[16]

먼저 유형 Ⅰ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한다.

유형 Ⅰ	전 국 (17)	ㄱ	가시(刺), 고누, 구기다
		ㄷ	닦다, 당기다, 도랑, 두드리다
		ㅂ	부수다, 붉다, 번데기, 붉어지다
		ㅅ	삯, 삶다, 소나기, 시래기
		ㅈ	자르다, 조끼

[표 2] 에 따르면 전국 모든 방언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는 총 17개 있다. 다섯 유형 중에 단어 수가 가장 적지만 가장 전형적인 어두 경음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표준어에서도 쉽게 어두 경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5) 어두 경음화 단어의 지역 분포는 부록 1에서 자세히 제시한다.
16) 어두 경음화 단어의 방언형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 어두 경음화 표제어는 표준어에 준해 제시한다. (군별 방언형을 부록 2에서 자세히 제시한다.)

다음은 유형 Ⅱ이다. 유형 Ⅱ는 전국 7~8개 지역(도 단위)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유 형 Ⅱ (63)	ㄱ	갈보, 가시덤불, 가지(枝) , 갈퀴, 갓난아이, 거꾸로, 거리끼다, 건지다, 고들빼기, 고린내, 고삐, 고수머리, 고쟁이, 고추, 곡괭이, 곤두박질, 곰보, 괭이, 구리다 , 굽히다(曲), 그루터기, 감다, 개구리, 개굴개굴, 개암, 검은자위, 고치, 곱사등이, 곶감, 구겨지다, 굽다, 그을리다 , 그을음
	ㄷ	다르다, 던지다, 두렁, 둑, 둥글다, 닦이다(사동), 닦이다(피동)(닦아지다)[17], 두꺼비, 두껍다
	ㅂ	박쥐, 반듯하다, 병아리, 본받다
	ㅅ	세다(强), 수수, 쇠, 시다, 사립문,
	ㅈ	작다, 조롱박, 족집게, 좁다, 주름살, 죽지, 집게, 조금, 족제비, 지린내, 줄기

[표 3] 유형 Ⅱ 7~8개 지역(도 단위)에서 어두 경음화가 나타나는 단어

[표 3]에 따르면 유형 Ⅱ에 해당하는 단어는 총 63개이다. 유형 Ⅰ보다 수가 많다. 유형 Ⅱ의 단어들 중 절반 이상은 제주도나 경기도 혹은 제주도와 경기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이다.

유형 Ⅱ에 ‘ㄱ’으로 시작된 단어들 중 ‘갈보, 갈퀴, 거리끼다, 건지다, 고들빼기, 고쟁이, 고추, 곤두박질, 구리다, 던지다, 둥글다, 박쥐, 반듯하다, 병아리, 세다(强), 작다, 조롱박, 족집게, 좁다, 주름살, 죽지’는 제주도와 경기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 단어는 ‘굽다, 두꺼비, 두껍다, 본받다, 쇠’가 있다. 이 중 제주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 단어는 ‘개구리, 개굴개굴, 개암, 검은자위, 고치, 곱사등이, 곶감, 그을리다, 그을음. 닦이다(사동), 닦이다(닦아지다)(피동), 조금, 족제비, 지린내’로 제주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한국방언자료집》에서 ‘닦다’의 피동 파생어 방언형에 ‘닦이다’와 ‘닦아지다’를 같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유형 Ⅲ이다. 유형 Ⅲ은 5-6개 지역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유형 Ⅲ (69)	ㄱ	가랑비, 가시랭이, 가지(茄子) , 갈치, 강짜, 강철, 갖신, 거위, 검둥개, 고드름, 고깔, 고리다, 고양이, 골마지, 광주리, 구리, 굴뚝, 귀뚜라미, 가락지, 가시(跙), 가재, 갈고리, 갈대, 감기다(사동), 감기다(피동), 거칠다, 고다, 구겨지다, 구린내, 권투, 긋다
	ㄷ	대야, 두둑, 두부, 다듬다, 다듬이질, 다듬잇돌, 당나귀, 도(윷), 돌배, 두께, 두더지, 두레박
	ㅂ	발가벗다, 번개, 벗기다, 볶다, 바닥, 방울, 본뜨다, 비둘기, 빈침,
	ㅅ	사납다, 서리, 성나다, 세다(算), 속, 속이다, 수군거리다, 삶아지다/삶기다, 성내다, 소주, 속다, 수세미, 수숫잎
	ㅈ	잠자리, 적다, 적삼, 조그마하다, 절름발이, 조각, 진드기

[표 4] 유형 Ⅲ 5-6개 지역(도 단위)에서 나타나는 단어

[표 4]에 해당하는 단어는 총 69개로, 유형 Ⅱ와 비슷하다. 유형 Ⅲ은 유형 Ⅱ와 같이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5-6개 출현 지역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반 이상의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유형 Ⅲ에 해당하는 단어를 전국적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잘 일어난다고 판단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유형 Ⅲ의 단어는 유형 Ⅱ와 같이 경기와 제주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두 개 지역에서 더 일어나지 않는다. 이 한두 개 지역은 주로 경남과 경북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해당한다.

유형 Ⅳ은 2~4 개 지역(도 단위)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유형 Ⅳ	ㄱ	가끔, 가득하다, 가라앉다, 가랑비, 가루, 가르마, 가시나무, 가시다, 가위, 가자미, 가죽, 가죽신, 가죽허리띠, 가지런하다, 가지말랭이, 갈매기, 감추다, 갑자기, 값, 개골창, 개미, 개비, 개운하다, 갯물, 거꾸러뜨리다, 거꾸러지다, 거머리, 거스러미, 거스르다, 거품, 건더기, 검다, 검불, 게, 게으르다, 게으름장이, 고갱이, 고기, 고등어, 고랑, 고리, 고무신, 고무풀, 고물, 고사리, 고소하다, 고욤, 고추장, 곤두서다, 곤지곤지, 골목, 골무, 골짜기, 곰곰히, 곱하다, 광대뼈, 괴다, 구더기, 구레, 구르다(그네를), 구멍, 구석, 구수하다, 구역질, 굳다, 굳은살, 굴, 굵다, 굶다, 굽, 궤, 금(线),

(234)		그러모으다, 그치다, 극젱이, 긁다, 긁히다, 기러기, 기울다
	ㄷ	다시다, 다지다, 달이다, 도깨비, 도깨비바늘, 도롱이, 독수리, 된장, 두다, 두드러기, 둥우리, 들, 들기름, 들깨
	ㅂ	바퀴, 바듯이, 반드럽다, 밤, 방개, 방귀, 버리다, 버찌, 버티다, 번지다, 벌, 벗다, 베끼다, 벼락, 벼룩, 별나게, 볕, 볶이다, 볼, 볼거리, 봉우리, 부서지다, 부스러기, 북데기, 불리다, 붉어지다, 비추다, 비탈, 비틀다, 비지, 빗다
	ㅅ	사레, 사마귀, 사무실, 사슴, 사위, 사이, 사자, 사탕, 사투리, 사회, 사흘, 삭다, 삭정이, 살, 살구, 살쾡이, 삼촌, 삽, 상수리나무, 새끼, 새끼손가락, 새다, 새벽, 새빨갛다, 새우, 새우다, 새우젓, 새해, 색깔, 샘, 서까래, 서늘하다, 서로, 서캐, 석류, 석유, 섞다, 섬, 성냥, 섶, 세로, 소금, 소나무, 소름, 소리, 소매, 속눈썹, 속히, 손가락, 손금, 손녀, 손님, 손수건, 손자, 손톱, 솔개, 솜, 송곳, 송이, 송편, 솥, 쇠다, 수은, 수캐, 수컷, 숫돌, 숯, 쉬, 쉬다, 시골, 시끄럽다, 시누이, 시동생, 시루, 시숙, 시원하다, 시키다, 시험, 식히다, 신 , 실, 싱싱하다, 사닥다리, 사돈, 소, 수염
	ㅈ	자갈, 자귀, 자그마하다, 자루, 자리개, 자치기, 작대기(지게), 작두, 작살, 작은집, 잔디밭, 장구벌레, 장기, 장다리무우, 제비, 조가비, 조개, 조기, 좆다, 줄이다, 지껄이다, 지랄, 지렁이, 지리다, 지지다, 지짐이, 질경이, 질다, 집다, 짚신

[표 5] 유형 Ⅳ 2-4 개 지역(도 단위)에서 나타나는 단어

[표 5]에 따르면 유형 Ⅳ에는 총 234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네 가지 유형 중에 해당 단어 수가 가장 많으며 어두 경음화 단어의 주요 유형이다. 지역으로 유형 Ⅱ와 유형 Ⅲ의 특징과 비슷하여 경기와 제주에서 찾기 힘들며 주로 경남, 경북, 전남에 분포되어 있다.

어두 자음으로 유형 Ⅳ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ㄱ, ㅅ'으로 시작된 어두 경음화 단어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 Ⅴ이다. 유형 Ⅴ는 한 지역(도 단위)에서만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유형 V (137)	경기	ㄱ	가득히, 걸(윷)
		ㄷ	달팽이
		ㅂ	방아깨비
		ㅅ	섣달그믐날
	강원	ㄱ	개똥벌레, 겨, 골파, 곰배팔이, 광대, 구두쇠, 군소리, 기슭
		ㄷ	더듬다
		ㅂ	바가지
		ㅅ	사다, 새김질하다, 시금치
		ㅈ	자개미, 자락, 지느러미
	충북	ㄱ	거들다
		ㄷ	다치다
		ㅅ	살짝, 수코양이
	충남	ㄱ	가렵다, 괜히
		ㅈ	좀, 좀처럼
	전북	ㅂ	바구미, 부끄럽다, 부엉이
		ㅅ	송사리
	전남	ㄱ	골목길
		ㄷ	달라붙다, 담, 뒤지다, 담쟁이,
		ㅂ	반드시, 벚나무, 보채다
		ㅅ	솔방울, 쇠사슬, 시루떡
		ㅈ	자주, 잠깜, 장끼, 장도리, 저기, 종지
	경북	ㄱ	가깝다, 가리, 갈기, 고개, 고둥, 굶기다
		ㄷ	덧버선
		ㅂ	방구벌레, 번지, 볏가리, 복숭아, 부뚜막, 부시다, 붇다,
		ㅅ	새기다, 성(姓), 세월, 솥뚜껑, 쇠똥구리, 쇠스랑, 시시하다
		ㅈ	자꾸, 저리다
	경남	ㄱ	가랑이, 간지럽다, 개(犬), 개(윷), 고슴도치, 곯다, 과자, 구레나룻, 구슬, 굴레, 굼벵이, 그네
		ㄷ	도꼬마리
		ㅂ	바듯이, 반딧불, 버드나무, 보자기
		ㅅ	사랑, 사발, 산, 삼, 상, 상추, 상추쌈, 새롭다, 새우등, 서름, 세넷, 소라, 손, 손등, 손목, 손바닥, 솔, 쇠파리, 숙이다, 숫구멍, 수탉, 숭늉, 승냥이, 시계, 시집, 신경, 심부름꾼
		ㅈ	잔디, 잠, 잠방이, 족제비, 종달새, 쥐, 진딧물, 진흙
	제주	ㄱ	가볍다
		ㅅ	스물, 신다, 실꾸리
		ㅈ	짚, 제기

[표 6] 유형 V 한 지역(도 단위)에서만 어두 경음화가 나타나는 단어

[표 6]을 살펴보면 각 지역에서 단독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경남에서 단독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가 가장 많다. 경남 다음은 경북, 전남, 강원 순이다. 전북, 충북, 충남, 경기, 제주도에서 단독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수는 3-6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18] 중에서 한 군에서만 일어나는 단어는 경기 시흥의 달팽이, 충북 괴산의 거들다, 영동의 다치다, 옥천의 살짝, 전북 장수의 송사리, 전남 영광의 금(线), 고흥의 달라붙다, 해남의 뒤지다, 영광의 시루떡, 경북 영양의 가깝다, 금릉의 굶기다, 봉화의 성(姓), 경남 함양의 개(윷), 거창 속눈썹, 수탉이 있다.

어두 자음으로 살펴보면 경남에서 'ㅅ'으로 시작된 어두 경음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돋보인다. 'ㄷ'으로 시작된 어두 경음화 단어는 제주, 충남, 전북에서는 찾지 못하였고, 'ㅂ'으로 시작된 어두 경음화 단어는 충북, 제주에서 찾지 못하였다. 'ㅅ'으로 시작된 어두 경음화 단어는 충남에서 찾지 못하였다. 'ㅈ'으로 시작된 어두 경음화 단어는 경기, 충북 그리고 전북에서 찾지 못하였다. 경남, 경북, 강원과 전남에서는 5개 평음으로 시작된 어두 경음화 단어는 모두 존재하여 이 중에서 'ㅅ'으로 시작된 단어가 가장 많고, 'ㄷ'으로 시작된 단어가 가장 적다.

유형 Ⅴ에 수록된 단어들이 한 지역에서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독특성이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들의 어두 경음화 방언형에 따라 쉽게 해당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달팽이'를 [딸팽이]로 발음하는 화자가 경기도 시흥 방언 화자로 알 수 있고 '스물'을 [쓰물]로 발음하는 화자는 제주도 방언 화자로 추정된다.[19]

2.2. 어두 경음화 지리적 특징 및 개시지·개신파 추정

2.1.절에서 이미 제시한 듯이 어두 경음화 단어는 출현 지역 수에 따라 다른 실현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어두 경음화 단어 지역별(도별) 유형별 통계 양상을 통하여 지역별 유형별 어두 경음화의 실현 특징을 찾아내 이를 통하여 어두 경

18) 《한국방언자료집》에서 선별된 단어들은 군 단위로 조사되어 있다.
19) 실제로 한 예능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이 '상추'를 '쌍추'를 발음해서 다른 게스트에게서 경상도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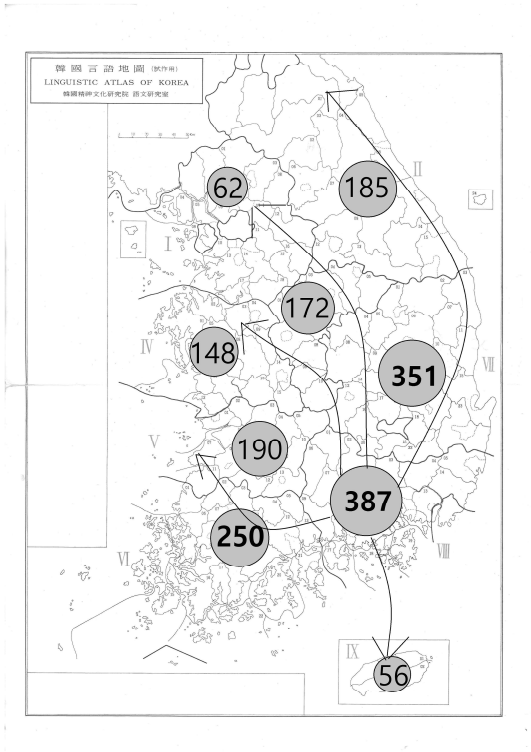
음화의 개신지 및 개신파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별(도별) 유형별 어두 경음화 단어 통계는 다음과 [표 7]과 같다.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유형 Ⅴ	계(개)
경기	17	28	7	4	6	62
강원	17	60	42	49	17	185
충북	17	62	53	36	4	172
충남	17	60	41	25	5	148
전북	17	62	52	55	4	190
전남	17	63	53	97	20	250
경북	17	63	65	179	27	351
경남	17	63	66	187	54	387
제주	17	12	8	11	8	56

[표 7] 지역별(도별) 유형별 어두 경음화 단어 개수 통계(단위: 개)

[표 7]에 따라 어두 경음화 단어 총수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충남, 경기, 제주 순서로 개수가 줄어든다. 지도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도별 어두 경음화 단어 개수

[그림 5]을 통하여 어두 경음화는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실현 개수가 줄여든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서로 인접한 지역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어두 경음화 단어수가 예외없이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두 경음화 현상의 생산력이 개신지에서 인접한 지역으로 전파 나가면서 떨어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단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남은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가장 높은 어두 경음화 개신지로 추정할 수 있다. 개신파는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 [표 7]에 제시하였다시피 지역별 어두 경음화 단어 총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비교는 단어 개수를 통하여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로써 유형별 단어수가 총수에 차지한 비율[20]을 계산하여 지역별 유형별 어두 경음화 실현 특징을 찾고자 한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단어의 지역별 유형별 단어 비율을 계산하여 아래 [표 8]과 같이 제시한다.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유형 Ⅴ
전국	3.27%	12.12%	13.27%	45.00%	26.35%
경기	27.42%	45.16%	11.29%	6.45%	9.68%
강원	9.19%	32.43%	22.70%	26.49%	9.19%
충북	9.88%	36.05%	30.81%	20.93%	2.33%
충남	11.49%	40.54%	27.70%	16.89%	3.38%
전북	8.95%	32.63%	27.37%	28.95%	2.11%
전남	6.80%	25.20%	21.20%	38.80%	8.00%
경북	4.84%	17.95%	18.52%	51.00%	7.69%
경남	4.39%	16.28%	17.05%	48.32%	13.95%
제주	30.36%	21.43%	14.29%	19.64%	14.29%

[표 8] 어두 경음화 단어 지역별 유형별 비율(유형별 단어 개수/ 지역 단어 총수)

[표 8]에서 회색으로 칠한 부분은 해당 지역의 다섯 유형 중에서 비율이 1위, 2위로 높은 것이다. 색깔 친 부분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것을 통하여 경기에서 경남으로 출현 지역수가 많은 유형Ⅰ, Ⅱ, Ⅲ[21]의 비

20) 어두 경음화 실현율과 다른 개념이다.

율이 갈수록 감소되며 출현 지역수가 적은 유형Ⅳ, Ⅴ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 지역 각 유형의 비율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어두 경음화의 생산성을 알아볼 수 있다. 출현 지역수가 많은 유형(유형 Ⅰ, Ⅱ, Ⅲ)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에 출현 지역수가 적은 유형(유형 Ⅳ, Ⅴ)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두 경음화 단어의 출현 지역수가 많을수록 해당 단어가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한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고 있다면 해당 지역에서 대부분 어두 경음화 단어가 다른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즉 해당 지역에서 대부분 단어는 보편적이고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단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에 출현 지역수가 적을수록 해당 단어가 특정한 지역에서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한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고 있다면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단어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해당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단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표 8]은 어두 경음화 현상이 경기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고 경남으로 내려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의 비율과 유형 Ⅳ, 유형 Ⅴ의 비율을 통하여 어두 경음화 생산력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제주, 경기의 순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 결과는 앞에 제시한 [그림 5]에 의한 추정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현상은 경남을 개신지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유형 Ⅱ의 단어들은 대부분 경기나 제주, 혹은 경기와 제주에서만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어두 경음화의 개신지가 경남인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경남과 가장 먼 곳이기 때문이다. 개신지와 멀수록 개신파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21) 출현 지역 수는 전국 9개 도의 반을 기준으로 한다. 즉 '>4.5'는 많은 것이고 '<4.5'는 적은 것이다.

있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경기와 제주에서 찾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3. 소결

2.1에서는 《방언자료집》 과 《한국방언자료집》 에서 선별된 520개의 어두 경음화 단어의 지역적 특징을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어두 경음화 출현 지역 수에 따라 단어를 유형 Ⅰ 9개 지역, 유형 Ⅱ 7-8개 지역, 유형 Ⅲ 5-6개 지역, 유형 Ⅳ 2-4개 지역, 유형 Ⅴ 1개 지역과 같이 다섯 유형으로 나눠 단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유형별 단어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유형 Ⅴ	계
개수	17	63	69	234	137	520

[표 9] 어두 경음화 단어 유형별 단어 개수([표 1])

이 다섯 개의 유형 중에서 유형 Ⅳ에 해당 하는 단어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어두 경음화 단어가 여기에 속한다. 유형 Ⅴ는 지역 특성이 가장 강하다.

2.2에서는 각 유형이 해당 지역의 어두 경음화 단어 총수에서 차지한 비율을 통하여 어두 경음화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제주, 경기 순으로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현상은 경남을 개신지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3. 어두 경음화의 음운론적 실현 양상

제2장에서 어두 경음화의 지리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어두 경음화의 언어학적인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음운론적인 요소인 어두 자음, 후행 모음, 음절수, 음절구조 등에 따른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의 전국 및 지역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1. 어두 자음별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 및 분포

3.1.1. 어두 자음별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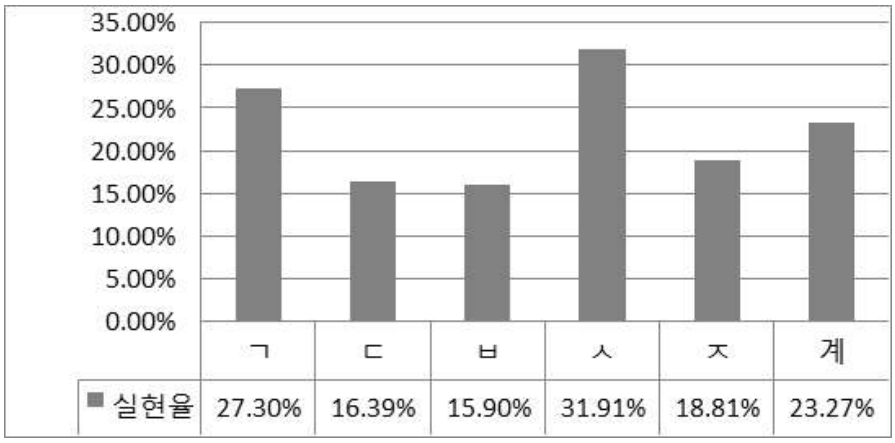
어두 경음화는 어두 위치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무엇보다 어두 자음을 통한 관찰은 가장 직관적이다. 이 항에서는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사용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이 어두 자음에 따라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두 경음화 실현율은 1.2에서 이미 언급된 듯이 어두가 평음으로 시작된 단어 중에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의 비율을 의미한다.

《방언자료집》과 《한국방언자료집》에서 선별된 520개 어두 경음화 단어의 어두 자음에 따른 실현율을 계산하여 아래 [표 10]과 같이 제시한다.

어두 자음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 수	방언 어두 경음화 단어 수	실현율
ㄱ	641	175	27.30%
ㄷ	299	49	16.39%
ㅂ	415	66	15.90%
ㅅ	492	157	31.91%
ㅈ	388	73	18.81%
계	2235	520	23.27%

[표 10] 자음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표 10]의 자음별 실현율을 더 직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그림 7]과 같이 그래프로 다시 제시한다.



[그림 6] 자음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그림 6]에 따르면 어두 경음화 현상의 전국적인 실현율은 23.27%이다. 즉 10개의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 중에 2개 정도의 단어가 한국 어느 지역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두 경음화 현상은 [그림 6]에 제시된 듯이 어두 자음에 따라 다른 실현 양상을 가지고 있다. ‘ㄱ, ㄷ, ㅂ, ㅅ, ㅈ’ 중에 ‘ㅅ’의 실현율이 가장 높고 ‘ㄱ’도 상당히 높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어두 자음 실현율은 ‘ㅈ, ㄷ, ㅂ’의 순서로 낮아지지만 ‘ㄷ’과 ‘ㅂ’은 거의 비슷한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자음의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마찰음이 폐쇄음과 파찰음보다 실현율이 높다, 자음의 조음위치에 따라서는 경구개음, 구개음, 치조음, 양순음의 순서로 조음위치가 앞으로 갈수록 실현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제2장의 유형 목록에 제시했듯이 어두 ‘ㅅ’의 경우 경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어두 자음에 따른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음별 지역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하여 아래 [표 11]과 같이 제시한다.

	ㄱ	ㄷ	ㅂ	ㅅ	ㅈ	전체[22]
경기	3.90%	4.01%	1.45%	2.44%	1.55%	2.73%
강원	10.45%	8.70%	5.06%	7.11%	6.70%	7.83%
충북	11.23%	8.70%	4.58%	5.08%	6.44%	7.47%
충남	9.98%	6.35%	5.06%	3.86%	5.41%	6.44%
전북	13.42%	7.36%	5.54%	5.49%	7.47%	8.37%
전남	16.07%	11.04%	7.71%	8.13%	10.05%	11.05%
경북	19.19%	12.04%	10.12%	20.12%[23]	11.08%	15.35%
경남	20.28%	11.71%	10.84%	26.42%	11.08%	17.14%
제주	2.65%	3.01%	1.69%	3.46%	1.55%	2.51%

[표 11] 자음별 지역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표 11]에 따르면 어두 자음에 따른 어두 경음화 현상은 지역별로 비슷한 실현 양상을 가지고 있다. 자음별 어두 경음화 최고 실현율은 경남과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어두 'ㄱ, ㅂ, ㅅ'은 경남에서, 'ㄷ'은 경북에서, 'ㅈ'은 경북과 경남에서 공동으로 최고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표 11]에서 제시되었다시피 경북과 경남의 자음별 실현율이 'ㅅ'를 제외하여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ㄱ, ㄷ, ㅂ, ㅈ'은 경상도에서 높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ㅅ'이 경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인 높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자음별 어두 경음화의 최저 실현율은 제주와 경기에 분포되어 있다. 어두 'ㄱ, ㄷ'은 제주도에서, 'ㅂ, ㅅ'은 경기도에서, 'ㅈ'은 제주와 경기에서 공동으로 최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또 경기와 제주의 자음별 실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은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낮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음별로 고려하지 않을 때 어두 경음화 현상의 지역별 실현율 순서는 경남, 경

22) =해당 지역 어두 경음화 단어 수/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 총수

23) 경북에서 일부 지역에서 'ㅅ'과 'ㅆ'이 변별되지 않다. 본고에서 사용된 두 자료 중에 《한국방언자료집》에는 이 특징을 잘 반영되어 있지만 《방언자료집》에는 도별로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특징을 잘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ㅅ'을 'ㅆ'으로 발음된 어두 경음화 방언형은 흔히 보인다. 분석 방법에 따라 520개 어두 경음화 단어는 《한국방언자료집》과 《방언자료집》을 종합해서 선별된 것이기 때문에 경북에서 일부 지역에서 'ㅅ'과 'ㅆ'이 변별되지 않다는 특징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3.1.2에서 《한국방언자료집》만 사용하여 군별 분석을 통하여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충남, 경기, 제주로 되어 있다. 이때 경남, 경북, 전남의 실현율은 10%를 넘어 꽤 높은 정도이다. 전북, 강원, 충북, 충남의 실현율은 6-8% 사이에 중간 정도 높다. 제주와 경기는 3%도 안 되는 낮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 자음별 어두 경음화의 실현 양상을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11]의 자음별 실현율 순서를 지역별로 정리하여 [표 12]와 같이 다시 제시한다.

경기	ㄷ	4.01%	ㄱ	3.90%	ㅅ	2.44%	ㅈ	1.55%	ㅂ	1.45%
강원	ㄱ	10.45%	ㄷ	8.70%	ㅅ	7.11%	ㅈ	6.70%	ㅂ	5.06%
충북	ㄱ	11.23%	ㄷ	8.70%	ㅈ	6.44%	ㅅ	5.08%	ㅂ	4.58%
충남	ㄱ	9.98%	ㄷ	6.35%	ㅈ	5.41%	ㅂ	5.06%	ㅅ	3.86%
전북	ㄱ	13.42%	ㄷ	7.47%	ㅈ	7.36%	ㅂ	5.54%	ㅅ	5.49%
전남	ㄱ	16.07%	ㄷ	11.04%	ㅈ	10.05%	ㅅ	8.13%	ㅂ	7.71%
경북	ㅅ	20.12%	ㄱ	19.19%	ㄷ	12.04%	ㅈ	11.08%	ㅂ	10.12%
경남	ㅅ	26.42%	ㄱ	20.28%	ㄷ	11.71%	ㅈ	11.08%	ㅂ	10.84%
제주	ㅅ	3.46%	ㄷ	3.01%	ㄱ	2.65%	ㅂ	1.69%	ㅈ	1.55%
평균	ㄱ	11.91%	ㅅ	9.12%	ㄷ	8.10%	ㅈ	6.82%	ㅂ	5.78%

[표 12] 어두 경음화 지역별 자음별 실현율 순서

[표 12]를 살펴보면 'ㅅ'은 각 지역에서 아주 불안정하게 어두경음화가 실현되고 있다. 'ㅅ'은 경남, 경북에서 다른 어두 자음보다 압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다른 자음보다 비교적으로 낮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어두 자음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ㄱ, ㄷ, ㅈ, ㅂ'의 순서로 실현율이 낮아진다.[24] 여기서 경기와 제주에서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전체적으로 아주 낮기 때문에 두 지역의 어두 자음별 간의 실현율 비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어두 경음화 지역별 평균 실현율에 따라 어두 자음은 'ㄱ, ㅅ, ㄷ, ㅈ, ㅂ'의 체감(遞減) 순서로 실현된다. 이 중에서 어두 'ㄱ'은 다른 어두 자음보다 뚜렷한 우세를 보인다.

24) 경기에서 'ㄷ'과 'ㄱ'의 실현율이 0.11%의 차이밖에 안 나므로 같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경기에서도 'ㄱ, ㄷ, ㅈ, ㅂ'의 순서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자음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은 전국을 단위로 할 때 'ㅅ, ㄱ, ㅈ, ㄷ, ㅂ'의 순서로 실현되지만,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는 자음별 실현율이 평균적으로 'ㄱ, ㅅ, ㄷ, ㅈ, ㅂ'의 순서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 'ㄱ, ㄷ, ㅈ, ㅂ'의 실현 양상은 어느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순서로 나타나는 반면에 'ㅅ' 불안정적인 실현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돋보인다.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다시 어두 자음별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면('ㅅ'은 불안정적인 실현 양상을 고려하여 분석에 제외함) 각 방언에서 어두 경음화는 자음의 조음 방법이 같은 경우에 조음위치에 따라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의 순서로 실현율이 낮아진다. 즉 조음방법이 같은 경우에 조음위치가 뒤로 갈수록 어두 경음화가 더 잘 일어난다. 조음 위치가 같은 경우에 조음방법에 따라 어두 경음화의 실현 규칙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파열음이 파찰음보다 어두 경음화 현상이 더 잘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음성학적으로 경음은 평음과 동일한 조음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발음하면서 후두를 더 긴장시켜 성문을 강하게 폐쇄하여 발음한다. 조음위치에 따라 뒤로 갈수록 혀와 후두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후두 긴장을 시키는 데에 더 용이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차균(1997)에서 평음과 경음의 음운자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평음[−후두 압축, −조음부 켕김, −기], 경음[+후두 압축, +조음부 켕김, −기]. 평음과 비교할 때 경음은 [+긴장성]뿐만 아니라 [+후두 압축]의 자질도 가지고 있다. 후두와 가까울수록 후두 압축에 더 용이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조음위치가 뒤일수록 경음을 발음하기 더 쉽다고 추정할 수 있다.

3.1.2. 어두 자음별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 및 개신지·개신파 추정

이 항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의 어두 자음별 전국 실현 분포에 초점을 두어 전국 분포뿐만 아니라 실현정도도 같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별 단위가 아닌 군별 단위로 어두 경음화의 실현율을 계산하여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하고자 한다.[25)]

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2 장에서 이미 제시된 520개 어두 경음화 단어 중에 《한국방언자료집》 에서 선별된 단어만을 계산 대상으로 한다. 계산 방법은 3.1.1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9권(도별 한 권)으로 이루어진 《한국방언자료집》 의 각 방언의 단어 목록이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실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현율을 계산한 뒤 이를 지도에 표시할 때, 가장 적합한 지도는 비율지도[26)]이다. 비율지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율의 실재를 비례적으로 드러내는 원그래프를 이용하여 해당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실현율 실재의 비례보다 실현율이 반영된 정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원그래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실현율을 5 등급으로 나눠 색깔로 실현 정도를 나타내고자 한다.

실현율 등급을 나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4등급은 해당 어두 자음(자음별)의 전국 최고 실현율과 최저 실현율의 구간을 4등분을 하여 가장 높은 구간에서 차례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뉜 것이다. 5등급은 실현되지 않는 것, 즉 실현율이 0%인 것이다. 등급에 따라 1등급은 검은색, 2등급은 진한 회색, 3등급은 회색, 4등급은 연한 회색, 5등급은 흰색[27)]으로 표시한다. 즉 색깔이 진할수록 어두

---

25) 본고의 논의는 전체적으로 군별 분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군별로 조사된 《한국방언자료집》 에 수록된 단어 수가 한정적이고 어두 경음화 단어 목록을 최대 늘리기 위하여 도별만으로 정리된 《방언자료집》 도 같이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선별된 어두 경음화 단어는 모두 군별까지 확인하지 못해 전반적인 분석은 도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절에서는 전국 실현 분포에 초점을 두어 군별 분석이 필요하여 《방언자료집》 을 제외해 전국 138개 군의 방언을 동일한 자료를 통하여 조사된 《한국방언자료집》 만 사용하고자 한다.

26) 정승철(2013:132-135)에 의하면 방언지도는 제작의 목적에 따라 크게 진열지도(display map)와 해석지도(interpretive map)로 나눈다. 이 중에서 진열지도는 방언 특징들을 지도상에 진열하여 지역 간의 방언차를 알아보기 쉽게 그린 지도이다. 진열지도는 크게 조사된 정보를 지도에 직접 표시한 원자료지도(raw data map)와 조사된 정보에다가 상징적 기로를 배정하여 이를 지동 표시한 기호지도로 나눌 수 있다. 비율지도는 일종의 원자료지도이다. 이는 조사된 병언형의 출현 또는 사용 비율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단 지점에 직접 기록해 놓는다. 해당 지역의 방언 특징을 즉시 알아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경음화 실현 정도가 높다.

실현율을 자음에 따라 5등분을 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음별 실현율의 구간이 'ㄱ'이 최대로 15%, 'ㅈ'이 최소로 6%이다. 그러나 100%에 비하여 '6%-15%'는 구간이 크지 않으므로 등급을 많이 나눌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을 3,4,5등분을 할 방법을 마련하여 시도를 해보았다. 이 중에서 어두 경음화 실현 정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은 4등분의 방법이다.[28] 이밖에 실현율이 0%일 때 실현되지 않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현율이 0%인 것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실현율을 총 5개 등급으로 나눈 방법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각 어두 자음이 모두 같은 기준이 아닌 자음별 최고, 최저 실현율에 따라 등급을 나뉘는 것은 자음별 간의 차이 때문이다.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면 'ㅈ'과 같은 경우 1등급, 2등급 실현율이 존재하지 않아 지도로 실현 정도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3.1.2.1. 어두 'ㄱ'의 실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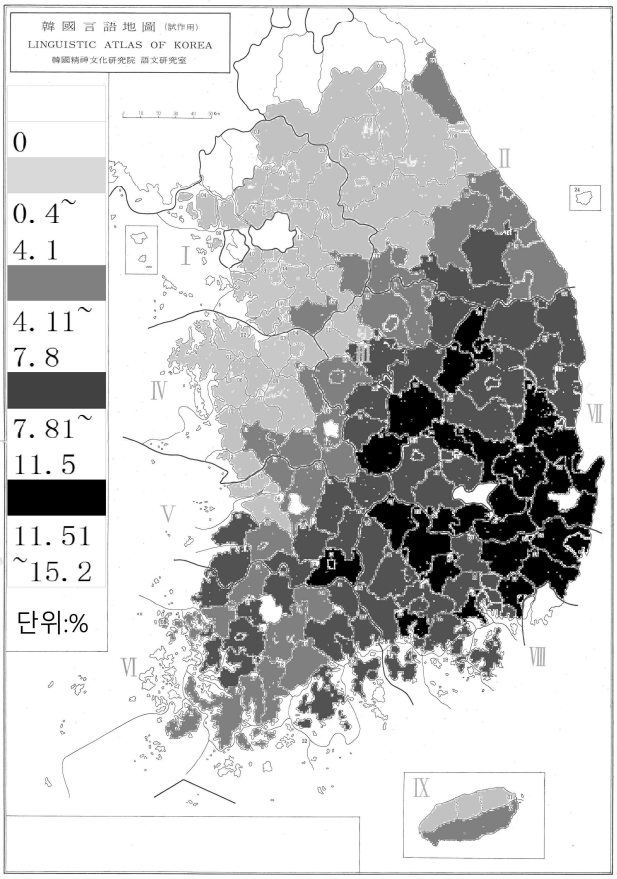
먼저 어두 'ㄱ'의 실현 분포이다. 앞에 제시한 방법으로 어두 'ㄱ'의 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29]을 계산해보면 138개 군에서 경상북도 월성이 15.22%로 가장 높고 경기도 포천이 0.44%로 가장 낮다. 실현율을 다섯 등급으로 나눠 지도로 아래 [그림 7]과 같이 제시한다.

---

27) 《한국방언자료집》에서 서울,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경주 지역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도에서 흰색으로 반영한다. 이 지역들을 제외한 흰색 지역은 어두 경음화 현상이 실현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28) 3등분 방법의 실행 가능성도 높지만 4등분 방법에 비하여 실현 정도가 인접된 지역을 통하여 점차 변하는 것을 잘 드러나지 못한다. 반면 5등분의 방법을 취하면 지도가 난잡하고 'ㅈ'에서 1%의 차이로 등급이 달라진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29) 한 군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단어의 가중치를 0.5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지느러미'는 강원 삼척에서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지느러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삼척 지역의 어두 경음화 단어 수를 통계할 때 '지느러미'는 0.5개로 통계하고자 한다.



[그림 7] 어두 ‘ㄱ’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도

[그림 7]와 같이 어두 ‘ㄱ’은 경북의 영풍, 예천, 상주, 청송, 선산, 군위, 영일, 경산, 영천, 고령, 청도, 월성, 경남의 거창, 밀양, 울산, 의령, 창원, 김해, 양산, 사천 그 외에 전북 남원과 충북 영동에서 1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월성은 15.22%로 실현율이 가장 높으며 2위 13.48%로 높은 예천, 영청보다 아주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하다.

1등급 지역들과 인접한 경남의 창녕, 함양, 산청, 하동, 진주, 함안, 고성, 남해, 통영, 거제, 경북의 봉화, 울진, 문경, 안동, 영양, 의성, 영덕, 금릉, 성주, 칠곡, 전남의 영광, 담양, 구례, 광산, 무안, 나주, 승주, 광양, 영암, 고흥, 여천, 전북의 진안, 무주, 부안, 임실, 장수, 고창, 순창, 충북의 단양, 괴산, 보은, 옥천 그리고 강원

의 영월, 정선 지역은 2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3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중 강원의 고성, 경기의 안성을 제외해 모두 2등급 지역들과 인접되어 있다. 충남과 경기 그리고 강원 북부지역은 4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서 실현되지 않는 지역이 없으므로 5등급 지역이 없다.

[그림 7]를 살펴보면 경남과 경북의 실현율이 모두 1, 2등급이고 전남, 전북은 거의 다 2, 3등급이다. 충북은 격차 가장 심해 1, 2, 3, 4등급 실현율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강원 남부 지역은 주로 2, 3등급이며 북부는 4등급이다. 충남, 경기는 4등급이고 제주는 3, 4등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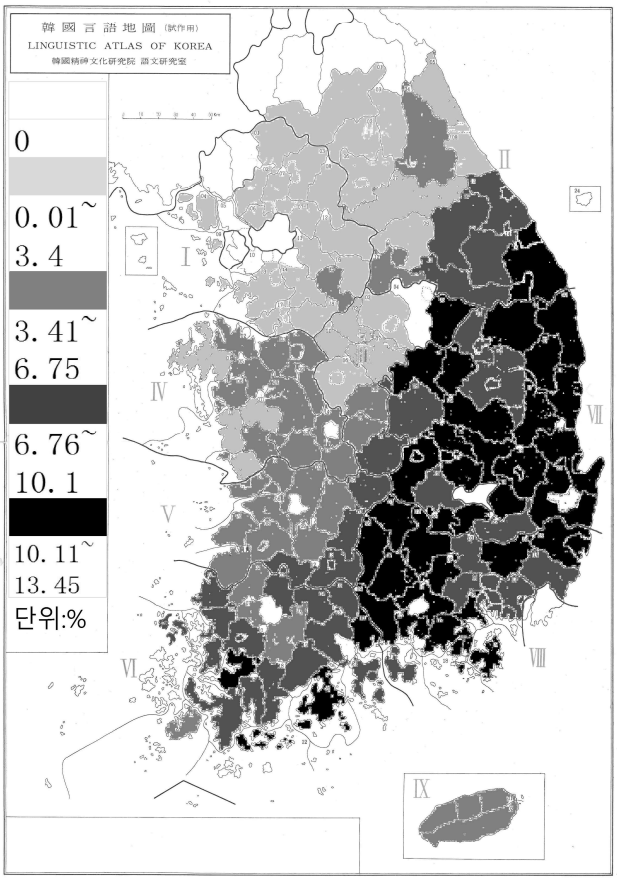
정승철(2013 : 181-214)에 의하면 개신파의 중심지 또는 그에 가까이 위치하는 방언들은 해당 언어 개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거기에서 멀어지면 그 개신의 효력은, 중심지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약화된다. 위에 살펴본 지도 역시 이것을 반영한다. [그림 7]에서 어두 'ㄱ'의 어두 경음화 현상이 경북 월성을 중심지역[30]으로 경북과 경남의 동해안 지역에서 내륙으로 확산되면서 실현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두 'ㄱ'의 개신지는 경북 월성을 중심으로 경북과 경남의 동해안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1등급 실현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월성에서 영천, 군위, 선산, 상주 지역에 따라 서북 방향, 상주에서 다시 서남 영동, 동북 예천, 영풍으로 'ㅅ'자 모양과 같이 분포된 것이 돋보인다. 그리고 경북과 경남 인접한 지역에 따라 서남 방향으로 된 분포도 잘 보인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현상은 이러한 경로에 따라 전국으로 전파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파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에 들어가 급속으로 약화되어 충남과 경기 그리고 강원의 북부 지역까지 영향이 크게 전파되지 못하였다.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 급속 약화된 것은 지리적, 사회적인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충청북도, 강원도와 경상북도 사이의 산맥 때문에 지리적인 저지를 받아 약화된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로는 금강의 저지 때문에 멀리 전파되지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0) 정승철(2013 : 181-214)에 의하면 개신파에 대하여 그 영향이 매우 강력한 지역을 중심지역(center of innovation)이라 한다.

3.1.2.2. 어두 ‘ㄷ’의 실현율 분포

어두 ‘ㄷ’의 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하면 138개 군에서 경상북도의 영천이 13.45%로 가장 높고 충청북도 제원과 경기도의 파주, 김포에서는 0%로 가장 낮다. 실현율을 다섯 등급으로 나눠 지도로 아래 [그림 8]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8] 어두 ‘ㄷ’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도

[그림 8]에서와 같이 어두 ‘ㄷ’은 경북의 봉화, 울진, 문경, 예천, 영양, 의성, 청송, 영덕, 금릉, 선산, 군위, 영일, 칠곡,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월성, 경남의 거창, 합천, 밀양, 울산, 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주, 창원, 사천, 고성, 통영, 거제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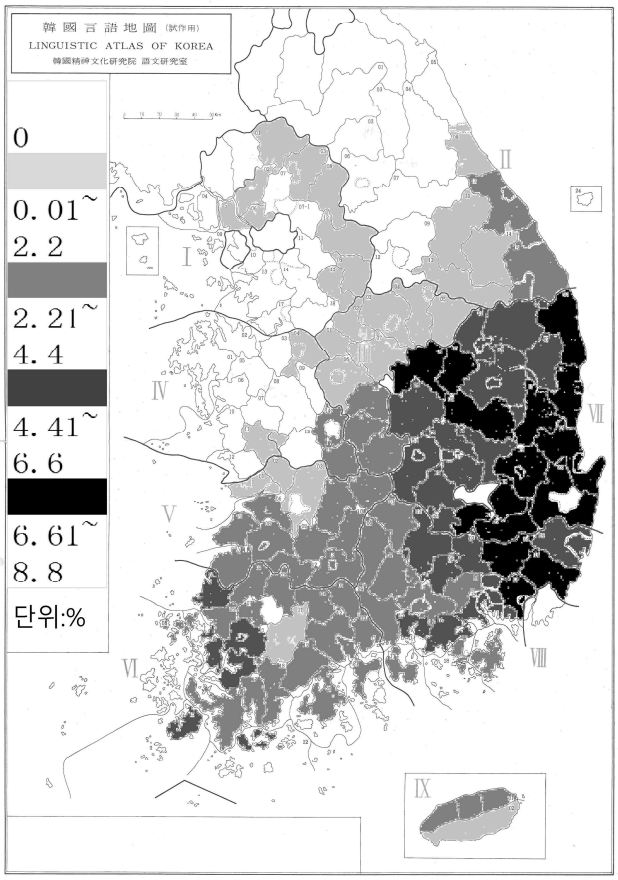
전남의 광양, 영암, 고흥, 완도와 충북 단양, 강원 삼척에서 1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1등급 지역들과 인접된 충북 제원, 중원, 괴산, 보은, 옥천을 제외된 모든 지역은 2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3등급 실현율은 주로 충남, 전북, 제주에 분포되어 있다. 4등급 실현율은 주로 충북 중부, 경기도, 강원도 북부에 분포되어 있다. 5등급은 충북의 제원과 경기의 파주, 김포에 분포되어 있다.

어두 'ㄷ'의 어두 경음화 현상의 1등급 실현 지역 분포는 경북 대부분 지역, 경남 서부지역, 충북, 강원이 경북과 인접한 단양, 삼척지역 그리고 전남 남해안 영암, 고흥, 광양에 분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어두 'ㄷ'의 어두 경음화 개신지는 경북과 경남 서부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신파는 경남, 경북의 동해안에 따라 강원도로 올라가는 경로, 경북 영천에서 문경 방향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경로, 그리고 경남, 경북 서쪽에서 인접된 지역으로 전파 가는 경로로 추정할 수 있다. 전남 서,남해안의 실현 현황을 통해 경남에서 바다를 통한 경로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전파는 어두 'ㄱ'과 같이 충북과 강원에 들어가 급속으로 약화되어 경기와 강원의 북부 지역까지 영향이 크게 전파되지 못하였다. 충남에서는 충북보다 어두 경음화 실현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경북에서 충북을 건너오는 개신파보다 밑에 지역에서 온 전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1.2.3. 어두 'ㅂ'의 실현율 분포

어두 'ㅂ'의 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하여 138개 군에서 경북 월성은 11.03%의 실현율로 가장 높다. 경기, 강원 그리고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현율을 다섯 등급으로 나눠 지도로 아래 [그림 9]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9]어두 'ㅂ'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도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 어두 'ㅂ'은 경남의 밀양, 김해, 양산, 그리고 경북의 울진, 문경, 예천, 청송, 영덕, 영일, 경산, 영천, 달성, 청도, 월성에서 1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이때 어두 'ㄱ'과 같이 월성에서 돋보이는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등급 실현율은 주로 경북 나머지 지역, 경남 함천, 창녕, 의령, 창원, 사천, 고성, 그리고 울산, 전남 서해안 영광, 나주, 무안, 영암, 진도, 완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3등급 실현율은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의 접경 지역과 강원도 동남 해안의 강릉과 삼척 지역 그리고 제주도 북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4등급 실현율은 전남 중부 화순, 전북 남부 군산, 익산, 완주와 충남 천안, 부여, 충북 북부, 경기에 강원도와 접경된 동부 지역, 강원 남부, 제주 남부에 분포되어 있다. 5등급은 경

기, 강원 중북부 그리고 충남 대부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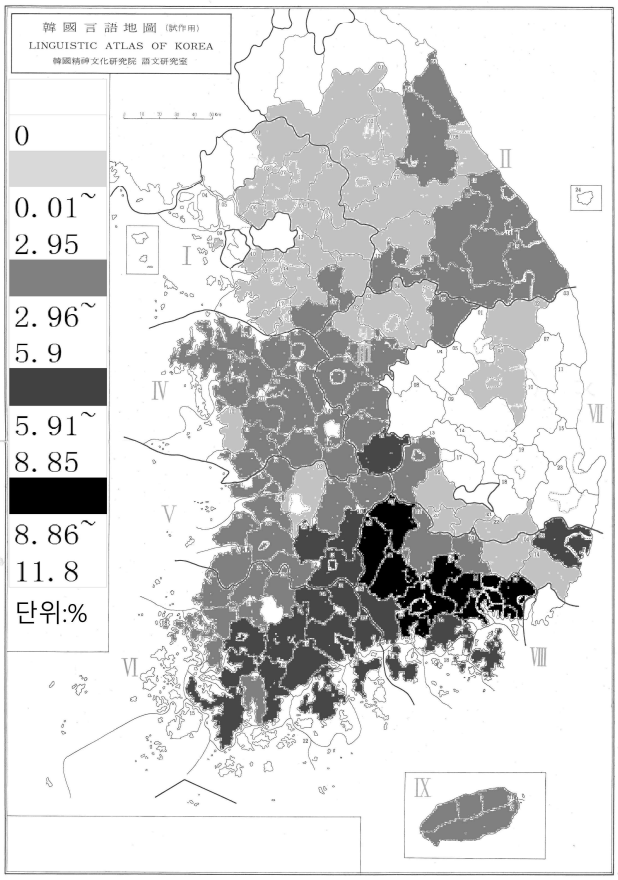
어두 'ㅂ'의 어두 경음화 현상의 1등급 실현 지역 분포는 경상도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어두 'ㅂ'의 어두 경음화 개신지는 경상도 동부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신파는 경남, 경북의 동해안에 따라 강원도로 올라가는 경로, 경상도 동부 지역에서 전라도로 서쪽 방향 경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 어두 'ㄱ', 'ㄷ'과 같이 경북 월성에서 영천, 의성, 문경에 따라 서북 방향으로 된 강력한 전파 경로도 보이지만 이러한 전파는 경북에서 충북과 강원에 들어가 급격히 쇠퇴하여 충남, 경기, 강원 대부분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개신파는 주로 남북 방향보다 개신지에서 서쪽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경남에서 바다의 경로를 통하여 전라도 서해안 지역, 제주 지역으로 전파된 경로도 추정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어두 'ㅂ'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어두 'ㄱ, ㄷ'에 비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3.1.2.4. 어두 'ㅅ'의 실현율 분포

어두 'ㅅ'의 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하여 138개 군에서 경남 진주는 11.80%의 실현율로 가장 높다. 어두 'ㅅ'의 경음화는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이것은 경북의 대부분 지역에는 ㅆ 음소가 없기 때문이다.[31] 따라서 실현율을 다섯 등급으로 나눠 지도로 아래 [그림 10]과 같이 제시한다.

---

31) 김덕호(1993)에 따르면 경상북도 방언은 자음 체계에서 마찰음 계열의 'ㅅ'과 'ㅆ'이 변별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어두 ㅅ 비경음 지역은 청도, 월성, 경산, 영천, 영일이고, 혼란된 양상을 보이는 전이지역으로는 대구, 달성,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청송, 영덕, 울진(일부 지역)이 있다.
최명옥(1992:57)에 따르면, 'ㅅ'과 'ㅆ'의 대립이 없는 곳은 경북의 '청송·영덕·군위·영일·칠곡·결산·영천·고령·달성·청도·경주'와 경남의 '밀양·울산·김해·양산·부산' 지역이다.



[그림 10] 어두 'ㅅ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도

[그림 10]를 살펴보면 어두 'ㅅ'는 경남 거창, 함양, 진주, 함안, 창원, 김해, 사천 지역에서 1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서남 방향에 위치한 전북 일부 지역과 전남 대부분 지역은 2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3등급 실현율은 주로 전남 서북부과 전북 서부 지역과 동부 무주와 진안, 충북 남부와 단양, 그리고 강원도 남부 지역과 고성, 인제 그리고 제주에 분포되어 있다. 4등급 실현율은 주로 경기 대부분 지역, 강원 서북지역, 충북 북부 지역, 충남 서해안 보령, 전북 북부 완주 지역, 경북과 경남 접경된 성주, 고형, 달성, 청도 지역, 그리고 봉화 안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5등급 실현율은 경북 4등급 지역 제외한 모든 지역 그리고 경기의 강화, 김포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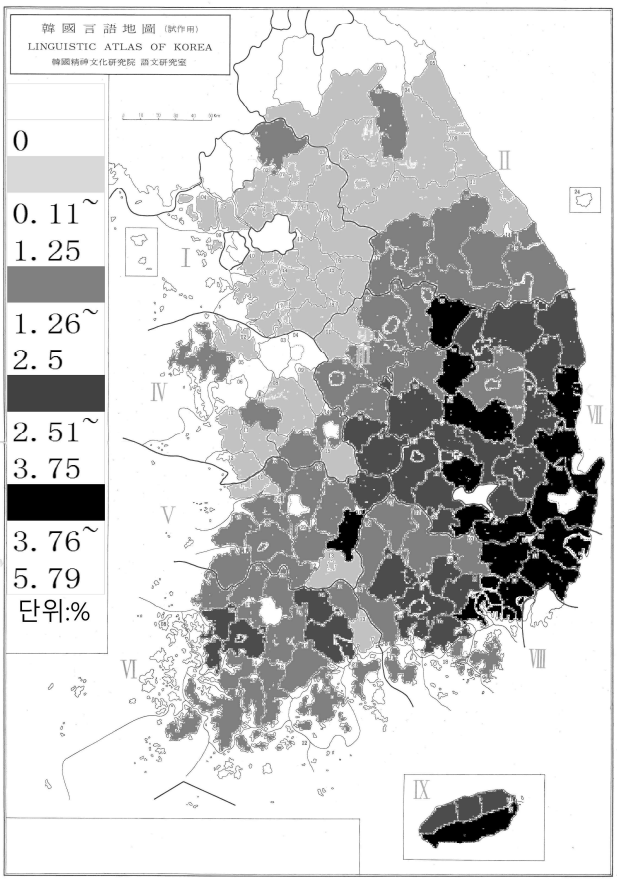
되어 있다.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ㅆ’의 음소가 없기 때문에 어두 ‘ㅅ’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어두 ‘ㅅ’의 어두 경음화 1등급 실현 지역은 다른 어두 자음에 비하여 분포가 아주 좁으며 경남 서부와 남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어두 ‘ㅅ’의 어두 경음화 개신지는 경남 서부와 남부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신파도 앞에 언급된 자음에 비하여 더 단순하다. 어두 ‘ㅅ’은 개신지에서 전국으로 전파 나가는 과정에 ‘ㅆ’의 음소가 없는 경북 지역의 저지로 인해 전파가 막히게 되어 동부 지역에의 전파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 어두 ‘ㅅ’의 개신파는 주로 개신지에서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쪽으로 전파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언어 개신의 중심지 인근에는 해당 개신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며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두 ‘ㅅ’의 어두 경음화 전파는 충남에서 인접된 경기와 충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강원도에 들어가 다시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지역에서 ‘ㅅ’이 아닌 다른 어두 자음도 비교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어두 ‘ㅅ’의 전파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강화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1.2.5. 어두 ‘ㅈ’의 실현율 분포

어두 ‘ㅈ’의 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하여 138개 군에서 경북 영덕과 월성은 5.79%의 실현율로 가장 높다. 충남의 아산, 천안, 예산, 홍성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현율을 다섯 등급으로 나눠 지도로 아래 [그림 11]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11] 어두 'ㅈ'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도

[그림 11]에 제시하듯이 어두 'ㅈ'은 경남의 밀양, 울산, 창원, 김해, 양산, 경북 의예천, 의성, 영덕, 영일, 칠곡, 달성, 청도, 월성 그리고 전남 승주, 전북 장수, 충북 단양, 북제주[32]에서 1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에서 높은 실현율을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이 지역들과 인접한 경북 대부분 지역, 경남 서남부 지역, 전남 서해안 함평, 무안, 나주, 동부 곡성, 순천, 충북 영동 그리고 남제주에서 2등급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3등급 실현율은 경북 안동, 문경 지역, 경상도 서북부, 전라도,

32)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제기→쪼께, 쪼끼', '짚신→찝신'의 어두 경음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충북 대부분 지역, 충남 서산, 청양, 강원 남부, 양구, 경기 연천에 분포되어 있다. 4등급 실현율은 주로 충남 남부, 경기도, 강원도 북부에 분포되어 있다. 5등급은 충남의 아산, 천안, 예산, 홍성에 분포되어 있다.

어두 'ㅈ'의 1등급 지역 분포는 주로 경상도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어두 'ㅈ'의 어두 경음화 개신지는 경상도의 동해안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앞에 어두 자음 'ㄱ, ㄷ, ㅂ'과 비교하면 어두 'ㅈ'의 분포가 약간 분산되어 있으며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강한 실현 양상을 보인다. 개신파는 개신지에서 동해안에 따라 강원도로 올라가는 경로, 중심지역인 경북 월성에서 의성, 예천, 단양에 따라 서북 방향으로 나간 경로, 경남 동해안에서 서남 방향으로 나간 경로를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어두 'ㄱ, ㄷ, ㅂ, ㅈ'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가 서로 비슷하지만, 어두 'ㅅ'은 이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어두 'ㄱ, ㄷ, ㅂ, ㅈ'의 최고 실현율은 모두 경북 동남 지역 '월성, 영천'에 분포되어 있다. 어두 'ㄱ, ㄷ, ㅂ, ㅈ'은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도 동해안 지역에서 활발히 실현되어 있다. 어두 'ㄷ'이 경남에서 다른 어두 자음에 비하여 동쪽보다 서쪽에서 더 활발하다는 것이 돋보인다. 그리고 경북 월성, 영천, 의성, 문경, 예천이 서로 연결된 지대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실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대는 바로 경북에서 충북으로 확산 경로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남 해안지역이 서남 내륙지역보다, 실현율이 높다는 공통점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이돈주·홍순탁(1965)[33]에서 섬이나 해안지역일수록 자연 환경에 의한 심리작용이 하여 평음보다는 경음과 격음을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두 'ㅅ'의 어두 경음화는 어두 'ㄱ, ㄷ, ㅂ, ㅈ'과 달리 경남 서부와 남부 지역에 활발히 실현되어 있어 경북에 'ㅆ'의 음소가 없는 지역에 큰 저지를 받아 전파가 주로 개신지에서 서부 지역을 통하여 북부 지역까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한다.

33) 한명숙(2011)에서 재인용

3.2. 후행 모음별 어두 경음화 양상

어두 경음화 현상은 어두 위치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후행 모음에 따를 실현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절에서는 바로 어두 경음화 현상은 후행모음에 따른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후행모음은 단모음 'ㅏ, ㅐ, ㅓ, ㅔ, ㅗ, ㅜ ,ㅡ, ㅣ' 8개만 가지고 논의하고자 한다.[34]

어두 경음화 현상이 어두 후행 모음에 따른 실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의 후행 모음 실현 개수를 먼저 아래 [표 13]과 같이 통계하여 제시한다.

	ㅏ	ㅐ	ㅓ	ㅔ	ㅗ	ㅜ	ㅡ	ㅣ
ㄱ	179	22	66	5	125	66	61	65
ㄷ	99	26	28	3	72	37	36	3
ㅂ	127	28	38	9	54	95	0	48
ㅅ	118	38	72	22	86	72	9	84
ㅈ	119	20	65	12	58	49	6	79
계	642	134	269	51	395	319	112	279

[표 13]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의 모음 분포 (단위: 개)

[표 13]에 따르면 어두 평음 단어 어두 후행 모음은 'ㅏ, ㅗ, ㅜ, ㅣ, ㅓ, ㅐ, ㅡ, ㅔ'의 순서로 단어 수가 감소된다. 이 중에서 ㅏ는 압도적으로 많다. 이때 다섯 개의 어두 평음 모두 'ㅏ'와 가장 많이 결합한다. 그리고 'ㄱ, ㄷ, ㅂ, ㅅ'은 비슷하게 'ㅏ, ㅗ, ㅜ'와 많이 결합하고 'ㅈ'은 'ㅏ, ㅣ, ㅓ'와 많이 결합한다. 이들 모두 'ㅐ, ㅔ'와는 많이 결합하지 않는다. 또 'ㅂ, ㅅ, ㅈ'은 'ㅡ'와 가장 적게 결합한다, 'ㄷ'은 'ㅣ'와 가장 적게 결합한다. 종합적으로는 어두 평음은 공통적으로 후설모음과 더 많이 결합하고, 전설모음과 덜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두 경음화 단어의 방언형 후행모음 실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두 경음화 단어의 후행모음은 어떤 방언이냐에 따라 크게 변동이 있다. 따라서 전국

34) 본고에서 살펴본 후행모음은 각 지역의 방언형을 기반으로 한다. 각 지역의 방언형에서 후행모음이 이중모음 ㅐ, ㅑ, ㅔ, ㅛ, ㅘ, ㅙ, ㅝ, ㅞ 그리고 단모음 ㅚ, ㅟ로 나타나는 단어는 평균적으로 9개에 불과하다. 이에 수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단위 통계는 산출하기 어려우며 지역별 단위 통계만 가능하다. 또 지역별·자음별·후행 모음별 실현 양상을 모두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자음별·후행 모음별 실현 개수를 통계하여 평균치[35]를 계산하여 아래 [표 14]와 같이 제시한다.

	ㅏ	ㅐ	ㅓ	ㅔ	ㅗ	ㅜ	ㅡ	ㅣ
ㄲ	20.37	5.78	7.33	1.52	22.21	8.82	4.92	1.9
ㄸ	6.78	1.95	1.51	0.29	3.43	7.23	1.15	0.71
ㅃ	4.86	0.84	3.68	1.12	3.65	4.74	0	3.87
ㅆ	10.02	3.56	4.21	2.81	9.09	4.29	1.2	7.38
ㅉ	6.89	0.7	2	0.17	6.86	2.06	0	5.83
계	48.92	12.83	18.73	5.9	45.24	27.13	7.27	19.7

[표 14] 어두 경음화 단어 방언형의 자음별·후행 모음별 실현 개수 평균치(도별) (단위: 개)

[표 14]를 살펴보면 어두 경음화 단어의 어두 후행 모음은 앞에 제시한 [표 15]와 똑같이 'ㅏ, ㅗ, ㅜ, ㅣ, ㅓ, ㅐ, ㅡ, ㅔ'의 체감 순서로 어두 자음과 결합한다. 자음별로 살펴봐도 어두 후행 모음은 [표 15]와 거의 똑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두 후행 모음별 어두 경음화 실현 경향을 분석할 때 단어 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즉, 단어 수를 통하여 어두 경음화 실현 경향을 판단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 13]과 [표 14]를 통하여 어두 후행 모음에 따른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해서 아래 [표 15]과 같이 제시한다.[36]

35) '박쥐'의 어두 경음화 방언형은 '빨쥐, 뿔쥐, 빡쥐, 빨주, 뿔쮜이'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 방언형이 있는 경우에, 출현한 모음 ㅏ와 ㅗ에 각 0.5 가중치를 매겨준다. 만약 방언형에 출현 모음이 3개가 있으면 각 모음에 1/3의 가중치를 매겨준다.

36) 앞에 제시하듯이 어두 후행 모음은 방언형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전국 통계는 힘들며 지역별 평균치로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 15]에 제시된 실현율은 지역 평균 실현율이다.

	ㅏ	ㅐ	ㅓ	ㅔ	ㅗ	ㅜ	ㅡ	ㅣ
ㄱ	11.38%	26.27%	11.11%	30.40%	17.77%	13.36%	8.07%	2.92%
ㄷ	6.85%	7.50%	5.39%	9.67%	4.76%	19.54%	3.19%	23.67%
ㅂ	3.83%	3.00%	9.68%	12.44%	6.76%	4.99%	0.00%	8.06%
ㅅ	8.49%	9.37%	5.85%	12.77%	10.57%	5.96%	13.33%	8.79%
ㅈ	5.79%	3.50%	3.08%	1.42%	11.83%	4.20%	0.00%	7.38%
계	7.62%	9.57%	6.96%	11.57%	11.45%	8.50%	6.49%	7.06%

[표 15] 후행 모음별 평균 어두 경음화 실현율

[표 15]에 따르면 후행 모음별 평균 어두 경음화 실현율은 ‘ㅔ, ㅗ, ㅐ, ㅜ, ㅏ, ㅣ, ㅓ, ㅡ’의 순서로 낮아진다. 자음별로 살펴보면 어두 ‘ㄱ’는 ‘ㅔ, ㅐ’, 어두 ‘ㄷ’는 ‘ㅣ, ㅜ’, 어두 ‘ㅂ’는 ‘ㅔ, ㅓ’, 어두 ‘ㅅ’는 ‘ㅡ, ㅔ’, 어두 ‘ㅈ’는 ‘ㅗ, ㅣ’와 결합할 때 어두 경음화가 잘 일어난다. 이 중에서 ‘ㄱ’과 ‘ㅔ’의 조합(‘게’)이 어두 경음화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난다. 반면에 어두 ‘ㄱ’는 ‘ㅣ’, 어두 ‘ㄷ’는 ‘ㅡ’, 어두 ‘ㅂ’는 'ㅡ, 어두 ‘ㅅ’는 'ㅜ,ㅓ', 어두 ‘ㅈ’는 ‘ㅡ’와 결합할 때 어두 경음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각 지역에서의 후행 모음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ㅏ	ㅐ	ㅓ	ㅔ	ㅗ	ㅜ	ㅡ	ㅣ
경기	2.45%	3.50%	1.13%	0.00%	3.08%	3.57%	2.11%	1.24%
강원	6.44%	11.07%	5.80%	7.00%	10.07%	9.72%	2.41%	4.03%
충북	5.80%	8.45%	5.24%	4.41%	9.01%	10.80%	5.96%	9.74%
충남	4.76%	6.12%	6.00%	9.68%	6.43%	7.81%	4.64%	9.82%
전라	7.49%	9.60%	5.98%	11.76%	7.88%	7.22%	12.36%	4.13%
전남	9.41%	12.20%	7.78%	21.53%	13.00%	13.32%	4.67%	16.02%
경북	12.47%	13.48%	15.21%	20.23%	19.82%	15.37%	5.53%	19.58%
경남	14.85%	24.03%	14.44%	38.45%	21.31%	15.91%	5.57%	24.55%
제주	1.72%	0.91%	1.58%	6.67%	2.44%	4.18%	1.06%	2.50%
평균	7.27%	9.93%	7.02%	13.30%	10.34%	9.77%	4.92%	10.18%

[표 16] 지역별 후행모음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표 16]에 따라 경기, 강원, 충북 제외해 모든 지역에서 'ㅔ'가 다른 후행 모음보다

절대 우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경남에서 후행 모음 'ㅔ'일 때 어두 경음화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난다. [표 16]의 결과를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후행모음별 실현율을 체감(遞減) 순서로 다음 [표 17]과 같이 정리한다.

경기	ㅜ	ㅐ	ㅗ	ㅏ	ㅡ	ㅣ	ㅓ	ㅔ
강원	ㅐ	ㅜ	ㅗ	ㅔ	ㅏ	ㅓ	ㅣ	ㅡ
충북	ㅜ	ㅣ	ㅗ	ㅐ	ㅡ	ㅏ	ㅓ	ㅔ
충남	ㅣ	ㅔ	ㅜ	ㅗ	ㅐ	ㅓ	ㅏ	ㅡ
전북	ㅡ	ㅔ	ㅐ	ㅗ	ㅜ	ㅏ	ㅓ	ㅣ
전남	ㅔ	ㅣ	ㅜ	ㅗ	ㅐ	ㅏ	ㅓ	ㅡ
경북	ㅔ	ㅗ	ㅣ	ㅜ	ㅓ	ㅐ	ㅏ	ㅡ
경남	ㅔ	ㅣ	ㅗ	ㅐ	ㅜ	ㅏ	ㅓ	ㅡ
제주	ㅔ	ㅜ	ㅣ	ㅗ	ㅏ	ㅓ	ㅡ	ㅐ

[표 17] 도별 단모음 실현율 순서

[표 17]를 살펴보면 눈에 바로 띄는 것은 앞에 개수 통계와 달리 'ㅏ'는 가장 많은 단어 개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실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전라북도에서 'ㅡ'와 'ㅣ'의 실현율이 다른 지역과 반대로 나타난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ㅔ'의 실현율이 다른 남부 지역과 완전 달리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남부 대부분 지역(전남, 전북, 충남, 경남)에서 'ㅔ'와 'ㅐ'는 비변별적인 음소로 변별하는 경기와 충북 지역과 다르게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남과 경북에서 'ㅡ'가 가장 낮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남과 경북 일부지역에서 'ㅡ'와 'ㅓ'가 비변별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어두 경음화 현상은 후행 모음이 저모음인 경우보다 고모음인 경우 잘 일어나고, 중설모음보다 전설, 후설모음인 경우 더 잘 일어난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접근 지역은 비슷한 실현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경기도와 충청북도, 전라남도와 경상도의 실현 경향이 아주 유사하다.

3.3. 음절수별 어두 경음화 양상

이 절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음절수에 따라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어두 평음 단어와 어두 경음 단어를 음절수별로 통계하여 아래 [표 18]과 같이 제시한다.[37]

	단음절			다음절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	방언 어두 경음화 단어	실현율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	방언 어두 경음화 단어	실현율
ㄱ	65	23	35.38%	576	155	26.91%
ㄷ	30	7.5	25.00%	269	41.5	15.43%
ㅂ	47	8.5	18.09%	368	57.5	15.63%
ㅅ	47	34.5	73.40%	445	122.5	27.53%
ㅈ	48	12	25.00%	340	61	17.94%
합	237	85.5	36.08%	1998	437.5	21.90%

[표 18] 자음별 음절수별 단어 수 통계

[표 18]에 따르면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 중에 단음절은 233개, 다음절은 2002개가 있다. 어두 경음화 단어 중에 단음절 85.5개, 다음절 단어가 437.5개가 있다. 단순히 숫자로 볼 때 어두 경음화 현상이 단음절 단어보다 다음절 단어에서 훨씬 많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다음절 단어가 원래 많기 때문에 개수를 통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음절수 역시 어두 경음화 현상 실현율을 계산하여 제시할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다음절보다 단음절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더 높다. 즉 단음절 단어에 어두 경음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두 'ㅅ'으로 시작된 단음절 단어는 압도적으로 높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어두 'ㅅ'이 이렇게 높은 실현율을 가지는 것은 경남에서의 어두 경음화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별 관찰이 더 필요하다.

음절수에 따른 어두 경음화 현상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37) 통계는 방언형을 기반으로 실행한다. 예컨대 '고누'는 여러 방언에서 '꼰, 꼬누'로 실행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방언형 '꼰'과 '꼬누'에 각각 0.5의 가중치를 주어 통계를 한다. 방언형이 세 개가 있는 경우에 각자 1/3의 가중치로 통계한다.

보고자 한다.

	단음절	다음절
경기	3.86%	2.60%
강원	11.16%	7.44%
충북	8.37%	7.37%
충남	8.80%	6.17%
전북	8.37%	8.37%
전남	13.52%	10.76%
경북	25.97%	14.11%
경남	27.25%	15.96%
제주도	6.22%	2.07%

[표 19] 어두 경음화 지역별 음절수별 실현율

[표 19]에 따르면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단음절에서 더 높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단음절과 다음절이 같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외이다. 이 밖에 경남과 경북에서 단음절이 다음절보다 어두 경음화에서 절대 우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

다음으로는 앞의 [표 19]을 자음별로 나눠 어두 경음화 지역별 음절수별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ㄱ		ㄷ		ㅂ		ㅅ		ㅈ	
	단	다	단	다	단	다	단	다	단	다
경기	1.54%	4.17%	10.00%	3.35%	2.13%	1.36%	8.51%	1.80%	0.00%	1.74%
강원	10.77%	10.42%	13.33%	8.18%	6.38%	4.89%	23.40%	5.39%	2.27%	7.27%
충북	10.00%	11.37%	10.00%	8.55%	2.13%	4.62%	12.77%	4.27%	6.82%	6.69%
충남	6.92%	10.33%	13.33%	5.58%	2.13%	5.43%	17.02%	2.47%	6.82%	5.23%
전북	8.46%	13.98%	10.00%	7.06%	4.26%	5.71%	14.89%	4.49%	4.55%	7.85%
전남	14.62%	16.23%	15.00%	10.59%	10.64%	7.34%	15.96%	7.30%	11.36%	9.88%
경북	20.77%	19.01%	18.33%	11.34%	17.02%	9.24%	58.51%	16.07%	13.64%	10.76%
경남	21.54%	20.14%	15.00%	11.34%	18.09%	9.92%	67.02%	22.13%	11.36%	11.05%
제주	6.92%	2.17%	3.33%	2.97%	2.13%	1.63%	14.89%	2.25%	2.27%	1.45%

[표 20] 어두 경음화 지역별 자음별 음절수별 실현율

[표 20]을 살펴보면 어두 경음화 현상은 모든 상황에서 다음절보다 단음절로 더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 경북, 경남, 제주도에서 예외 없이 단음절이 다음절보다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높다. 나머지 지역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은 어두 자음에 따라 단음절과 다음절의 실현율 순위가 변동이 있다. 자음별로 볼 때 어두가 'ㄷ'과 'ㅅ'으로 된 단어는 예외 없이 다음절보다 단음절이 어두 경음화가 더 잘 일어난다. 특히 어두 'ㅅ'은 모든 지역에서 단음절이 절대적 우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어두가 'ㅂ', 'ㅈ'으로 된 단어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절보다 단음절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높다. 어두가 'ㄱ'으로 된 단어는 더 많은 지역에서 단음절보다 다음절이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더 높다.

3.4. 음절구조별 어두 경음화 양상

이절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음절구조에 따를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음절구조는 제1음절 또한 제2음절 초성까지 고려하여 이에 따른 실현 경향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어두 경음화 현상이 바로 일어나는 자리인 제1음절부터 보고자 한다. 제1음절의 음절구조에 따라 개음절과 폐음절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 계산하여 아래 [표 21]과 같이 제시한다.[38]

제1음절	개음절 CV			폐음절 CVC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	방언 어두 경음화 단어	실현율	표준어 어두 평음 단어	방언 어두 경음화 단어	실현율
ㄱ	402	117	29.10%	239	60	25.10%
ㄷ	160	32	20.00%	139	17	12.23%
ㅂ	214	27	12.62%	201	39	19.40%
ㅅ	253	93	36.76%	239	62	25.94%
ㅈ	187	36	19.25%	201	37	18.41%
계	1216	305	25.08%	1019	215	21.10%

[표 21] 제1음절 음절구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38) 앞과 같이 이 통계는 각 지역의 방언형을 기반으로 실행한다. 예컨대 '반드럽다'는 전남 지역에서 '빠드럽다'과 '빤드랍다'의 방언형이 있는 경우에 제1음절은 개음절인 '빠드럽다'에 0.5, 제1음절은 폐음절인 '빠드랍다'에 0.5의 가중치를 주어 통계를 한다.

[표 21]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어두 경음화는 제1음절이 폐음절보다 개음절일 경우에 실현율이 더 높다. 자음별로 살펴보면 어두 자음이 'ㄱ, ㄷ, ㅅ, ㅈ'일 경우 개음절이 폐음절보다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더 높다. 여기서 어두 'ㅈ'에서 개음절과 폐음절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어두가 'ㅂ'일 경우 개음절보다 폐음절이 더 높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그림 3.3에서 이미 본 음절수와 같이 고려하면 음절구조에 따른 실현 경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아래 [표 23]과 같이 다시 실현율을 계산하고자 한다.

	단음절		다음절	
제1음절	개음절 CV	폐음절 CVC	개음절 CV	폐음절 CVC
ㄱ	53.85%	25.00%	28.53%	23.53%
ㄷ	50.00%	12.50%	18.06%	11.84%
ㅂ	0.00%	23.68%	14.32%	17.28%
ㅅ	100.00%[39]	62.16%	33.54%	20.30%
ㅈ	10.00%	21.05%	18.39%	17.47%
계	43.75%	29.63%	24.16%	18.71%

[표 22] 제1음절 음절수별 음절구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표 22]에 따르면 음절수를 같이 고려하더라도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제1음절이 폐음절보다 개음절일 경우에 실현율이 높다. 특히 단음절일 경우에 개음절의 우세가 훨씬 더 뚜렷하며 단음절 개음절인 어두 'ㅅ' 단어는 심지어 100%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표 21]와 같이 어두 'ㅂ'은 다른 어두 자음과 달리 음절수와 상관없이 모두 제1음절이 폐음절일 경우에 실현율이 더 높다. [표 21]와 다른 점은 단음절 개음절인 어두 'ㅈ' 단어는 폐음절로 더 높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제2음절 초성이 어두 경음화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절인 어두 경음화 단어의 제2음절 초성의 유무 양상을 다음 [표 23]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39) 'ㅅ'로 시작된 어두 경음화 단어 중에 단음절 개음절 단어인 '사다, 새다, 세다(强), 세다(算), 소, 쇠, 쇠다, 쉬, 쉬다, 시다'는 모두 어두 경음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개음절		폐음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ㄱ	100	11	45	1
ㄷ	28	1	13	1
ㅂ	27	1	27	4
ㅅ	72	9	40	1
ㅈ	36	0	29	0
계	263	22	154	7

[표 23] 어두 경음화 단어 제2음절 초성의 유무 통계

[표 23]에 따르면 어두 경음화 단어의 제2음절이 초성이 없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렇게 극소수의 데이터를 통해서는 정확한 통계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2음절에 초성이 있는 단어만 선정하여 살펴보자 한다. 따라서 제2음절에 초성이 있는 단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하여 아래 [표 24]와 같이 제시한다.

	개음절		폐음절	
	제1음절 CV	제1음절+ 제2음절초성 CV C	제1음절 CVC	제1음절+ 제 2음절초성 CVC C
ㄱ	29.10%	30.12%	25.10%	25.57%
ㄷ	20.00%	18.79%	12.23%	11.93%
ㅂ	12.62%	14.67%	19.40%	18.62%
ㅅ	36.76%	33.33%	25.94%	20.73%
ㅈ	19.25%	22.93%	18.41%	18.35%
계	25.08%	25.34%	21.10%	19.72%

[표 24] 제1음절 + 제2음절 초성 음절구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표 24]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개음절이든 폐음절이든 어두 경음화 단어의 제2음절에 초성이 있는 경우에 어두 경음화 실현율과 [표 21]에 제시된 제1음절 실현율 간에 규칙성을 찾지 못해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제2음절 초성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음절구조별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분석된 대로 제2음절 초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제1음절 초성만 살펴볼 것이다. 지역별 음절구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제시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제1음절	개음절 CV		폐음절 CVC	
	개수	실현율	개수	실현율
경기	35	2.88%	26	2.55%
강원	111.5	9.17%	63.5	6.23%
충북	101.5	8.35%	65.5	6.43%
충남	84	6.91%	60	5.89%
전북	114	9.38%	73	7.16%
전남	146	12.01%	101	9.91%
경북	201.5	16.57%	141.5	13.89%
경남	229	18.83%	154	15.11%
제주	34	2.80%	22	2.16%
평균	117.40	9.65%	78.5	7.70%

[표 25] 지역별 음절구조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표 25]에 따르면 모든 지역에서 개음절이 폐음절보다 높은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개음절과 폐음절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앞에 살펴본 어두 자음, 후행모음, 음절수와 달리 서로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현상이 개음절과 폐음절에 따라 개음절을 선호하는 실현 경향이 있지만 이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고 정리할 수 있다.

3.5. 소절

이 장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을 음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실현 경향을 살펴보았다. 음운론적 요소인 어두 자음, 후행 모음, 음절수, 음절구조에 따라 어두 경음화 현상은 다른 실현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어두 경음화의 자음별 실현율은 단순히 본다면 전국적으로 'ㅅ, ㄱ, ㅈ, ㄷ, ㅂ'의 순서로 실현되지만,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한다면 'ㄱ, ㅅ, ㄷ, ㅈ, ㅂ'의 순서로 실현된다. 이중에서 'ㄱ, ㄷ, ㅈ, ㅂ'의 실현 양상은 어느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순서로 나타나는 반면에 'ㅅ'는 불안정한 실현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돋보인다.

또한 어두 자음에 따른 실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어두 'ㄱ, ㄷ, ㅂ, ㅈ'의 실현 분포가 서로 비슷하여 어두 'ㅅ'과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어두 'ㄱ, ㄷ, ㅂ, ㅈ'의 최고 실현율은 모두 경북 동남 지역 '월성, 영천'에 분포되어 있다. 어두 'ㅅ'의 어두

경음화는 경남 서부와 남부 지역에 활발하게 실현되었다. 어두 자음별 어두 경음화의 개신지와 개신파를 정리하면 아래 [표 26]과 같다.

어두 자음	개신지	개신파
ㄱ	경북과 경남의 동해안 지역	경상도로부터 서남향 경로, 경북으로부터의 서북향 경로, 동해안으로부터의 북향 경로가 보인다.
ㄷ	경북과 경남 서부 지역	경북으로부터 서북과 동해안을 지나는 남북향 경로, 경남으로부터 인접한 지역을 지나 서남향, 서북향 그리고 경남 동부 지역으로 향하는 경로가 보인다.
ㅂ	경상도 동부 지역	경북으로부터 경북과 충북, 강원의 인접한 지역에서 급격히 쇠퇴하여 충남, 경기 그리고 강원 대부분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함. 주로 개신지에서 서남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다.
ㅅ	경남 서부와 남부 지역	경북의 'ㅆ' 음소가 없는 지역을 거치며 어두 'ㅅ'의 어두 경음화 현상의 전파가 저지됨. 개신지에서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방향으로 전파되었다고 추정된다.
ㅈ	경상도 동해안 지역	경북에서 서북 서남향, 경남에서 서남향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보이지만 동해안 경로는 뚜렷하지 않다.

[표 26] 어두 경음화 자음별 개신지 및 개신파

후행모음이 방언에 따라 실현 양상이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통계 처리를 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어두 경음화 현상은 후행 모음에 따라 'ㅔ, ㅗ, ㅣ, ㅐ, ㅜ, ㅏ, ㅓ, ㅡ'의 체감(遞減) 순서로 나타난다.

음절수에 따른 어두 경음화 실현율은 경북, 경남, 제주도에서 예외 없이 단음절이 다음절보다 높다. 나머지 지역에서 어두 자음에 따라 단음절과 다음절의 실현율 순위에 변동이 있었다. 자음별로 볼 때 어두 자음이 'ㄷ'과 'ㅅ'으로 된 단어는 예외 없이 다음절보다 단음절이 어두 경음화가 더 잘 일어났다. 특히 어두 'ㅅ'은 모든 지역

에서 단음절이 절대 우세를 가지고 있다. 어두 자음이 'ㅂ, ㅈ'인 단어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절보다 단음절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높았다. 어두 자음이 'ㄱ'인 단어는 이보다도 더 많은 지역에서 단음절보다 다음절이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더 높았다.

제1음절 음절구조에 따른 어두 경음화 실현율은 모든 지역에서 개음절이 폐음절보다 더 높다. 그리고 제2음절 초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두 경음화 현상이 개음절로 더 잘 나타난다는 경향이 있지만 이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위에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 27]과 같다.

	전국	지역
어두 자음	ㅅ> ㄱ> ㅈ> ㄷ> ㅂ	ㄱ> ㅅ> ㄷ> ㅈ> ㅂ
후행 모음	/[40]	ㅔ> ㅗ> ㅣ> ㅐ> ㅜ> ㅏ> ㅓ> ㅡ
음절수	단음절 > 다음절	단음절 > 다음절
제1음절 음절구조	개음절 > 폐음절	개음절 > 폐음절
제2음절 초성	×	×

[표 27] 어두 경음화 음운론적 실현 경향

40) 어두 후행 모음은 방언형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전국 통계는 실현하지 못함.

4. 어두 경음화 어휘·형태·의미론적 양상

이 장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의 어휘·형태·의미론적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어 사용 빈도수와의 관계, 품사별 실현 양상, 형태구조별 실현 양상, 어두 경음화 동음이의어를 살펴보고 어두 경음화 단어의 의미 분류를 시도할 것이다.

4.1. 빈도수와 어두 경음화 양상

어두 경음화의 실현 양상이 단어의 사용 빈도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어두 경음화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통계는 따로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립국어원(2005)에서 발간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41]를 참고해 작업을 진행한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의 '일반 어휘 통계'에서 단어 빈도수에 따른 순위는 1위에서 1171위까지가 있다. 사용 빈도수가 가장 많은 단어는 1위이고 반대로 사용 빈도수가 1밖에 없는 경우에 순위는 가장 낮은 1171위이다. 보다시피 순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두 경음화 단어의 사용 빈도수 순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1171개 순위를 먼저 크게 5등분으로 나누어 순위 분포가 균일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순위의 분포가 불균일한 경우에 분포가 많은 부분을 다시 세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의 '일반 어휘 통계'에서 520개 어두 경음화 단어 중 총 468개[42]를 찾아내었다. 해당 단어의 사용 빈도수 순위를 정리하여 다음 [표

41)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는 2002년에 발간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보고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990년 이후에 출판된 문헌 자료의 장르 구성과 개별 표본의 양을 통제하였다. 이 조사는 총 300만 어절의 어휘 분석 말뭉치를 분석하여 자모, 음절, 일반 어휘, 조사, 어미, 어절 구성, 구(句), 어휘 범주, 활용형, 규범 오류형 등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목록에서 순위, 빈도, 항목, 풀이, 품사 혹은 범주 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Ⅲ. 3.일반 어휘 통계(31-692)를 참고하였습니다.

42) 나머진 51개(고누, 닦이다, 방구벌레, 새김질하다, 자리개 등) 단어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에서 찾지 못해 통계에 제외한다. 찾지 못한 단어들의 유형 분포는 아래와 같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계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고 본다.

29]과 같이 유형별, 순위별로 단어 개수와 비율[43]을 제시한다.

순위 / 유형	1-235		236-470		471-705		706-940		941-1171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유형 Ⅰ	0	0.00%	0	0.00%	0	0.00%	3	20.00%	12	80.00%	15
유형 Ⅱ	1	1.72%	1	1.72%	2	3.45%	0	0.00%	54	93.10%	58
유형 Ⅲ	1	1.64%	0	0.00%	1	1.64%	1	1.64%	57	95.00%	60
유형 Ⅳ	3	1.40%	3	1.40%	3	1.40%	16	7.44%	190	88.37%	215
유형 Ⅴ	3	2.50%	5	4.17%	3	2.50%	7	5.83%	102	85.00%	120
계	8	1.71%	9	1.92%	9	1.92%	27	5.76%	415	88.68%	468

[표 29] 어두 경음화 단어의 사용 빈도수 순위 유형별 분포

[표 29]에 의하면 468개 어두 경음화 단어 중에 415개는 사용 빈도수가 941위-1171위의 가장 낮은 순위 구간에 속해 있다. 즉 88.68%의 어두 경음화 단어는 낮은 사용 빈도 순위를 가지고 있어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적다. 그렇지만 한국어 대다수 단어가 낮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 경음화 단어의 특징이라고 하기 어렵다[44].

여기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단어의 사용 빈도수 간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어두 경음화가 잘 일어날수록 해당 단어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거나 낮아져야 한다. 즉, 어두 경음화 단어의 유형 순서에 따라 해당 단어들의 사용 빈도수 순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정비례나 반비례 관계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유형에 따라 어두 경음화 단어가 전국에서 일어나는 분포가 줄어든다. 넓은 분포는

유형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유형 Ⅴ
개수	2	6	8	20	16
비율	11.76%	9.52%	11.59%	8.55%	11.68%

43) 실현율과 다른 개념, 해당 유형의 단어 총수에 차지한 비율을 의미한다.

44)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에서 조사된 단어에 대한 순위 분포 통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2235개 어두 평음 단어를 샘플로 단어 사용 빈도수 통계하여 그의 순위 분포를 살펴보니 941-1171 순위 사이에 있는 단어 수는 전체 단어 수의 8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단어들은 대다수는 낮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두 경음화가 잘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표 29]를 살펴보면 유형별 간의 단어 분포 차이가 조금 보이지만 유형 순서에 따라 순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규칙을 보이는 않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현상과 사용 빈도수 순위 간에는 상관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앞에 언급하였듯 단어의 사용 빈도수 순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분포가 많은 부분을 다시 세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두 경음화 단어들은 대다수가 낮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순위가 921위-1171위인 단어를 다시 50의 간격으로 5 등분을 해서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아래 [표 30]과 같이 제시한다.

순위 / 유형	921-970		971-1020		1021-1070		1071-1120		1121-1171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유형 Ⅰ	2	13.33%	1	6.67%	0	0.00%	2	13.33%	9	60.00%	14	93.33%
유형 Ⅱ	0	0.00%	1	1.72%	5	8.62%	5	8.62%	43	74.14%	54	93.10%
유형 Ⅲ	0	0.00%	3	5.00%	5	8.33%	7	11.67%	42	70.00%	57	95.00%
유형 Ⅳ	7	3.26%	5	2.33%	12	5.58%	28	13.02%	138	64.19%	190	88.37%
유형 Ⅴ	2	1.67%	4	3.33%	3	2.50%	12	10.00%	81	67.50%	102	85.00%
계	11	2.35%	14	2.99%	25	5.34%	54	11.54%	313	66.88%	417	89.10%

[표 30] 순위 921-1171인 어두 경음화 단어의 사용 빈도수 순위 유형별 분포

[표 30]에 따르면 사용 빈도수 순위가 921위-1171위 사이에 있는 어두 경음화 단어는 총 417개 있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313개 단어가 1121-1171 순위 구간에 있다. 전체 468개 단어 중 66.88%를 차지고 있다. 즉 어두 경음화 단어는 절반 이상은 아주 낮은 빈도수 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형과 순위 간의 특정한 규칙을 찾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어두 경음화 단어는 한국어 단어 특징에 따라 절반 이상은 아주 낮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지만 빈도수에 따라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다.

4.2. 형태론적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

4.2.1. 품사별 어두 경음화 양상

이 항에서는 형태론적 요소인 품사에 따를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품사별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품사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계산하여 아래 [표 31]과 같이 제시한다.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수사	감탄사	대명사	관형사
어두 평음 단어 수	1557	388	166	107	6	4	6	1
어두 경음화 단어 수	366	92	44	18	2[45]	0	1[46]	0
실현율	23.51%	23.71%	26.51%	16.82%	33.33%	0.00%	16.67%	0.00%

[표 31] 품사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표 31]에 따르면 2235개 어두 평음 단어 중에 절반 이상은 명사이다. 그 다음은 동사, 형용사, 부사이다. 520개 어두 경음화 단어 역시 어두 평음 단어의 품사 분포와 같이 절반 이상은 명사로 나타나며 그 다음은 동사, 형용사, 부사이다. 한명숙(2011: 134)에서 지역별 어두 경음화 단어의 품사별 빈도를 통계하여 방언의 어두 경음화는 명사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어두 평음 단어에서도 명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단어 빈도(개수)로 어두 경음화는 명사로 잘 일어난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품사별 실현율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 대명사, 감탄사, 관형사는 단어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품사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45) 스물: 쑤물(제주), 세넷: 써너(경남)
46) 저기: 쩌기, 쩌그(전남)

위하여 실현율 순서대로 아래 [표 32]와 같이 다시 정리하여 제시한다.

	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
실현율	26.51%	23.71%	23.51%	16.82%

[표 32] 품사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표 32]에 따르면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전체적으로 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의 순서로 갈수록 실현율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현상은 형용사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 동사와 명사는 서로 비슷한 실현율을 가지고 있으며 형용사보다 조금 덜 잘 일어난다. 부사는 가장 낮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품사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은 앞에 음운론적 실현율처럼 서로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이기문(1972)에서는 어두 경음화는 표현 강화의 이유로 일어나기도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김남정(2001:175)에서 형용사는 전반에 걸친 의미 속성으로 들 수 있는 한 가지는 [+정도성]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강화의 이유로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세다(强), 시끄럽다, 시다' 등과 같은 형용사에서 [+정도성]의 의미자질에 따라 활발히 나타난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2장에서 제시한 유형Ⅰ 어두 경음화 단어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가시(刺), 고누, 구기다, 닦다, 당기다, 도랑, 두드리다, 부수다, 붉다, 번데기, 붉어지다, 삯, 삶다, 소나기, 시래기, 자르다, 조끼

유형Ⅰ에서 17개 전국 각 지역에서 모두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중에 동사는 총 '구기다, 닦다, 당기다, 두드리다, 부수다, 붉어지다, 삶다, 자르다' 8개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로 어두 경음화 현상은 동사로 잘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기문(1959)에서는 격렬한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가 심리적으로 강한 발음을 요할 때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것으로 어두 경음화가 동사로 잘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에 따라 어두 경음화 품사별 실현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개수	실현율	개수	실현율	개수	실현율	개수	실현율
경기	39	2.50%	16	4.12%	2	1.20%	4	3.74%
강원	107	6.87%	48	12.37%	17	10.24%	3	2.80%
충북	102	6.55%	46	11.86%	14	8.43%	5	4.67%
충남	92	5.91%	30	7.73%	16	9.64%	6	5.61%
전북	132	8.48%	32	8.25%	18	10.84%	5	4.67%
전남	165	10.60%	48	12.37%	24	14.46%	9	8.41%
경북	235	15.09%	72	18.56%	29	17.47%	7	6.54%
경남	275	17.66%	68	17.53%	30	18.07%	9	8.41%
제주	29	1.86%	17	4.38%	8	4.82%	1	0.93%

[표 34] 지역별 품사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표 34]의 품사별 실현율 순서를 정리하여 [표 35]과 같이 다시 제시한다.

경기	동사	4.12%	부사	3.74%	명사	2.50%	형용사	1.20%
강원	동사	12.37%	형용사	10.24%	명사	6.87%	부사	2.80%
충북	동사	11.86%	형용사	8.43%	명사	6.55%	부사	4.67%
충남	형용사	9.64%	동사	7.73%	명사	6.55%	부사	5.61%
전북	형용사	10.84%	명사	8.48%	동사	8.25%	부사	4.67%
전남	형용사	14.46%	동사	12.37%	명사	10.60%	부사	8.41%
경북	동사	18.56%	형용사	17.47%	명사	15.09%	부사	6.54%
경남	형용사	18.07%	명사	17.66%	동사	17.53%	부사	8.41%
제주	형용사	4.82%	동사	4.38%	명사	1.86%	부사	0.93%
평균	동사	10.80%	형용사	10.58%	명사	8.39%	부사	5.09%

[표 35] 지역별 품사별 어두 경음화 실현율 순서

[표 35]을 살펴보면 각 지역에서 형용사, 동사 그리고 명사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부사는 다른 품사보다 명확한 낮은 실현율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에서 경북, 강원, 충북 동부 지역에서는 동사가 가장 높은 실현율을 보인다. 충남, 전북과 전남과 같은 서부 지역에서는 형용사가 높은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경기에서는 특이하게도 형용사의 실현율이 가장 낮다.[47] 경남에서 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명사, 동사, 형용사)는 모두 비슷한 실현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서 형용사, 동사, 명사는 부사보

다 높은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경남 지역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은 형용사, 동사, 명사로 실현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나머지 지역에서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이 어두 경음화가 보다 잘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전체적으로 음운론적인 실현 경향에 비하여 많이 약한 듯하다다.

4.2.2. 형태 구조별 어두 경음화 양상

어두 경음화 단어 목록[48]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감다, 감기다', '골목, 골목길'과 같이 같은 어기를 공유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실현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렇게 형태론적으로 같은 어기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논의는 크게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눠서 진행할 것이다.

4.2.2.1. 파생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

먼저 본동사(어기)와 피·사동사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를 통하여 어두 경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20개 어두 경음화 단어 중에 본동사와 피·사동사가 총 8쌍이 있다. 지역 실현 분포는 아래 [표 36]과 같다.

---

47) 경기도에서 어두 경음화 형용사는 단지 '붉다 → 뿔따, 시다 → 씨다' 두 개만 찾았다. 다른 8개 지역에 비하여 몹시 적다.
48) 부록 참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감다	동사		○	○	○	○	○	○	○	○
감기다(사동)	동사		○	○	x	○	○	○	○	/[49]
감기다(피동)	동사		○	○	x	○	○	○	○	/
닦다	동사	○	○	○	○	○	○	○	○	○
닦이다(사동)	동사	○	○	○	○	○	○	○	○	/
닦이다(피동) (닦아지다)[50]	동사	○	○	○	○	○	○	○	○	/
삶다	동사	○	○	○	○	○	○	○	○	○
삶기다	동사	○	○	○	○	○	○	○	○	/
볶다	동사		○			○	○	○	○	
볶이다	동사		x[51]			○	x	○	○	
긁다	동사		○	○				○	○	
긁히다	동사		○	○				○	○	
속다	동사	○	○	○	○			○	○	x
속이다	동사	x	○	○	x			○	○	○
굶다	동사							○	x	○
굶기다	동사							x	○	/
벗다	동사			○	x	x			○	○
벗기다	동사			○	○	○			○	○

[표 36] 피·사동사에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

[표 36]에 따르면 8개 단어쌍 중에서 어기인 '닦다', '삶다', '긁다'는 제주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면, 각각 그 피·사동사와 같은 실현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감다', '볶다', '속다'는 파생어들보다 조금 더 넓은 실현분포를 가지고 있다. '벗다'는 그의 피동이나 사동파생어보다 약간 더 좁은 실현 분포를 가지고 있다. '굶다'는 그의 피동이나 사동파생어와 전혀 다른 실현 분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기가 피·사동사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실현 분포를 가지고 있다. 어기가 피·사동사

49) '/'는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다. 《한국방언자료집》 Ⅸ 제주도 편에서 '감다, 닦다, 삶다, 굶다'의 피·사동 항목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단어들의 피·사동은 어두 경음화 현상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50) 《한국방언자료집》에서 '닦다'의 피동 파생어 방언형에 '닦이다'와 '닦아지다'가 같이 반영되어 있다.

51) 'x'는 파생어와 어기 사이에 한 쪽만 해당 지역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실현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보다 실현분포가 같거나 조금 더 넓은 것은 일반적이고 ‘굶다’, ‘벗다’와 같이 더 좁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실현 경향은 언어 사용에서 아주 수의적이어서 규칙성을 찾기 힘들다.

다음으로 어기와 파생명사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를 아래 [표 37]과 같이 제시한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두껍다	형용사		○	○	○	○	○	○	○	
두께	명사		○	○	x	x	○	○	○	
다듬다	동사		○	○		○	○	○	○	
다듬이질	명사		○	○		○	○	○	○	
다듬잇돌	명사		○	○		○	○	○	○	
그을다	동사	○	○	○	○	○	○	○	○	
그을음	명사	○	○	○	○	○	○	○	○	
지지다	동사			○	○			○	○	
지짐이	명사			x	x			○	○	
가시	명사	○	○	○	○	○	○	○	○	○
가시랭이	명사		○			○	○	○	○	
담	명사							○		
담쟁이	명사							○		
게으르다	형용사					x	○	○	○	
게으름장이	명사					○	○	○	○	
집다	동사	x	x	x	x	x	○	○	x	
집게	명사	○	○	○	○	○	○	○	○	

[표 37] 어기와 파생명사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

어두 경음화 단어 중에서 어기와 파생명사는 [표 37]과 같이 7쌍이 있다. 이 중에서 동사 ‘다듬다’, ‘그을다’와 명사 ‘담’은 어기와 파생명사가 같은 실현 분포를 가지고 있다. 반면 형용사 ‘두껍다’, ‘지지다’는 어기가 파생명사보다 실현 분포가 더 넓다. 형용사 ‘게으르다’ 와 동사 ‘집다’는 어기가 파생명사 보다 좁은 실현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에 살펴본 피·사동사와 같이 어기가 파생명사보다 실현분포가 같거나 조금 더 넓은 것은 일반적이지만, ‘게으르다’, ‘집다’와 같이 더 좁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접두사를 가지고 있는 어두 경음화 단어의 실현 분포를 살펴보

고자 한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누이	명사					○	○		○	○
시동생	명사					○	○	○	○	
시숙	명사						○		○	
시집	명사								○	
수캐	명사			○			○		○	
수컷	명사			○			○	○	○	
수코양이	명사			○						
수탉	명사								○	

[표 38] 동일 접두사 단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

어두 경음화 단어 중에서 접두사 공유하는 단어들은 위 [표 38]과 같이 '시-' 파생명사, ' 수-' 파생명사의 두 종류만 존재하였다. 이 두 접두 파생명사들의 실현 분포를 살펴보면 서로 공통적인 지역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접두사 '시-'를 가지고 있는 명사 '시누이, 시동생, 시숙, 시집'의 실현 분포를 보면 '시숙, 시집'은 전국에서 한두 지역에서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실현되지만 실현된 지역은 모두 더 넓게 실현된 '시누이, 시동생'의 실현 분포 안에 있다. 단 두 개의 접두사로 접두사의 어두 경음화 경향을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 그러나 미흡하게나마 이 두 접두사의 사례를 통해, 같은 접두사로 생성된 단어는 대개 어두 경음화 실현 경향도 비슷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하듯이 어기와 피·사동사, 파생명사 그리고 동일 접두사를 가지고 있는 파생어를 통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이 파생의 적용에 따라 사라지 않고 적용 전과 비슷한 실현 분포를 가지고 있다. 파생어가 실현 분포가 더 넓다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기에 비해 그 분포가 같거나 조금 줄어든다. 이러한 경향은 어두 경음화 현상은 파생의 적용에 따라 단어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2.2.2. 합성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

이 목에서는 합성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어두 경음화 단어

중에서 어기와 합성어를 정리하여 아래 [표 39]와 같이 제시한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죽	명사					○	○	○	○	/
가죽신	명사					○	○	x	○	/
가죽허리띠	명사					○	○	x	○	x
갖신	명사					○	○	○	○	○
가시	명사	○	○	○	○	○	○	○	○	○
가시덤불	명사	x	○	x	x	○	○	○	○	/
골목	명사		○				○	○	○	
골목길	명사		x				○	x	x	
고추	명사		○	○	○	○	○	○	○	
고추장	명사		x	x	x	x	x	○	○	
구리다	형용사		○	○	○	○	○	○	○	
구린내	명사		x	○	x	○	○	○	○	
고리다	형용사			○	x	○	○	○	○	/
고린내	명사			○	○	○	○	○	○	○
도깨비	명사		○				○	○	○	
도깨비바늘	명사		x				○	○	○	
들깨	명사	○		○				○		
들기름	명사	x		○				○		
살	명사							○	○	
살가죽	명사							x	○	
상추	명사								○	
상추쌈	명사								○	
새끼	명사		○	x				○	○	
새끼손가락	명사		x	○				x	○	
손	명사							x	○	
손가락	명사							○	○	
손금	명사							○	○	
손등	명사							x	○	
손목	명사							x	○	
손바닥	명사							x	○	
손수건	명사							○	○	
손톱	명사							○	○	
수수	명사	○		○	○	○	○	○	○	
수숫잎	명사	○		○	○	○	○	x	○	
솥	명사							○	○	
솥뚜껑	명사							○	x	
시루	명사						x	○	○	

시루떡	명사						○	x	x	
실	명사							○	○	x
실꾸리	명사							x	x	○
잔디	명사							x	○	
잔디밭	명사							○	○	
지리다	형용사	x	x	○	x	x	x	○	○	
지린내	명사	○	○	○	○	○	○	○	○	
짚	명사			x						○
짚신	명사			○						○

[표 39] 합성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

어두 경음화 단어 중에서 합성어와 합성어의 어기 중 선행하는 요소는 위 [표 39]와 같이 총 19쌍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실'과 '시루'는 그들의 합성어와 다른 실현 분포를 가지고 외에는 어기와 합성어의 분포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상추'는 그의 합성어와 같은 실현 분포를 가지고 있고 '가죽', '가시', '골목', '고추', '구리다', '도깨비', '들깨', '살', '새끼', '수수', '솥'은 그들의 합성어보다 더 넓은 실현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고리다', '잔디', '손', '짚'의 실현 분포 지역은 한두 곳으로 그들의 합성어보다 좁다. '지리다'는 특히 그 합성어 실현 분포보다 훨씬 줄어든다.

합성어 역시 파생어와 비슷한 실현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어기와 합성어는 비슷한 실현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어기가 합성어보다 실현분포가 조금 더 넓은 것은 일반적이며 '고리다', '지리다', '짚'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어기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합성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성나다	동사			○	○	x	○	○	○	
성내다	동사			○	○	○	○	○	○	
본뜨다	동사		x	○	○	○	○	○	○	x
본받다	동사		○	○	○	○	○	○	○	○
손자	명사							○	○	
손녀	명사							○	○	

[표 40] 어기가 같은 합성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

어두 경음화 단어 중에서 어기가 같은 합성어는 위 [표 40]과 같이 3쌍이 있다. 어기인 '성', '본', '손'은 합성의 적용으로 '성나다, 성내다', '본받다, 본뜨다', '손자, 손녀'로 합성어를 생성하는데 같은 어기로 생성된 합성어는 서로 비슷한 실현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어기로 생성된 단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는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은 파생·합성의 적용으로의 실현 경향을 '가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래 [표 41]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시	명사	○	○	○	○	○	○	○	○	○
가시덤불	명사	x	○	x	x	○	○	○	○	x
가시랭이	명사	x	○	x	x	○	○	○	○	x

[표 41] 어기와 합성어, 파생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분포

어기인 '가시'가 파생과 합성의 적용에 따라 합성어 '가시덤불', 파생어 '가시랭이'를 생성하는데 생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는 서로 비슷 실현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어기보다는 실현 분포가 약간 줄어든다. 이와 같이 어두 경음화 현상은 형태론적 과정인 파생과 합성의 적용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실현 분포가 줄어들거나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적으로 실현 분포가 넓어진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같은 접두사나 어기에 파생과 합성의 적용으로 생성된 단어들 간은 거의 유사한 실현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반적인 경우에 형태론적 과정인 파생과 합성의 적용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지만 이런 실현 경향은 규칙적이지 않으며 실제 언어 사용에는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4.3. 의미론적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

주지하다시피 의미는 그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이로 인해 품사 분류의 기준인 형태, 기능, 의미 중에 의미는 가장 나중에 고려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의미 역시 어두 경음화의 실현 양상에 형태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 마지막으로 어두 경음화 단어의 의미론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4.3.1에서는 어두 경음화 단어를 의미론적으로 분류할 것이다. 4.2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어두 경음화는 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의 차감 순으로 실현된다. 이중에서 형용사와 명사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52] 4.3.2에서는 박동근(2000)에서 제시한 '동음이의성 회피 원리'와 관련하여 동음이의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4.3.1. 어두 경음화 단어의 의미론적 분류

4.3.1.1. 어두 경음화 형용사의 의미론적 분류

먼저 품사별 중에 어두 경음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품사인 형용사를 의미론적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분류에 앞서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론적 분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론적인 분류는 이른 시기(20세기 초반)부터 많이 연구되었는데, 이 중에서 최현배(1937:482-490)의 분류는 오늘날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현배(1937)의 형용사 분류는 다음 같다.

(1) 속겉 그림씨(性狀形容詞)
- 감각적(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평형 감각, 유기 감각, 시간 공간 감각),정의적(심리적, 평가적, 이지적, 행동적, 물리생리적)

있음 그림씨(存在形容詞)
견줌 그림씨(比較形容詞)
셈숱 그림씨(數量形容詞)
가리킴 그림씨(指示形容詞)

남기심·고영근(1993:117-120)에서는 최현배(1937)의 분류 방법의 기초에 형용

52) 동사 의미 분류와 관련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참고할 만한 분류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또한 동사는 통사적 결합이나 화용에 따라 의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부사는 전체적으로 낮은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에서 제외한다.

사를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로 나누고 성상 형용사를 '감각적 의미, 평가, 비교, 존재, 심리 상태' 등으로 다시 나누고 있다.

김정남(1998)에서는 형용사를 크게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로 나누었다. 비상관적 형용사는 다시 '정서, 감각, 성질, 형상, 수량, 빈도, 기타 상태'라는 하위 의미 부류로 나뉘며 상관적 형용사는 다시 '평가, 태도, 소재, 소유, 분포, 비교, 지정'으로 나뉘고 평가 형용사는 다시 정서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 그리고 이지적 평가로 나뉘게 된다.

나아가 김정남(2001)에서 한국어 형용사의 공통 의미 특질을 '[+상태성], [+지속성], [-순간성], [-변화성], [+완료성], [-과정성], [+정도성]'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형용사를 주 의미에 따라 '감각, 정서, 성질, 태도, 형상, 평가, 빈도, 분포, 존재,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형용사 분류 논의를 종합하여 방언에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형용사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이때 주로 김정남(2001)의 분류 방법을 바탕으로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최현배(1937)와 남기심·고영근(1993)의 논의를 참고할 것이다. 다만 본고의 연구 대상인 어두 경음화 단어들은 이미 조사가 된 것에 한하기 때문에 수량적으로도 많지 않고 의미 영역 역시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위에 제시된 기존 분류기준과 같이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고는 방언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44개 형용사를 '감각, 정서, 평가, 성질, 형상, 관계' 6가지의 하위 분류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때 감각 형용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 있다. 정서 형용사는 말 그대로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이른다. 평가 형용사는 화자가 대상의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용사를 이른다. 성질 형용사는 어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나 특성, 혹은 자질, 재질 등에 관한 기술을 담당하는 형용사이다. 형상 형용사는 모양, 자태, 도량, 색채 등 것을 나타나는 형용사를 이른다. 관계 형용사는 두 대상의 관계를 표현하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이다.

또한 형용사의 어두 경음화가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의미 자질에 영향을 받는 듯하여, 위 분류와는 별도로 다시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4가지로 나눌 것이다. [+긍정적]에 해당 단어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긍정적]에 해당 단어는 용법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경우도 있으며

중립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에 해당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부정적]에 해당 단어는 용법에 따라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할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 [표 42]와 같다.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감 각 (16)	개운하다, 고소하다, 구수하다, 시원하다,		서늘하다, 시다,	가렵다, 간지럽다, 거칠다1, 고리다, 곯다, 구리다, 시끄럽다, 저리다, 지리다
정 서 (2)			부끄럽다	시시하다
평 가 (2)	가지런하다		별나게	
성 질 (9)	싱싱하다	가볍다, 반드럽다, 반듯하다, 굳다, 세다1(力)	세다(力)2	거칠다2, 게으르다, 사납다
형 상 (14)		둥글다, 붉다, 새롭다, 새빨갛다, 가득하다,	자그마하다, 작다, 조그마하다, 두껍다, 굵다, 질다, 검다, 좁다, 적다	
관 계 (2)		가깝다, 다르다		

[표 42] 어두경음화 형용사 의미론적 분류

[표 42]와 같이 45개의 어두 경음화 형용사를 각자의 주 의미에 따라 '감각, 정서, 평가, 성질, 형상, 관계' 6가지,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4가지, 총 24가지로 분류한다.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형용사는 감각형용사로 가장 많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 감정을 나타나는 감각, 정서 형용사가 절반 이상은 [+부정적]나 [±부정적]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평가, 성질, 형상, 관계 형용사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자질의 분포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다.

앞에 언급했듯이 어두 경음화 단어는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가지는 한계가 있어 분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

면 ‘가볍다’는 어떤 실체의 무게 성질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촉감으로 감각하는 느낌일 수도 있다. 용법을 고려할 때 실체의 무게를 나타나는 ‘가볍다(e.g. 가방이 가볍다)’가 사람의 촉감을 나타내는 ‘가볍다(e.g. 어깨를 가볍게 치다)’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가볍다’를 성질 형용사로 분류하였다. 또 ‘세다(强)’같은 경우는 문맥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힘이 세서 무거운 것도 잘 든다.’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이고 ‘그 친구 성격은 너무 세다.’ 이럴 때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러한 단어는 어떤 것으로 더 많이 쓰이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양쪽에 다 넣는 것으로 한다.

4.3.1.2. 어두 경음화 명사의 의미론적 분류

이 절에서 방언에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명사를 의미론적으로 분류를 해보고자 한다. 앞 절과 같이 본격적으로 분류하기 전에 한국어 명사 분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자 한다.

한국어 명사에 대한 분류 작업은 최경봉(1996), 이병모(2001), 김인균(2002), 이운영(2004)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 이운영(2004)에서 최경봉(1996), 이병모(2001), 김인균(2002) 등 논의를 [그림 12]와 같이 도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12] 이운영(2004)의 한국어 명사의 분류

이 밖에 최학근(1978)의 《한국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의 《한국방언조사질문지》, 그리고 국립국어원(2006)의 《지역어 조사 질문지》 등 다양한 방언 어휘집에서도 방언 어휘의 분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먼저 1978년에 최학근이 지은 《한국방언사전》에 나온 명사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괄호에 있는 숫자는 해당 분류의 단어 개수이다.[53]

天文(37) 地理(67) 時候(48) 方位(36) 親族(36) 人事(98) 人體(136) 家屋(36) 飮食(45) 食器(23) 疾病(18) 器具(139) 服飾(57) 金石(11) 花果(34) 穀類(31) 草木(84) 飛禽(41) 獸類(46) 漁具類(42) 昆蟲類(63) 度量衡(42)

다음《한국방언조사질문지》는 198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전국의 방언조사 연구를 위하여 만든 질문지 형식의 항목표이다. 어휘 항목표[54]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農事(107): 耕作(29), 打作(21), 搗精(17) 穀物(18) 菜蔬(18)
飮食(87): 副食(19) 主食(11) 別食(17) 그릇(13) 부엌(27)
家屋(63): 家具(16) 房(14 建築(17) 마당(8) 우물(14)
衣服(37): 洗濯(10) 服飾(47)
人體(149): 머리(11) 얼굴(20) 눈(15) 코·귀(17) 세수(16) 上體 (12) 下體(14) 피부병(16) 질병(11) 生理(20)
育兒(67): 발달(18) 재롱(18) 놀이(31)
人倫(52): 가족(18) 결혼(22) 친척(12)
經濟(95): 마을(16) 대장간(7) 單位(23) 數(49)
動物(157): 물고기一(17) 물고기二(10) 벌레(36) 가축(56) 산짐승(15) 날짐승(18)
植物(67): 꽃(15) 나물(10) 열매(8) 과실(17) 野生樹(17)
自然(72): 山(8) 돌(10) 하루(15) 時候(11) 날씨(16) 방향(12)
狀態(67): 길이·두께(11) 넓이·높이(11) 수량·무게(6) 색채·농도·깊이(8) 감각·

53) 임지룡(1989)에 정리된 것을 인용함
54) 임지룡(1989)에 정리된 것을 인용함

정서(9) 맛(3) 성품·인상(19)

動作(175): 요리(19) 受惠(23) 갈무리(32) 사육(10) 놀이(17) 이동(19) 감각(18) 교육(16) 인체(21)

본고는 이운영(2004)에서 정리된 명사 분류 체계와 《한국방언사전》, 한국방언조사질문지》, 《지역어 조사 질문지》에서 제시한 어휘 항목표를 총합해서 366 개 어두 경음화 명사를 다음 [표 43]와 같이 분류해서 제시한다.

실체	구체물	유기물	인간(49)	인체(27)	가르마, 거스러미, 검은자위, 고개, 고수머리, 광대뼈, 구레나룻, 굳은살, 권투, 방귀, 볼, 새끼손가락, 소름, 속눈썹, 손, 손가락, 손금, 손등, 손목, 손바닥, 손톱, 수염, 숫구멍, 신경, 자개미, 주름살, 죽지
				질병(2)	볼거리, 두드러기,
				친족(9)	사돈, 사위, 삼촌, 손녀, 손자, 시누이, 시동생, 시숙, 작은집
				칭호(11)	갈보, 게으름장이, 곰배팔이, 곰보, 곱사등이, 광대, 구두쇠, 새우등, 심부름꾼, 절름발이, 조무래기
			동물(73)	가축(10)	개(犬) , 거위, 검둥개, 고양이, 당나귀, 병아리, 소, 수캐, 수코양이, 수탉
				산짐승(11)	개구리, 고슴도치, 두꺼비, 두더지, 사슴, 사자, 삵괭이, 승냥이, 장끼, 족제비, 쥐
				날짐승(9)	갈매기, 기러기, 독수리, 박쥐, 부엉이, 비둘기, 솔개, 제비, 종달새
				물에 사는 동물(17)	가자미, 가재, 갈치, 게, 고둥, 고등어, 굴, 바구미, 새우, 소라, 송사리, 조가비, 조개, 조기, 지느러미, 가시(刺), 갈기
				벌레(24)	가시(跙), 개똥벌레, 개미, 거머리, 고치, 구더기, 굼벵이, 귀뚜라미, 달팽이, 방개, 방구벌레, 방아깨비, 벼룩, 사마귀, 서캐, 쇠똥구리, 쇠파리, 쉬, 잠자리, 장구벌레, 지렁이, 진드기, 진딧물, 좀
				총칭(2)	새끼, 수컷
			식물(45)		가시나무, 가시덤불, 가시랭이, 가지(茄子) , 가지(枝) , 갈대, 개암, 검불, 겨, 고갱이, 고들빼기, 고리, 고사리, 고욤, 고추, 골파, 그루터기, 담쟁이, 대추, 도깨비바늘, 도꼬마리, 돌배, 밤, 버드나무, 버찌, 벚나무, 복숭아,

				북데기, 삭정이, 살구, 상수리나무, 상추, 석류, 소나무, 솔, 솔방울, 송이, 수수, 수숫잎, 시금치, 시래기, 장다리무우, 줄기, 질경이, 짚
		무기물	인공물(10)	가락지, 가죽, 궤, 금(线), 보자기, 살가죽, 상, 손수건, 시계, 실, 실꾸리
			자연물(15)	가루, 강철, 거품, 골마지, 구리, 그을음, 반딧불, 방울, 살, 석유, 솜, 쇠, 수은, 숯, 자갈
			자연(24)	개골창, 갯물, 고드름, 고랑, 골짜기, 구레, 구멍, 기슭, 도랑, 두둑, 두렁, 둑, 들, 바닥, 볕, 봉우리, 비탈, 산, 샘, 섬, 자락, 잔디, 잔디밭, 진흙
			음식(22)	가지말랭이, 건더기, 고기, 고물, 고추장, 곶감, 과자, 된장, 두부, 들기름, 들깨, 번데기, 비지, 사탕, 상추쌈, 새우젓, 소금, 소주, 송편, 숭늉, 시루떡, 지짐이
			도구(45)	가리, 가위, 갈고리, 갈퀴, 고무풀, 고삐, 곡괭이, 골무, 광주리, 괭이, 그릇, 극젱이, 다듬잇돌, 대야, 두레박, 둥우리, 바가지, 바퀴, 번지, 부뚜막, 사닥다리, 사발, 삽, 성냥, 섶, 송곳, 솥, 솥뚜껑, 쇠사슬, 쇠스랑, 수세미, 숫돌, 시루, 자루, 자리개, 자치기, 작대기(지게), 작두, 작살, 장도리, 제기, 조롱박, 족집게, 종지, 집게
			의복(18)	가랑이, 가죽신, 가죽허리띠, 갖신, 고깔, 고무신, 고쟁이, 굽, 덧버선, 도롱이, 빈침, 소매, 신, 잠방이, 적삼, 조끼, 짚신, 굴레
			건축(4)	굴뚝, 담, 사립문, 서까래
			놀이(5)	고누, 구슬, 바둑, 장기, 그네
	추상물(14)	값, 도깨비, 벌, 사랑, 사투리, 사회, 삯, 삼, 성, 소리, 개(윷), 걸(윷), 도(윷)		
사건	과정(8)	곤두박질, 구역질, 군소리, 다듬이질, 시집, 시험, 잠, 지랄		
	상태(9)	강짜, 개비, 고린내, 구린내, 두께, 사레, 서름, 조각, 지린내		
현상(10)		가랑비, 번개, 벼락, 서리, 소나기, 볏가리, 부스러기, 살빛, 색깔, 자귀		
위치	시간(5)	사흘, 새벽, 새해, 섣달그믐날, 세월		
	공간(7)	골목, 골목길, 구석, 사무실, 사이, 속, 시골		

[표 43] 어두 경음화 명사 분류

어두 경음화 명사의 의미론적인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된 실현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한국방언자료집》과 《방언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명사를 분류해서 통계 내기가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한국방언조사질문지》의 단어 수 통계 결과를 참고하여 어두 경음화 명사의 의미론적 실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방언조사질문지》에서 각 항목에 수록된 명사의 단어수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動物(157), 人體(149), 農事(107), 飮食(87), 自然(72), 植物(67), 育兒(67), 家屋(63), 人倫(52), 衣服(37)'. [표 43]에 따르면 어두 경음화 명사는 주로 '동물(73), 식물(45), 도구(45), 인체(27), 자연(24), 음식(22)' 등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방언조사질문지》의 통계 결과 순서와 비슷하다. 《한국방언조사질문지》의 단어수 통계 결과를 참조하면 어두 경음화 명사는 식물, 동물, 도구 등으로 실현율이 높다. 여기서 《한국방언자료집》과 《방언자료집》의 명사 항목별 통계 결과로 정확한 실현율을 계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율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이 밖에 [표 43]를 통하여 어두 경음화 명사 중에 사람을 지칭하는 칭호를 살펴보면 모두 부정적인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들이다. 그리고 동물에서 벌레의 이름에서 어두 경음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4.3.2. 동음이의어의 어두 경음화 양상

동음이의어는 '쓰다(用)- 쓰다(書)'와 같이 형태(소리)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가리킨다. 이렇게 동일한 형태(소리)로 다른 의미를 나타날 때 동음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언중들은 이러한 동음충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55] 어두 경음화 현상은 역시 이러한 동음이의어에도 일어난다. 박동근(2000)은 어두 경음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음이

55) 임지룡(1992:225-226)에서 동음어가 충돌하게 될 때 어느 쪽이 형태를 지키는 데 유리하느냐에 대해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구체어와 추상어가 동음어로서 충돌하게 될 경우 구체어가 유리하다. 둘째, 동음어가 충돌할 경우 어느 한 쪽이 동의어가 있다면 형태를 보존하는 데 불리하다. 셋째, 구조상의 안전도가 높은 쪽이 동음충돌에서 형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 기초어휘가 일반어휘보다 동음충돌에서 형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의어 가운데 한 쪽이 동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음으로 교체한 것이라고 제시였고 예는 다음과 같다.

(1) ㄱ. (수를) 세다/ *쎄다
ㄴ. (힘이) 세다/ 쎄다

(1ㄴ)의 '세다'는 현실 언어에서는 거의 /쎄다/로 굳어진 것인데 본래 '세다(算)'와 '세다(力)'가 동음이의어였던 것이 동음충돌 회피 의식에 의해 '세다(力)' 쪽을 경음으로 발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 박동근(2000)은 동음충돌 회피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동음충돌 회피 원리: 된소리 쌍을 갖는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낱말 가운데 뜻이 다른 같은 형태의 어형(동음이의어)이 존재하면 그 가운데 하나는 첫 소리를 된소리로 교체하여 동음충돌을 회피하게 한다.

그렇지만 박동근(2000)에서 제시하였듯이 이러한 원리는 모든 동음이의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어 어두 경음화 동음이의어에서 이러한 동음충돌 회피 원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명숙(2011:142-143)에서는 방언에서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의 사례 중 동음이의어인 '세다(算)/세다(力), 돌(石)/돌(잔치), 밤(夜)/밤(栗), 가지(枝)/가지(茄子), 자루(袋)/자루(柄), 살(肉)/살(煞)'의 실현 분포를 제시하며, 이러한 동음이의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언에서 동음충돌 회피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것을 설명하였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한명숙(2011)에서 제시하지 않은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동음이의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방언자료집》과 《한국방언자료집》에서 동음이의어를 '가래(痰)/가래(揪), 가리다(選)/가리다(積)/가리다(蔽), 가시(刺)/가시(俎), 가지(茄子)/가지(枝), 개(犬)/개(윷), 김(除草)/김(海苔), 다리(腳)/다리(橋), 바르다(正)/바르다(選), 밤(栗)/밤(夜), 병(病)/병(瓶), 북(北)/북(鼓)/북(梭), 세다(力)/세(算), 자루(袋)/자루(柄)' 총 13쌍을 찾을 수 있었다. 이 13쌍 단어 중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가시(刺)/가시(跙), 가지(茄子)/가지(枝), 개(犬)/개(욪), 세다(強)/세다(算)’ 4쌍과 ‘자루(袋), 밤(栗)’ 2개이다. 한명숙(2011:142-143)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언급한 ‘밤(夜)’과 ‘자루(柄)’는 《방언자료집》과 《한국방언자료집》에서 어두 경음화 방언형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두 경음화 동음이의어의 분포는 아래 [표 44]와 같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시(刺)	○	○	○	○	○	○	○	○	○
가시(跙)	○	○	○	○	x	x	○	○	x
가지(茄子)			○	x	○	○	○	○	
가지(枝)			○	○	○	○	○	○	
개(犬)									○
개(욪)									○
세다(力)		○	○	○	○	○	○	○	
세다(算)		○	x	○	○	x	○	○	
밤(栗)							○	○	
밤(夜)							x	x	
자루(袋)			○			○			
자루(柄)			x			x			

[표 44] 어두 경음화 동음이의어의 실현 분포

먼저 ‘가시(刺)/가시(跙)’, ‘가지(茄子)/가지(枝)’, ‘개(犬)/개(욪)’, ‘세다(強)/세다(算)’ 네 쌍의 어두 경음화 동음이의어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음이의어 가운데 한 쪽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동음충돌 원리가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44]에서 동음이의어 가운데 한 쪽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충북에서는 ‘세다(力)/세다(算)’ 중에 ‘세다(力)’만, 충남에서는 ‘가지(茄子)/가지(枝)’ 중에 ‘가지(枝)’만, 전북에서는 ‘가시(刺)/가시(跙)’ 중에 ‘가시(刺)’만, 전남에서는 ‘가시(刺)/가시(跙)’ 중에 ‘가시(刺)’ 그리고 ‘세다(力)/세(算)’ 중에 ‘세다(力)’만, 제주에서는 ‘가시(刺)/가시(跙)’ 중에 ‘가시(刺)’만 어두 경음화를 시켰다. 경기, 강원, 경상, 경북에서는 동음이의어 가운데 한 쪽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었다. 이상으로 지역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동음이의어 가운데 한 쪽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규칙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지역적으로 전남에서 이렇게 한 쪽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러한 전남 방언의 어두 경음화와 동음이의어의 관련성에 대해서 위진(2006)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위진(2006:115)에서는 현재 전남 방언에 어두 경음화는 의미를 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지'를 '까지(茄子)'와 '가지(枝)'로, '감-'는 '감-(눈을 감다)'와 '깜-(머리를 감다)'로, '소'는 '소(牛)/ 쏘(김치·만두의 속에 채워 넣는 것)'로, '굽-'는 '굽-(曲)/꿉-· 꾸-(炙)'로 의미를 분화시킨다는 예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방언자료집》과 《한국방언자료집》으로 전남지역에서 '가지(枝)'와 '굽-(曲)'의 어두 경음화 방언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 역시 한계가 있다.

또한 이렇게 한 쪽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의 방언형 가운데 모두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방언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어두 경음화 동음이의어에 동음충돌 회피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의미분화나 동음충돌 회피 원리는 방언에서 다소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경향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다음에 '자루(袋)'와 '밤(栗)'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음이의어 '밤(栗), 밤(夜)', '자루(袋), 자루(柄)' 가운데 현대 한국어에서 '자루(袋)'와 '밤(栗)'만 어두 경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루(袋)'와 '밤(栗)'에서 동음충돌 회피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보다시피 '자루(袋)'와 '밤(栗)'의 실현 분포는 아주 좁고 '자루(袋)'와 같은 경우는 전남, 충북 30 몇 개 방언형 중에서 어두 경음화 일어나는 방언형은 '짜리' 하나밖에 없다. '밤(栗)'과 같은 경우는 경남, 경북 7개 방언형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방언형은 '빰, 빰:'뿐이다. 만약 동음충돌 회피 원리의 적용으로 동음이의어 가운데 한 쪽이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 단어가 속한 방언에서 실현된 방언형이 통일하게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동음이의어에서 일반적으로 동음충돌 원리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4.4. 소결

이 장에서는 먼저 어두 경음화 현상과 빈도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형태·의미론적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을 품사별, 형태 구조별, 의미 분류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두 경음화와 동음이의어의 관계 역시 살펴보았다.

먼저 어두 경음화 현상은 그다지 높지 않은 빈도수로 나타난다. 또한 어두 경음화의 실현은 빈도수와 비례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었다. 다음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서 형용사, 동사, 명사는 부사보다 높은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남 지역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은 형용사, 동사, 명사로 실현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나머지 지역에서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 용언으로 더 잘 일어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체적으로 음운론적인 실현 경향에 비하여 많이 약하다.

어두 경음화 현상은 형태론적 과정인 파생과 합성의 적용되어도 실현 분포에 있어서는 어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 경우에는 파생과 합성의 적용에 따라 어두 경음화의 실현 분포가 소폭 줄어들지만, 예외적으로 실현 분포가 넓어지거나 아예 다른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현상이 형태론적 과정인 파생과 합성의 적용으로 생산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어두 경음화 형용사과 명사를 기존 의미론적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분류를 통하여 형용사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은 감각형용사로 가장 많다. 그리고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 감정을 나타나는 감각, 정서 형용사가 절반 이상은 [+부정적]나 [±부정적]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명사에서는 어두 경음화는 주로 동물(73), 식물(45), 도구(45), 인체(27), 자연(24), 음식(22) 등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을 지칭하는 칭호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동물에서 벌레의 이름으로 많이 나타낸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동음이의어는 동음충돌 회피 원리는 다소 확인할 수 있지만 그다지 설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을 대상으로 《한국방언자료집》과 《방언자료집》을 기반으로 어두 경음화 단어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현상의 지리적·언어적 실현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진행된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방언자료집》과 《방언자료집》을 바탕으로 정리한 520개 어두 경음화 단어를 출현 지역 수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다섯 유형의 실현비율 분포를 통하여 어두 경음화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제주, 경기의 순으로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어두 경음화 현상은 경남을 개신지로 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라 추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의 실현 양상을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어두 경음화 현상은 어두 자음, 후행 모음, 음절수, 음절구조와 같은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다. 어두 자음에 따른 어두 경음화 현상의 실현율은 'ㅅ, ㄱ, ㅈ, ㄷ, ㅂ'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군별 자음별 실현율 분포를 통하여 어두 자음 'ㄱ, ㄷ, ㅂ, ㅈ'의 경우, 경북 동남부, 경남 북부를 개신지로 하여 인접한 지역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어두 ㅅ은 이와 달리 경남 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모음에 따라 평균적으로 'ㅔ, ㅗ, ㅣ'의 실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ㅐ'와 'ㅜ'는 실현율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편에, 'ㅏ, ㅓ, ㅡ'는 실현율이 낮은 편에 속하였다. 그리고 다음절보다 단음절에서, 폐음절보다 폐음절에서 실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제2음절 초성은 어두 경음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제4장에서는 어휘·형태·의미론적으로 어두 경음화 실현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절반으로 낮은 순위의 빈도수로 나타나며 어떠한 비례관계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품사별로 어두 경음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서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 용언으로 잘 일어났다. 형태 구조별로 보았을 때 어기와 형태론적 과정을 겪은 합성어·파생어는 비슷하게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어기에 비해 어두 경음화의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한편으로 어두 경음화의 의미론적 조건에 따

른 실현 양상을 살피기 위해, 어두 경음화 형용사과 명사를 기존 의미론적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분류를 통하여 형용사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은 감각형용사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사에서는 어두 경음화는 주로 동물(73), 식물(45), 도구(45), 인체(27), 자연(24), 음식(22) 등의 하위 분류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을 지칭하는 칭호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물과 벌레의 이름에서 특히 어두 경음화 현상이 많이 나타낸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음이의어의 동음성을 해결하기 위한 어두 경음화 현상은 일부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기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다양한 지리적·언어학적 실현 경향성을 보인다. 지리적으로는 한국 북부보다 남부, 서부보다 동부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더 활발히 실현되고 있으며 경상도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언어학적으로 음운론적 경향성이 형태·의미론적 경향성보다 더 뚜렷하였다. 여러 언어학 요소 중에서 어두 자음 'ㅅ'의 실현 양상이 가장 특이하고, 어두 자음 'ㄱ'이 전체적으로 가장 활발한 실현 양상을 보였다.

본고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어두 경음화 현상은 통시적으로도 다뤄져야 하는 면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현대 방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두 경음화 현상의 통시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후속 논의에서는 통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어두 경음화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음운론적 실현 경향성을 음성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단순히 어두 자음, 모음, 음절 구조, 음절수라는 다양한 요인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조합해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성학적인 분석 역시 실험을 바탕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본고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방언자료집》과 《방언자료집》 두 자료는 같은 군별 기준으로 조사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분석 결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더욱 다양한 지역어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Ⅰ~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연구실, 《방언자료집》.

국립국어원(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논저>

강윤호(1959), "국어 방언에 있어서의 두음경화 어휘의 분포에 대하여", 《한글》 124, 한글학회, 179-191.

김덕호(1993), "어두 ㅅ 비경음 실현 지역의 지리언어학적 고찰", 《어문논총》 27, 한국문학언어학회, 69-95.

김말숙(1994), "국어 경음화 현상의 음성적인 접근", 《원우논총》 12,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75-89.

김무림(1997), "경음의 음운사", 《국어국문학》 119, 국어국문학회, 29-48.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규(2001), "음성 언어 층위와 문자 언어 층위의 위상에 대한 연구", 《언어학》 30, 한국언어학회, 65-88.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영송(1972), "된소리의 음성 자질과 변별 자질", 《한글》 149, 한글 학회, 349-385.

김유권(2004),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겨레어문학》 32, 겨레어문학회, 1-23.

김은영(2005), "현대 국어 감정동사의 범위와 의미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16, 한국어 의미학회, 99-124.

김인균(2002), "국어의 명사 연결 구성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남(1998),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남(2001), "국어 형용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171-199.

김정아(2005), “VOT를 중심으로 본 한국인의 영어 어두폐쇄음 발음”, 《영어학》 5-4, 한국영어학회, 689-709.

김차균(1997), “정도 자질과 우리말의 음운 현상”, 《인문학연구》 24-2,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61-253.

김창섭(1985), “시각형용사의 어휘론”,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49-176.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연구》, 태학사.

김창식(1990), “파생어 형성과 경음화”, 《어문논총》 24, 한국문학언어학회, 37-50.

김 현(2011), “경음화의 발생”, 《국어학》 62, 국어학회, 107-129.

김 현(2014), “어두와 비어두 ‘ㄷ, ㅌ, ㄸ’의 폐쇄 구간”, 《국어학》 72, 국어학회 ,183-203.

김형규(1961), “국어 강음화 현상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24, 국어국문학회, 104-113.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흥수(1993),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연구》, 탑출판사.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박경래(2003), “충청북도 방언의 연구와 특징”, 《한국어학》 21, 한국어학회, 17-63.

박동근(2000), “말머리에 나타나는 이유 없는 된소리 현상 연구”, 《언어학》 27, 한국어언어학회, 179-200.

박창원(1991), “국어 자음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재연·신지·고도흥(1999), “음성 환경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 시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5-2, 한국음성과학회, 139-159.

배혜진·이혁화(2010), “대구 지역 어두경음화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01-329.

서민경(2002), “한국어 파열음의 VOT에 관한 실험음성학 연구: 환경에 따른 VOT 변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승완(2001), “국어 장애음의 청취 단에 있어서 후행 모음이 갖는 요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정근(2007),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지영(2000), “국어 평음의 음성적 실현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평폐쇄음을 중심으로”, 《한글》 250, 한글학회, 5-41.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엄태수(1986), “현대국어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정란(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한신문화사.
오정란(1990), “자질층이론과 국어”, 《한국어학신연구》, 한신문화사, 115-139.
오정란(1993), “국어 음운현상에서의 지배관계”,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 한국음운론학회, 91-104.
오종갑(1996), “국어 어두 합용병서 표기의 변천”,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31.
오종갑(1999), “경음화와 영남방언”, 《어문학》 67, 한국어문학회, 79-106.
오종갑(2011), “국어 방언에 반영된 어두경음화”, 《한민족어문학》 58, 한민족어문학회, 239-271.
위 진(2008), “전남방언에 나타난 어두경음화”,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학회, 111-135.
유현경(1997),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현경(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6, 국어학회, 221-258.
윤예진(2014), “이유 없는 어두 경음화의 환경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5-225.
이경희(2002), “경남 방언의 경음화와 유성화 현상에 대한 음성학적 고찰: 마찰음 /ㅅ/와 /ㅆ/를 대상으로”, 《한글》 255, 한글학회, 7-45.
이경희·이봉원(1999), “한국어 평마찰음과 경마찰음의 음향 특성: 길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0, 한국어학회, 47-66.
이근열(1996), “경남 방언의 말머리 된소리되기”, 《문창어문논집》 33, 문창어문학회, 71-88.
이기문(1955), “어두 자음군의 생성 및 발달에 대하여”, 《진단학보》 17, 진단학회,

187-258.
이기문(1982), 《國語史概說》,탑출판사.
이기문(1987),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이돈주·홍순탁(1965), “거문도 방언에 대하여”,《호남문화연구》3,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49-90.
이미재(1989), “어두경음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논문집》7, 수원대학교, 61-73.
이병모(2001), “명사의 하위 분류에 대하여”, 《한글》251, 한글학회, 167-203.
이운영(2004), “한국어 명사의 다의적 해석: 생성어휘부 이론에 입각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이익섭(2000), 《사회언어학》, 민음사.
이주행(1999),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7-1, 한국사회언어학회, 51-76.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이현희(2014), “구어성 언어 단위의 설정과 그 유형”, 《한글》 303, 한글학회, 41-76.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이호영(2009), “서울 토박이들의 경음화 선호도”, 《말소리와 음성과학》1-2, 한국음성학회, 151-162.
임신영(2015), “영어 어두 폐쇄음과 후행모음 간의 상관성”, 《영어영문학》20-1, 미래영어영문학회, 333-351.
임지룡(1989), “국어 분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 《국어학》19, 국어학회, 395-425.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임홍빈·한재영(1993), 《국어 어휘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장승혜(2011), “어두 경음화 현상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승철(2000), “제주 방언의 음운론”, 《탐라문화》2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79-189.

정승철(2003), “어두자음군의 경음화와 격음화”, 《한국문화》 3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1-48.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최경봉(1996), “국어 명사의 의미 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명옥(1982), 《월성 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최명옥(1998), “국어의 방언 구획”, 《새국어생활》 8-4, 국립국어원, 5-29.
최명옥(2015), 《한국어의 방언》, 세창출판사.
최학근(1968), 《국어 방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학근(1982), 《한국방언학》, 태학사.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한명숙(2001), “현대국어의 경음화 현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명숙(2011), “대학생들의 어두 경음화 실현 및 인지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329-370.
한명숙(2011),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명숙(2015), “현대국어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우리말연구》 41, 우리말학회, 61-94.
허 웅(1985/199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황인권(1999), 《한국 방언 연구》, 국학자료원.
Chomsky, N. and Halle, M.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Marper & Row.
Hyman, Larry M. (1975), *Phonolog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to, Chiyuki (2014), “Compound tensification and laryngeal co-occurrence restrictions in Yanbian Korean”, *Phonology* 31-3, 349-398.
Kim Hyoju (2016), “Contextual distribution of English loanword word-initial tensification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2-2, 245-288.
Mahmoud Mobaraki (2013), “Fortition in Persian Phonological System”,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4-23, 111-118.
Nida. E. A. (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Mouton Publishers.

吴宏伟(1992), 关于突厥语族一些语言部分词首辅音演变的几个问题, 《民族语文》 1992年 第 5 期 , 48-52.

陈小燕(2006), 贺州本地话“古端母浊化”等若干现象与古百越语语音, 《广西民族研究》 85, 140-145.

陈其光(1991), 华南一些语言的清浊对转, 《民族语文》 1991年 第 6 期, 1-11.

完玛冷智(2007), 吐蕃藏语体词性成分“清音浊化”的条件, 《民族语文》 2007年 第 5 期, 44-47.

부록: 어두 경음화 방언형 목록[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가깝다	형용사							까깝다		
가끔	부사						까끔		깐:	
가득하다	형용사						까득하다, 까뜩하다, 깟뜩하다, 깍차다, 꽉찻다	까뜩차다	깍차다, 까떡차다, 꽉차다	까떡차다, 깍차다, 깍찻다, 꽉찻다
가득히	부사		까띠기, 까타나, 까타나							
가라앉다	동사						깔앉다	까라앉다	깔앉다	
가락지	명사		까락지		까락지	까락지	까락지	까락지	까락지	
가랑비	명사			까랑비	까랑비	까랑비		깔그랑비	까랑비	
가랑이	명사								까래이	
가렵다	형용사				까렵다					
가루	명사					까루	까리	까루	까루, 까리	
가르마	명사							까리매, 깔매	까리매, 깔매	
가리	명사							까리		
가볍다	형용사									깨붑다
가시(刺)	명사	까시	까시	까시	까시	까시	까시	까시, 까지	까시, 까씨	까시
가시(跙)	명사	까시	까시	까시	까시			까시	까시	
가시나무	명사					까시나무	까시나무			
가시다	동사		까시다	까시다	까시다					
가시덤불	명사		까시덥풀,	까시덤불,	까시덤불,	까시덤불, 까시덤풀	까시덤불, 까시덤풀,	까시덤불, 까시덤풀,	까시덤불, 까시덤풀, 까씨덤불	

1) 방언자료에 한하여 일부의 동사 방언형은 활용형으로 나타난다.

가시랭이	명사		까스락, 까시레기	까스락, 까시레기,		까스리기, 까시락	까스락, 까시락, 까시래기, 꺼스라기, 꺼스락, 꺼스러기, 꺼시락	까스레기, 까스레이, 까시래기, 까시랭이, 깍끄레이, 꺼끄레이, 끄스레기	까스라기, 까스락, 까스레기, 까시래기, 꺼스락, 꺼시락, 꺼시레이	
가위	명사		까새, 깍개, 깍깨, 깍께			까새	까새	까시개, 까시게, 깍개, 까위		
가자미	명사		까재미					까재미, 까제미, 까깨미, 까:재, 까재비	까재미, 까자미, 까제비, 까지매기, 까지매이, 까지미,	
가재	명사		까재	까재		까제, 까:재, 까제, 까:지	까재, 까:재, 까지, 까:지	까자, 까재, 까:제, 까:지	까재, 까제, 까재:, 까지, 까지:, 끼:	
가죽	명사					까죽	까죽	까죽	까죽	
가죽신	명사					깓진, 깟신	까친, 깓진, 깔친, 깟신		까죽신, 깔찐	
가죽허리띠	명사					까죽허르끈	까죽허르끈 까죽허리끈		까죽허리끈 까죽헐끈	
가지(茄子)	명사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가지(枝)	명사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쟁이, 까재이,	까지, 까쟁이, 까재이,	까지	까지, 까재이, 까쟁이, 까챙이	
가지런하다	형용사			까즈런하다				깐쭈런:하다, 깐추렌:하다, 깐추리건다, 깐추리헌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가지말랭이	명사					까지몰림			까지말린그, 까지몰리운 그	
간지럽다	형용사								깨거럽다, 깨꺼럽다, 끈지럽다	
갈고리	명사			까꾸래, 갈꾸랭이, 갈끼, 갈쿠리, 갈키	까꾸래, 갈꾸랭이	갈구리, 갈꼬리, 갈쿠리	깍고리, 갈구리, 갈꾸리, 갈끼, 갈쿠, 갈쿠리, 갈키	까꾸리, 깍꾸레이, 깍꾸리, 갈구래이, 갈구리, 갈꼬래이, 갈꼬리, 갈꾸레이, 갈꾸리, 갈끼, 갈:끼, 갈찌, 갈키, 꼬:깨이	까꼬래이, 까꾸래기, 까꾸래이, 까꾸레이, 까꾸리, 까쿠리, 깍구리, 갈꾸래이, 갈꾸리, 갈쿠래이, 갈쿠리, 갈키:	
갈기	명사							갈기		
갈대	명사		갈때			갈대	갈대, 갈때, 갈:때, 갈때기	갈때	갈대, 갈때	갈대
갈매기	명사							갈매기,	갈마구, 갈매기, 갈메기	
갈보	명사		갈보	갈보	갈보	갈보	갈치	갈보	갈보	
갈치	명사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까르치	
갈퀴	명사			갈키, 깍찌, 갈꾸리, 갈키	갈쿠리	갈쿠리, 갈키	갈키	까꾸리, 까꾸랭이, 갈꾸리, 갈끼, 갈키	까꾸리, 까꼬리, 까쿠리.	

감기다 (사동)	동사		깜기다, 깽게, 깽기다	깜기다, 깽기다		깜기다, 깽기다, 깽끼다	깽기다, 깜끼다, 깽껬다	깜기다, 깜개다, 깸기다	깜기다, 깸기다	
감기다 (피동)	동사		깽게다, 깜어따, 깜껴따, 깽겨다, 깡게다	깽기다		깽기다, 깽끼다	깽갰다, 깽기다, 깜기다, 깽끼다,	깜개다, 깸기다, 깜키다	깽기다, 깸기다	
감다	동사		깜다	깜다	깜다	깜다	깜다	깜다	깜다	깜다
감추다	동사						꼼치다	깜추다	깜추다	
갑자기	부사								깝자기, 깝작시리	깝자기, 깝짝시리
값	명사							깞		깝
갓난아이	명사	깟난이, 깟난애기	깟난애기	깟난애기, 깐난애, 깐난쟁이	깟난애기, 깟난애, 깐난쟁이	깟난애기, 깐난애기	깟난애기, 깐난이, 깐난애기	깐난다		
강짜	명사		깡, 깡다구	깡다구	깡, 깡짜			까이, 깡, 깡다구, 깡짜, 깡짜구, 깽다구	깡짜	
강철	명사	깡세		깡쎄, 깡철	깡쎄, 깡철			깡쎄, 깡철	깡쎄, 깡철	
갖신	명사				깟진	깟신, 깟진	까신, 까:씬, 깔친, 깟신, 깟씬, 깟:씬, 깟진, 깟:찐, 까친	깟씬	깔찐, 깟친	
개(犬)	명사								깨	
개(윳)	명사								께	
개골창	명사					깨골창, 깨굴창,	께굴창		깨고랑, 깨구랑, 깨꾸랑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개구리	명사	깨구리, 깨고리, 깨구락지, 깨구래기	깨고리, 깨구래기, 깨구리, 깨구락지	깨구라기, 깨구락지, 깨구리, 깨고락지, 깨고락지, 깨꾸리	깨구라기, 깨구락지, 깨구리, 깨고래기, 깨고락지, 깨구래기	깨고락지, 깨고래기, 깨고리, 깨구락지, 깨구래기, 깨구리	깨구락지, 깨구리, 깨고락지, 깨고리,, 깨구락지, 깨우락지, 깨우래기	깨구리, 깨고리, 깨구랭이, 깨고락찌, 깨구래이, 깨까리	깨구리, 깨고리	
개똥벌레	명사		깨똥벌거지							
개미	명사					깨미	깨:미, 깨미	까미, 깨미	깨미, 깨미:, 깨:미	
개비	명사							깨비	깨비	
개암	명사	깨금, 깨암	깨:금, 깨꿈, 깨금, 꼬:얌	깨금, 깨:금, 깨암	깨금, 깨끔, 깨:금	깨굼, 깨금, 깨:곰, 깨암	깨굼, 깨금, 깨:금, 깨끔	깨금, 깨굼, 깨:곰, 깨검, 깨양, 깨암, 깨앙, 깸, 께암, 끼양	깨곰, 깨굼, 깨금, 깨:곰, 깨:금, 깨암	
개운하다	형용사						깨운하다		깨운하다, 깨분하다, 깨우운허다, 깨운타	
갯물	명사							깜물	깽물	
거꾸러뜨리다	동사			꺽꾸로박다	꺽꾸로박다					
거꾸러지다	동사		꼬꾸라디다	꺼꾸러지다	꺼꾸러지다					
거꾸로	부사	까꿀루	까꿀로, 까꿀루, 꺼꾸루, 꺼꿀로, 까꾸로, 꺼구로, 꺼꾸로	꺼꾸루, 꺼꿀루, 까꿀루, 꺼꾸로	꺼꾸루, 꺼꿀루, 꺼글로, 꺼꾸로	꺼꿀로, 까꿀로, 꺼꾸로	꺼꿀로, 꺼꾸로, 꺼:꾸로, 꺼:꿀로	까꿀로, 꺽꿀로, 깍꾸로, 깍꿀로, 꺼꿀로, 꺼꾸로, 까꾸로,	까꿀로, 깍꾸로, 깍꿀로, 꺼꿀로, 꺼꾸로, 꺼꾸리, 꺼꿀로:	
거들다	동사			끄:드러다						

거리끼다	동사		꺼리끼다, 꺼리다	꺼리끼다, 꺼리다	꺼리끼다, 꺼리다	꺼리끼다	꺼리끼다	꺼리끼다, 꺼린다, 껄린다	꺼리끼다, 꺼리다, 꺼림하다	
거머리	명사					꺼마리, 꺼머리			꺼무리	
거스러미	명사					꺼시름	꺼시름	꺼시렁이, 꺼스레기	꺼스레기	
거스르다	동사			꺼슬린다			꺼슬린다	꺼실다		
거위	명사			끈깽이		깨까우, 꺼생이,	깨까우	꺼깽이, 꺼싱이, 껄갱이	꺼시, 꺼싱이	
거칠다	형용사		꺼치럽다	꺼칠꺼칠하다	꺼칠다, 꺼칠꺼칠하다	꺼칠다		꺼칠다, 까치럽다, 꺼치럽다	꺼칠다, 거칠하다, 꺼치럽따	
거품	명사							꺼품	꺼품	
건더기	명사		깡지, 껑지					껀데, 껀지, 껜데기, 껀디기	껀데기, 껀디기	
건지다	동사		껀지다	껀지다	껀지다	껀지다	껀지다	껀지다	껀지다	
걸(윷)	명사	껄								
검다	형용사						깜다, 깜따, 껌다, 껌:다, 껌:하다, 끔:다, 끔:하다		까마타, 까문타, 깜다, 껌다, 껌타,	
검둥개	명사	까막개, 까막가이		꺼멍개				껌둥개	까망개, 껌둥개	
검불	명사						껌부래기, 껌불	껌불		
검은자위	명사	껌은동자, 꺼먼동자, 꺼먹동자	껌은자구, 꺼먼동자, 꺼먼자우	꺼먹동자, 꺼먹짜우, 꺼먹창	꺼멍개	꺼먹동자, 꺼멍창	꺼멍창	꺼문자이, 꺼문차, 껌둥자우, 꺼문자이	꺼문창, 꺼멍창, 꺼먼창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게	명사					깽이, 깨이	깽이, 깨이	께, 끼	끼, 께, 깨	
게으르다	형용사						깨으르다, 깨을르다, 께오르다, 께우르다, 께울루다, 께울하다, 께으르다 께을르다, 끼우르다, 끼울르다, 끼을르다	께을다	깨을타, 께으르다, 껠타, 끼일타, 낄타	
게으름장이	명사					께으름배이	께으름베이	깨럼배이, 껄베이, 끼을베이,	께엘베이, 끼을베이, 께렁베이, 껄:배이, 껄베이	
겨	명사		깨, 껴							
고개	명사							꼬개		
고갱이	명사		꼬개이, 꼬갱이,	까갱이, 꼬갱이, 꼬뱅이	꼬갱이			꼬갱이		
고기	명사		꼬기	꼬이	꼬이			꼬개		
고깔	명사			꼬깔	꼬깔, 께깔	꼬깔, 꼿깔, 꽁깔, 꾀깔	꼬깔,꼭깔,	꼬깔, 꼭갈, 꼭깔, 꼿깔	꼬깔, 꼭깔, 꼿갈, 꼿깔	
고누	명사	꼰디기, 꼰질	꼰, 꼬누, 꼬니, 꼰지리, 꼰질	꼬누,꼰, 꼰질	꼰지리	꼰, 꼬내, 꼬노, 꼬누, 꼬니	꼰, 꼬누, 꼬니	꼰, 껌, 꼬누, 꼼, 끈	꼰, 꼰두, 꼰디	꼰, 꼬녀, 꼰자, 꼰저
고다	동사		꼬다		꼬다	꼬다		꼬다, 꾸다	꼬다	
고둥	명사							꼬디		
고드름	명사		꼬드름	꼬드럼, 꼬드름, 꼬두름		꼬두룸	꼬두룸, 꼬두름	꼬드름		

고들빼기	명사		꼬들빼기	꼬덜끼, 꼬둘빼기, 꼬들삐	꼬들빼기	꼬돌패기, 꼬두배기, 꼬들빼기	꼬둘빼기, 꼬들빠구, 꼬들빼기, 끌빼기	꼬들빼기, 꼬직깨, 꼰들개	꼬돌배기, 꼬돌빼기, 꼬들빼기	
고등어	명사							꼬등어, 꼬드레, 꼬덩어, 꼬뎅에, 꼬드어, 꼬더어	꼬도리, 꼬두리, 꼬등어, 꼬드리, 꼬드어, 꼬드레	
고랑	명사					꼬랑, 꼬랑창	꼬랑, 꼬랑창, 꼬래이		꼬랑, 꼬창	
고리	명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고리다	형용사			꼬리다		꼬리다	꼬리다, 꾀리다	꼬리다	꼬리다	
고린내	명사			꼬랑내	꼬른내, 꼬린내	꼬랑내, 꼬룬내, 꼬린내	꼬랑내, 꼬른내, 꼬린내, 꾀린내, 꾄내	꼬린내,	꼬랑내,	꼬랑네
고무신	명사		꼬무신	꼬무신				꼬무신	꼬무신	
고무풀	명사			꼬모풀	꼬모풀					
고물	명사			꼬물	꼬물	꼬물				
고삐	명사		꼽삐	꼬뺑이, 꼴뺑이, 꼴삐, 꼬삐, 꼬빼이	꼬뺑이, 꾀팽이, 꼽삐	꼬뻬이, 꼬삐 꼬뺑이, 꾀삐 꼬빼이, 꼽비	깨피, 꼬빼이 꼬삐, 꼬뺑이 꾀삐, 깨뺑이 꼼뺑이, 꼼삐 꾀뺑이, 꾀피	꼬비, 꼬빼이, 꼬뺑이, 꼬삐, 꼴빼이, 꼴뺑이, 꼴삐, 꼽빼이, 꼽삐	꼬빼기, 꼬빼이, 꼬뺑이, 꼬삐, 꼽빼이	
고사리	명사					꼬사리, 꼬사래	꼬사리	꼬사리	꼬사리, 끼싸리, 깨사리, 끼사리, 꾀사: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고소하다	형용사						꼬숩다, 꼬습다, 꼬시다, 꼬숩다	꼬소하다, 꼬시하다, 꼬시다	꼬소하다, 꼬시하다, 꼬시다	
고수머리	명사		꼬수머리	꼬시랑머리	꼬시랑머리		꼬슬머리	꼽실머리	꼬시랑머리 꼬시메머리 꼬실랑머리 꼽실머리	꼬스락머리
고슴도치	명사								꼬심도치	
고양이	명사				꼬니	꼬내	껭이,	꼬내, 꼬니, 꼬내기, 꼬양이, 꼬얭이	꼬니, 깨내기, 깨내이, 깨냉이	
고욤	명사		꼬야					꼬양	꾀양	
고쟁이	명사		꼬재이, 꼬재이	꼬쟁이, 꼬재이,	꼬쟁이	꼬쟁이, 꼬재이, 꼬차이, 꼬채이	꼬재이, 꼬째이	꼬재이, 꼬재이, 꼬제이	꼬깨이, 꼬깨이, 꼬자이, 꼬재이	
고추	명사		꼬추, 꼬치	꼬추, 꼬치	꼬추, 꼬치	꼬추, 꼬치	꼬추, 꼬치	꼬추, 꼬치, 꼿치, 꽁치	꼬추, 꼬치	
고추장	명사							꼬치장	꼬치장	
고치	명사	꼬치	꼬치	꼬치, 꼬추	꼬치, 꼬추	꼬치, 꼬초	꼬치	꼬치, 꼰치, 꼿치	꼬치, 꼰치	
곡괭이	명사	꼭괭이	꼬깽이, 꼬깨이, 꼭께이, 꼭꽤이	꼬깨이, 꼬깽이, 꼭괭이, 꼭깨이, 꼭깽이,	꼬꽹이, 꼭괘이, 꼭괭이, 꼭까이, 꼭꾀이	꼬개이, 꼬깨이, 꼭깨이, 꼭깽이, 꼭께이, 꼭껭이	꼬개이, 꼬깨이, 꼬깽이, 꼭깨이, 꼭깽이, 꼭께이, 꼭껭이	껄깨이, 꼬:깨이, 꼬깽이, 꼬꽹이, 꼭깨이, 꼭께이, 꼭껭이	꼬개이, 꼬깨이, 꼬깽이, 꼬꽹이, 꼭괘이, 꼭깨이, 꼭깽이	

다듬다	동사		따듬다	따듬다		따듬다	따듬다	따듬다	따듬다	
다듬이질	명사		따디미, 따데미	따딤이질		따듬질, 따딤이질, 따드미질	따듬개질, 따듬이질, 따듬질, 따듬미질, 따뜨매질	따뎀이질, 따듬이질, 따딤이질, 따듬질, 따디미질, 따담질, 따대미질, 따데미질, 따딤질, 따따미질, 띠덤질	따듬개질, 따딤, 따듬질, 따디미질, 따더미질	
다듬잇돌	명사		따디밋돌	따듬이질, 따딤이질		따듬독, 따듬돌, 따듬잇독	따듬독, 따듬돌, 따듬잇독, 따디미똘	따듬돍, 따디미돌	따디미돌, 따드멧돌, 따딤똘, 따딤이돌, 따딤잇돌	
다르다	형용사		따르다	딸르다, 따르다		따르다, 따리다	따르다, 따리다	따리다	따리다	뜻나다, 뜰리다
다시다	동사							따시다	따시다	
다지다	동사						따둔다		따진다	
다치다	동사			따치따						
닦다	동사	딲다	딲다	딲다, 딱다	딲다, 딱다	딲다, 딱다	딲다, 딱다	딲다, 딱다	딲다, 딱다	따끄다
닦이다(사동)/닦게한다	동사	딱개한다, 딲인다	딲게하다, 딲이다	따까지다, 따끼다	땎이다, 딲게헌다,	땎인다, 딲게헌다	딲게 헌다, 딲개 한다, 땎인다, 딲인다	딲개한다, 뗶앤다, 딱앤다, 땎인다	딲인다, 땎인다	
닦이다(피동)/닦아지다	동사	딲어지다, 땎이다	딲아지다, 딲어지다, 딲이다, 땎이다	따까지다, 따끼다	땎이다, 딲어지다, 딲아지다, 딲이다	땎이다, 딲아지다	딲어졌다, 딲아졌다, 딱어졌다, 딱아졌다, 땎있다	딲이나, 딱애나	딱이다, 땎이다	
달라붙다	동사						딸라드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달이다	동사							딸이다	딸이다	
달팽이	명사	딸팽이								
담	명사						땀			
담쟁이	명사						땀영쿨(담쟁이덩굴)			
당기다	동사	땡기다	땡기다	땡기다	땡기다	땡기다, 땡이다, 땅기다	땡기다, 땡이다, 땅기다	땡기다, 땡이다	땡기다, 땡이다	뗑기다
당나귀	명사			땅나귀	땅나귀	땅나구	땅나구, 땅나귀, 땅나기	땅나귀, 땅나구	땅나귀, 땅나구	
대야	명사		때야, 떼	때야,때여	때야			때야, 때	떼, 때와, 때	
대추	명사								때추	
더듬다	동사		떠뜸다							
던지다	동사		떤지다	떤지다	떤지다	떤지다	떤지다,	떤지다, 땐진다	떤지다, 떤짓다	
덧버선	명사							떳버선		
도(윷)	명사		뙤	또		뙤	또, 뙤,	때, 떼, 또, 뙈, 뙤	떼, 또, 띠	
도깨비	명사		또깹;				또깨비	똘째비	또깨비, 또채비	
도깨비바늘	명사						또깨비	뚜껍우때, 뚜껍찰	또깨비바늘, 뚜끼비찰밥	
도꼬마리	명사								떠꼬마리	
도랑	명사	또랑	또랑	또랑	또랑	또랑	또랑	또랑	또랑	또랑
도롱이	명사						때롱, 뙤롱			
독수리	명사	똑수리						똑소래기, 똑수리	뚝수리	뚱수레기, 똥소리기, 똑수레기
돌배	명사		똘배	똘기, 돌배		똘배	똘:배,	똘배, 뚝배, 뚝빼	똘배	

된장	명사							띠장	띠장	
두꺼비	명사		뚜깨비, 뚜께비, 뚜꺼비	뚜꺼비	뚜꺼비, 뚜께비	뚜깨비, 뚜꺼비, 뚜께비, 뚝게비	뚜깨비, 뚜꺼비, 뚜께비, 뚜꺠비	뚜꺼비, 뚜께비, 뚜끼비, 뚝께비, 뚜깨비, 뚜뀌비, 뚜게비	뚜깨비, 뚜끼비, 뚜께비, 뚝께비, 뚜꺼비, 뚜꾸비, 뚜깨삐	뚜꺼비
두껍다	형용사		뚜겁다	뚜껍다	뚜꺼운	뚜껍다	뚜껍다	뚜껍다	뚜껍다, 뚜꿉다	뚜껍다
두께	명사		뚜께	뚜께			뚜깨, 뚜꾸	뚜끼	뚜께,뚜끼	뚜끼,뚜께
두다	동사	뛰다	뛰다, 뛔서					떠다	뚜다, 뜨다, 또다	
두더지	명사			뚜더지	뚜더지	뚜두지	뚜두지	뛰지기, 띠직기, 뚜지기	뚜지기, 띠지기	
두둑	명사		뚜덕, 떠떡		뚝		뚜덕, 뚝, 뚜럭	뚠덕, 뜨럼, 뜨룸	뚝, 뜨룸	
두드러기	명사					뚜두럭	뚜두룩, 뚜두륵, 뚜드럭, 뚜드레기, 뚜두럭			
두드리다	동사	뚜드리다, 뚤기다	뚜드리다, 뚜드레다, 뛰드리다	뚜드레다, 뚜드리다, 뚜드렁건, 뚜디려따, 뚜드려따	뚜드리다, 뚜디리다, 뚜두리다	뚜드리다, 뚜두리다, 뚜드기다, 뚜디리다, 뜨드리다	뚜두리다	뚜두리다, 뚜디리다, 뚜들기다, 뛰디리다, 뛰뒤리다	뚜더리다, 띠더리다, 뚜디리다, 뚜들기다	뚜드리다
두렁	명사	뚜랑, 뚜렁	뚜렁	뚜렁		뚜럭	뚜럭	뚜럼, 뚜룸,	뚜룸, 뚜럼, 뚜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두레박	명사		뚜레박, 뜨러박, 뜨레, 뜨레박, 뜨리박	뚜름박, 뜨레박, 뜨루박, 뜨룸박	따레박		따르박	따레박, 따루박, 따르박, 따리박, 딸박, 뚜룸박, 뚜름박, 뚜리박, 뜨름박, 뜨레, 뜨르박, 뜰박, 떠럼박, 뚜루배기, 뜨래박, 또루박, 뜨러박, 뜰빡, 뚜루박, 뜨리박	떠래박, 뚜루박, 따루박, 뚜래박, 뚜러박, 뚜룸박, 뚜린박, 뚜런박	
두부	명사				뚜부	뜨부, 뚜부	뚜부, 뜨부	뚜브	뜨부, 떠부, 뚜부	
둑	명사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둥글다	형용사		똥그랗다, 똥그랍다, 뚱그러타	뚱굴다, 똥그라타	똥그랗다, 똥그럽다, 땡구라타	똥그랗다, 뚱굴다, 뚱글다, 똥그랍다	똥그랗다, 뚱굴다	똥구랍다, 뚱그러타, 뚱그럽다	뚱걸다, 똥그랗다, 뚱굴다	
둥우리	명사		뚜우리		또아리, 또우리					
뒤지다	동사						뛰지다			
들	명사				뜰			뜰		

들기름	명사			뜰찌름				들지름, 뜰찌럼, 뜰지럼, 떨지럼, 떨찌럼, 뜰끼럼, 떨끼럼		
들깨	명사	뜰깨		뜰깨				뜰깨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바가지	명사		빠가찌							
바구미	명사					빠깨미, 빠꾸미				
바닥	명사		빠닥	빠닥	빠닥		빠닥, 뿌닥	빠닥	빠닥	
바둑	명사								빠닥	
바듯이	부사				빠두시		뽀도시			
바퀴	명사								빠꾸	빠쿠
박쥐	명사		빡쥐, 빨주, 빨쥐	빡쥐, 빡쮜,	빡쥐	빡쥐, 뿍쥐, 빡주, 뿍주, 뿍주, 뿍쥐	빡쥐, 뿍쥐, 빡주, 빡지, 뿍주, 뿍쥐, 뿍주, 뿍쥐	뽈쮜이, 뽈찌, 뿔쥐, 빨쥐, 빨지, 뽈쥐, 뽈지, 빡쥐, 빨찌, 빨주, 뽈쭈	빨쥐이, 빨지, 뽈쮜이, 뽈찌, 빡지, 뿔쥐, 뿔찌, 빨쥐, 뿍지, 뽈쥐, 뽈지, 뽈지새, 뿍지, 빡찌	
반드럽다	형용사				빤드럽다		빠드럽다, 빤드랍다	빤드럽다		
반드시	부사						빤드시, 빤뜨시, 빤다시			
반듯하다	형용사		빤듯하다, 빤뜻하다	빤듯하다,	빤듯하다	빤뜻허다	빤뜻허다	빤듯하다	빤듯하다	
반딧불	명사								빤딧불	
발가벗다	동사		빨개벗다, 뻘거벗다	빨가벗다			빨가벗다, 뻘개벗다	빨가번는다, 빨가벗다, 뻘가벗다, 뻘거벗다, 뻘가번는다	뻘가벗다	
밤	명사							빰	빰	

방개	명사							빵개	빵게,빵께	
방구벌레	명사							빵구벌레		
방귀	명사					빵구		빵구	빵구	
방아깨비	명사	빵:깨비								
방울	명사			빵울	빵울	빵굴, 빵울	빵굴, 빵울	빵울, 빠울	빠얼, 빵울	
버드나무	명사								뻐들나무, 뻐드나무	
버리다	동사		삐리다	뻐리다			뻐린다	빠리다, 뻐리다, 삐리다		
버찌	명사				뻣	뻔	뻐찌, 뻔, 뻣지, 뻣찌, 뽓지, 뽓찌	뻣지	뻔, 뻣지	
버티다	동사							뻐치다	뻐치다	
번개	명사				뻔개, 뻔:게		뻥개	뻥개, 뻥게	뻔개,뻥게	뻥괴
번데기	명사	뻔데기, 뻔디기,	뻔데기, 뻔대기, 뻔디기	뻔디기, 뻔데기	뻔데기	뻔데기, 뻔디기, 뻔떼기	뻔대기, 뻔데기, 뻔디기, 뻔떼기, 뽄데기, 뽄대기, 뽄데기,	뻔듸기, 뻔데기, 뻔디기, 뻔대기	뻐디기, 뻔대기, 뻔데기, 뻔드기, 뻔듸기, 뻔디기, 뽄데기, 뽄듸기, 뽄디기	뻔데기
번지	명사							뻔지		
번지다	동사						뻔친다		뻐친다	
벌	명사						뻘		뻘	
벗기다	동사		뻬끼다, 뻣기다	뻤기다	뻤기다			뻬끼다	뻬끼다	
벗다	동사		뻣다					뻣다	뻣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벚나무	명사						뻣나무, 뻔나무			
베끼다	동사							뻬끼다, 뻬끼다	뻬끼다, 뻬끼다	
벼락	명사						뻬락		뻬락	
벼룩	명사		빼루기, 뼈루기, 뻬루기	뻬로기, 뻬루기, 빼룩, 뼈룩, 뻬룩, 빼루기	뻬루기, 뼈룩, 빼룩					
별나게	형용사		삘라게		뻔질나게					
볏가리	명사							삐까리		
병아리	명사		삐아리, 삥아리, 뻥아리	뻥아리	뻥아리	삥아리, 뻥아리, 삥아리, 삐아리	삥아리, 삐아리, 삥아리, 뻥가리, 뻥아리, 삐가리, 삐갱이 삐겡이, 삐애기, 삥아리,	삥아리, 뼈아리, 삥아리, 삐가리, 삐개이, 삐갱, 삐갱이, 삐아가리, 삐아리, 삐애기, 삐애리, 삘가리, 삘개이 삥아리,	삥아리, 삐아리, 삥아리, 뼈가리, 뻥아리, 삐가리, 삐개이, 삐아리, 삘가리, 삘개이, 삘게이, 삥아리, 삐갱이	
볕	명사		뼛				삣	삣	뼛	
보자기	명사								뽀재기	
보채다	동사						뽀친다			
복숭아	명사							뽁쌍		
볶다	동사		뽁다			뽁다	뽂다	뽂다, 뽁다	뽂다	

볶이다	동사					뽂아졌다		뽁이다	뽂이다	
본뜨다	동사			뽄뜨다	뻔뜨다, 뽄뜨다	뽄뜨다, 뻔따다	뽄따다	뽄뜨다	뽄뜨다	
본받다	동사		뽄받다	뽄받다	뽄받다	뽄받다	뽄받다	뽄받다	뽄본다	뽄받다
볼	명사						뽈따기	뽈	뽈	
볼거리	명사							뽈치기, 뽈치기	뽈치기, 뽈치	
봉우리	명사		뽀우리, 뽕오리, 뽀오리			뽕아리, 뽀우리	뽕아리, 뽀아리, 뽀우리, 뽕오리,		뽀리, 뽀우리, 뽕오리, 뽀오리,	
부끄럽다	형용사					뿌럽다				
부뚜막	명사							뿌두막		
부서지다	동사							뿌사지다	뿌사지다	
부수다	동사	뿌수다	뿌수다	뿌기다, 뿌수다, 뿌시다	뿌수다	뿌사다, 뿌서다, 뿌수다	뿌수다, 뿌시다	뿌깨다, 뿌사다, 뿌수다	뿌사다, 뽀사다	뿌솨다
부스러기	명사					뿌시라기, 뿌시래기	뿌시라기, 뿌시래기	뿌시레기		
부시다	동사							뿌셋타		
부엉이	명사					뿌어이				
북데기	명사							뿍디기	뿍디기	
붇다	동사							뿔다		
불리다	동사		뿔귀다, 뿔구다, 뿔기다	뿔구다				뿔꾼다	뿌룬다	
붉다	형용사	뿔따	뿔다, 뿔따	뿕다	뿕다, 뿔따	뿕다, 뿍다	뿕다, 뿍다	뿗다, 뿍다, 뿔따,	뿍다, 뿔따, 삑다, 빡다, 뿔따	뿕다
붉어지다	동사	뿕어지다	뿕어지다	뿕어지다	뿕어지다	뿕어지다	삐래지다	뿕어지다	뿕어지다	뿕어지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둘기	명사			삐들키		삐덜기, 삐둘기, 삐들기, 삐둘키, 삐들끼	빼들기, 삐덜구, 삐덜기, 삐둘기, 삐들귀, 삐들끼, 삐들키, 삐털구	삐들기, 삐둘기, 삐덜기, 삐들귀, 삐덜기, 삐들캐	삐덜개, 삐덜기, 삐둘구, 삐둘기, 삐둘깨, 삐둘키, 삐들구, 삐들기, 삐들끼, 삐들케, 삐들키	
비지	명사				삐지	삐지			삐지	
비추다	동사			삐치다	삐치다			삐치다	삐치다	
비탈	명사					삐틀, 삐딱, 삔닥	삐틀, 삐터리		삔달, 삐달, 삐딱, 삐알	
비틀다	동사					삐틀다	삐튼다, 삐틀다, 삐틀한다	삐타리, 삐탈	삐털다, 삐떤다, 삐투다, 삐트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사납다	형용사				싸나웁다, 싸납다	싸납다	싸납다, 싸나웁다, 싸놉다		싸납다	싸납다
사다	동사		싸다							
사닥다리	명사							싸다리	싸다리	
사돈	명사							싸돈	싸돈	
사랑	명사								싸랑	
사레	명사	싸리	싸레, 싸리							
사립문	명사	싸리문, 싸리짱문	싸리문, 싸립문	싸르문, 싸리문, 싸림문, 싸립문	싸르문, 싸리문	싸리문, 싸립문	싸리문, 싸램문, 싸린문, 싸립문	싸리짝문	싸리짝문, 싸리문, 싸린문	
사마귀	명사							싸마구	싸마구	
사무실	명사							싸무실	싸무실	
사발	명사								싸발	
사슴	명사							싸심	싸섬, 싸심	
사위	명사		싸우, 싸위					싸우	싸우	
사이	명사							싸이	싸이	
사자	명사							싸자	싸자	
사탕	명사							싸탕	싸탕	
사투리	명사		싸투리					싸토리	싸토리	
사회	명사							싸홰	싸홰	
사흘	명사							싸을	싸을	
삭다	동사		썩다, 써키다				싸긴다, 싸큰다	싹다		
삭정이	명사		싹땅가지				싹다리, 썩다리	썩따리	싹다리	
삯	명사	싻	싹	쌕,싹	싹,쌕	싹	싹	싹	싹	싹
산	명사								싼	
살	명사							쌀	쌀	
살가죽	명사								쌀가죽	
살구	명사						쌀구		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살빛	명사						쌀빛			
살짝	부사			쌀쩍						
삵괭이	명사					쌁아지, 쌀가지	쌁, 쌀가지, 씰가지, 쌀개, 쌀까리, 쓸가지	쌀갱이	쓸가지, 씰, 씰가지, 씰갱이, 씰, 쓸꾀이, 씰괴이	
삶다	동사	쌂다	쌈다	쌂다, 쌈따	쌂다	쌂다	쌂다, 쌂우다	쌈다, 쌂다, 쌈따	쌈다, 쌂다, 쌈따	쏢다
삶아지다/ 삶기다	동사	쌂어졌다	쌂아지다	쌂어지다	쌂어지다	쌂아졌다	쌂아졌다, 쌩깄다	쌍갰다, 쌍깄다, 쌩깄다	쌍깄다, 쌩깄다. 쌈낐다, 쌂아졌다, 쌩기졌다.	
삼	명사								쌈	
삼촌	명사							쌈춘	쌈춘	
삽	명사							쌉	쌉	
상	명사								쌍	
상수리나무	명사					쏙소리나무	쏙소리나무			
상추	명사								쌍추	
상추쌈	명사								쌍추쌈	
새기다	동사							쌔기다		
새김질하다	동사		쌔김질하다							
새끼	명사		쌔끼					쌔끼, 쎄끼, 쌧기, 쎗기	쌔기, 쎄끼	
새끼손가락	명사			쌔끼손꾸락					쌔끼손가락	
새다	동사							쌔다	쌔다	
새롭다	형용사								쌔롭다	
새벽	명사		쌔백					쌔벽	쌔북, 쌔벽, 쌔뱅이, 쌔복, 쌔비, 쌔백	

새빨갛다	형용사							쌔빨갛다	쌔빨갛다	
새우	명사		쌔우					쐐비, 쎄:비, 쌔비, 쐐베	쌔애, 쌔애비, 쌔우, 씨애, 씨애비, 쌔	
새우다	동사							쎄우다	쎄우다	
새우등	명사								쌔우등, 쌔등	
새우젓	명사							쌔우젓	쌔비적	
새해	명사							쌔해	쌔해	
색깔	명사							쌕갈	쌕갈	
샘	명사		쌤			쌤		쎄물, 쌔미, 쎄몰	쌔미	
서까래	명사					썩가래, 쎅까래, 써까래, 쎄까래, 쎄끌, 쎠까래	쎄까래, 쎅까래, 쌔끌, 쎄까래, 쎄까리	썩까래, 쎄:깔,, 쎄까리, 씨까래	썩까래, 쎄:깔, 쎄까래, 깨까래	
서늘하다	형용사							써놀하다	써놀하다	
서로	부사							써로	써로	
서름	명사								써런	
서리	명사		써리			써리	써리	써리, 썽기, 쓰리	써리, 쎄리	
서캐	명사		써갱이, 써게, 써께			써카래, 써캐, 쎄캐	쌔, 쌔까래, 써까래, 써까레, 써까리, 쎄, 쎄까리, 쎄캐		쎄, 쎄가리, 쎄기, 쎄카리, 쐐, 씨가리,	
석류	명사							썽노, 썽유	썽노	
석유	명사						씩우	썩구, 써구, 써규	썩규, 썩구	
섞다	동사							썩다, 썪다	썪다	
섣달그믐날	명사	쓷:달그믐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섬	명사							썸	썸	
성	명사							썽	쏭이	
성나다	동사			썽나다	썽나다, 쓩나다		썽나다	썽나다	썽나다	
성내다	동사			쓩내다, 쓩깔낸다	쓩내다	썽내다, 쓩내다	썽내다, 쓩내다	썽내다	썽내다	
성냥	명사							썽양	썽냥	
섶	명사							썦	썦	
세넷	수사								써너	
세다(力)	형용사		쎄다	쎄다	쎄다	쎄다, 씨다	쎄다	쎄다	쎄다, 씨다	
세다(算)	동사		쎄다		쎄다	쎄다		쎄다, 씨다	쎄다	
세로	부사					쏴루, 씨루	쏴루, 씨루	쏴루, 쌔루,	쌔루, 쏴루	
세월	명사							쎄월		
소	명사							쏘	쏘, 쏙	
소금	명사							쏘굼, 쏘곰, 쏘금	쏘굼	
소나기	명사	쏘내기, 쏘낙비, 쏘네기	쏘내기, 쏘나기, 쏘낙비, 쏘낙빙, 쏘낙삐	쏘낙비, 쏘내기, 쏘나기	쏘낙비, 쏘내기, 쏘나기	쏘내기, 쏘나기, 쏘낙비	쏘내기, 쏘나기	쏘나기, 쏘낙비, 쏘낙삐, 쏘내기, 쏘내이, 쏘낵삐, 쏘냉기	쏘낙비, 쏘내기, 쏘나기	쒜나기, 쒜네기, 쏘나기, 쐬나기
소나무	명사							쏘나무	쏠나무, 쏘나무	
소라	명사								쏘라	
소름	명사							쏘름	쏘럼, 쏘:름	
소리	명사							쏘리	쏘리	
소매	명사							싸매기, 쏘매	싸매, 싸매기	
소주	명사		쏘주	쏘주	쏘주	쏘주		쏘주	쏘주	

속	명사			쏙	쏙			쏙	쏙	쏙
속눈썹	명사		쏙눈섭						쏙눈쑵	
속다	동사	쏙다	쏘갓다, 쏙다	쏙다	쏙기			쏙다	쏘가서, 쏘거니	
속이다	동사		쏙이다	쏘긴다				쏙인다, 쇅인다	쏙인다, 쎅인, 쏙훈다	쒝인다, 쏙인다
속히	부사			쌔기, 쌔개				쏙이	쌔기	
손	명사								쏜	
손가락	명사							쏭가락	쏜가락	
손금	명사							쏭검	쏜검, 쏭검	
손녀	명사							쏠여	쏜녀, 쏠여	
손님	명사							쏜님	쏜님	
손등	명사								쏜덕, 쏜덩더리, 쏜디이	
손목	명사								쏜목	
손바닥	명사								쏜바닥	
손수건	명사							쏜쑤건	쏜쑤건	
손자	명사							쏜자	쏜자	
손톱	명사							쏜텁	쏜텁	
솔	명사								쏠	
솔개	명사				쏠개		쏠개		쏘리개, 쏠개이	
솔방울	명사						쏠빵울			
솜	명사							쏨	쏨	
송곳	명사							쏭곳, 쏭구	쏭곳	
송사리	명사					쏭:사리				
송이	명사							쏭이	쏭이	
송편	명사							쏭편	쏭편	
솥	명사							쏠	쏠	
솥뚜껑	명사							쏱띠낑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쇠	명사		쐬, 쌔꼽	쐬, 쐐	쎄	쎄	쎄, 쌔, 쐬, 쑤애, 써	씨, 쎄, 쒜, 쌔, 쐐,	쎄, 쐬, 쒸, 쌔, 씨, 쐐	쒜
쇠다	동사						씨어서	쒸다	쒸다	쒜언
쇠똥구리	명사							씨똥벌래		
쇠사슬	명사						쎄고리			
쇠스랑	명사							쐐새랑, 쐬스랑, 쐬씨랑		
쇠파리	명사								쌔포리	
수군거리다	동사		쑤근거린다	쑥덕거린다, 쑥덕댄다, 쑥떡거린다			쏘근거린다, 쑤근거린다, 쑥덕거린다, 쑥딱거린, 쑥떡근다	쑤군거린다, 쑥덕거린다, 쑥떡꺼린다	쑤군거리니, 쑥덕거린다, 쑥떡꺼린다	
수세미	명사		쑤세미,	쑤세미		쑤세미	쑤세미, 쑤시미,	쑤세미, 쑤세, 쑤쎄미, 쑤쎄이	쑤새, 쑤세, 쑤세미, 쑤시미, 쑤쌔, 쑤쎄미, 쑤씨:, 쑤씨미	
수수	명사	쑤수		쑤수, 쑤쑤	쑤수, 쑤쑤	쑤수, 쑤시, 쓰시	쑤시, 쑤수, 쓰시, 씨시	쒸시	쒸시, 쑤시, 쑤끼, 쑤수, 쑤지, 쑤씨	
수숫잎	명사	쑤수잎새기		쑤수입	쑤수땡이잎사, 쑤수이파리, 쑤숫잎	쑤수잎, 쑤시때기이퍼리, 쑤시이팔, 쑤시이퍼리, 쑤시잎삭, 쑤싯이파리, 쑤싯잎, 쑤씨이파리	쑤숫잎, 쑤싯잎, 쒸시잎, 쒸시이파리, 쒸시잎삭, 쒸싯잎,		쑤수이파리, 쑤시이파리, 쑤시이포리, 쑤지이파리	

수염	명사		쑘		쏙눈섭		쑤염, 씨염, 쒸염, 씨엄	쎄미, 쐐미, 쑤엄, 쒬	쌔암, 쎔, 쎄염, 쑤움, 쑤엄, 쒬, 쑤염, 씨엄, 씨엄, 씨임지 씸지, 쌔미,	
수은	명사							씨운	씨운	
수캐	명사			쑤깨, 쑥깨			쑤캐, 쑷개		쓯개	
수컷	명사			쑷눔			쑥놈, 쑹놈, 쑨놈,	쑷꺼, 쑹놈, 쑤늠, 쑥놈, 쑨, 쑷	쑷꺼, 쑥깨, 쑥꺼, 쑥껏	
수코양이	명사			쑤꼬냬:이						
수탉	명사								쑥딱	
숙이다	동사								쑥이다	
숫구멍	명사								쑴구영	
숫돌	명사						씻돌, 씻똘	쑥돌, 쑷돌, 쑷똘		쑬돌, 쓸돌, 씬돌, 씰돌
숭늉	명사								쑹냉, 쑹년	
숯	명사		쑤:애					쑥, 쑤꿍	쑥	
쉬	명사							씨	쌔, 씨	
쉬다	동사			쒸:따				씨다	씨다	
스물	수사									쑤물
승냥이	명사								씽개이, 씽내이, 씽냉이, 씽얘이, 씽예이	
시계	명사								씨개	
시골	명사								씨골	씨골
시금치	명사		씨금치							
시끄럽다	형용사		씨끄럽다					씩끄릅다	씩끄릅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시누이	명사					씨누	씨누		씨누	씨누위, 씨누의
시다	형용사	씨다	씨겁다, 씨다		씨다,	씨다	씨다	씨다, 씨겁다	씨다	씨다
시동생	명사					씨아재	씨동상	씨동생	씨동생	
시래기	명사	씨래귀, 쒸래기, 씨라구, 쓰라기, 쓰레기	씨래기, 씨레기	씨래기	씨래기, 씨라구, 씨라귀, 씨라기, 씨락지	씨래기, 씰가리	씨래기, 씰가리	씨래기	쒸래기, 쓰레기, 씨래기	씨레기
시루	명사							씨리	씨리	
시루떡	명사						씨리떡			
시숙	명사						씨숙		씨숙	
시시하다	형용사							씨씨하다		
시원하다	형용사		씨원하다				씨언하다, 씨원하다		써운타, 썬썬하다, 썬타, 썬하다, 씨언하다	씨원하다
시집	명사								씨집	
시키다	동사							씨키다, 씨기다, 씨켄다	씨기다, 씨키다	
시험	명사							씨엄	씨엄	
식히다	동사		씩이다, 씩히다	씩히다						
신	명사							씬	씬	
신경	명사								씬경	
싣다	동사									씨끈다
실	명사							씰	씰	
실꾸리	명사									씰도르기, 씰도로기
심부름꾼	명사								씸부람군, 씸부룸군	

싱싱하다	형용사					쌩쌩하다, 씽씽하다	쌩쌩어다, 쌩쌩하다, 쌩쌩허다, 썽성허다, 썽썽하다, 씽씽하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자갈	명사		짜갈, 쫵	쫵			짜갈			
자개미	명사		짜개미							
자귀	명사					짜구	짜구	짜구	짜구	
자그마하다	형용사		쪼끄맣다, 뙤꼬맣다						쫴맨하다	
자꾸	부사							짜꾸		
자락	명사		짜락							
자루	명사			짜리			짜리			
자르다	동사	자르다, 짤르다	자르다, 짤르다	자르다, 짤른다	자르다, 짜리다, 짤르다, 짱글다	자르다, 짜리다, 짤르다, 짱글다	자르다, 짤르다, 짜리다, 짱그르다, 짱글다	자르다, 짤르다, 짜리다, 짱그르다, 짱글다,	자르다, 짜린다	쫄르다
자리개	명사					짤르개	깔개			
자주	부사						짜꼬			
자치기	명사						짱치기	짱치기		
작다	형용사		짝다	짝다	짝다	짝다	짝다	짝다	짝다	
작대기(지게)	명사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짱때기, 짝때기, 짝찌	짝대기, 짱때기	
작두	명사						짝두	짝두	짝두	
작살	명사					짝살		짝살	짝살	
작은집	명사			짜근집		짝은집		짝은집		
잔디	명사								짠듸	
잔디밭	명사							짠닥밭	짠닥밭	
잠	명사								짬	
잠깜	부사						쪼깜, 쪼끔			
잠방이	명사								짬빼이	

잠자리	명사		짬자리, 쨈자리		짬자리	짬자리		짠자리	짬자리, 짤래비, 짠자리	
장구벌레	명사			짱구벌거지		짱구애비			짱구벌레	
장기	명사						쨍끼	짱끼, 짱꽁	짱끼	
장끼	명사						쨍끼			
장다리무우	명사					짱다리	짱다리, 짱다리무시, 쫑다리무시		짱다리, 짱다리무시, 짱아리	
장도리	명사						짱도리			
저기	대명사						쩌기, 쩌그			
저리다	형용사							찌리다		
적다	형용사		쩍다	쩍다	쩍다	쩍:다	쩍다	쩍다		
적삼	명사			쩍삼	쩍삼	쩍삼	쩍삼	쩍삼		
절름발이	명사		쩔룩빠리	쩔룩빼기, 쩔뚜기, 쩔룩빠리	쩔두바리, 쩔둑바리, 쩔름뱅이	쩔두바리, 쩔둑바리, 쩔름뱅이		쩔룩뱅이, 뻘룩뺑이, 뻘룸바리, 쩔룸제이	쩔룩뱅이, 쩔룩베이, 쩔룩빠리, 쩔룩뺑이	
제기	명사									쪼께, 쪼끼, 쭤께
제비	명사		째비					째비, 쩨비		
조가비	명사							쪼개비, 쪼갑지	쪼갑지,	
조각	명사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 쪼박, 쪼각	쪼가리, 쪼박, 쪼박지, 쪼각	
조개	명사		쪼개				쪼갑지	쪼개, 쪼개비		
조그마하다	형용사		쪼끄맣다			쬐간하다	쬐깐하다, 쬐간하다	쪼매나다, 쪼맨하다	쪼매하다, 쪼맨하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조금	부사	쪼금, 쬐끔	쪼꼼, 쬐끔, 쪼금, 쪼끔,	쪼꼼, 쪼끔, 째끔, 쪼금, 쬐금	쪼곰, 쪼금, 쪼끔, 쬐깨, 째끔, 쫴끔, 쬐끔, 쬣개, 쬣금, 찌게, 찌께, 찌끔, 찍게, 찍끔, 찜	쪼곰, 쪼금, 쪼끔, 쬐깨, 째끔, 쫴끔, 쬐끔, 쬣개, 쬣금, 찌게, 찌께, 찌끔, 찍게, 찍끔, 찜	쪼곰, 쪼금, 쪼끔, 쬐깨, 쬐끔, 째끔, 쩨깜, 쩨께, 쩨끔, 쪼깐, 쪼깜, 쪼께, 쪼꿈, 쫌, 찌끔	쪼꼼, 쪼곰, 쪼금, 쪼끔	쪼꼼, 꼬깨, 쪼개이, 쩨끔, 쪼껌, 쪼깬, 쪼꿈, 쪼께이	
조기	명사			쪼구				쪼구, 쪼기	쪼구	
조끼	명사	쪼끼	쪼끼	째끼, 쩨껴, 쪼끼,	쪼께, 쪼끼, 쬐끼	쪼께, 쪼끼, 쬐끼	쪼께, 쪼끼, 쬐끼	쪼끼, 쫏께, 쪼깨	쪼깨, 쪼끼, 쫏께,	쪼께, 쮀끼,
조롱박	명사		쪼롱박, 쪽박, 쪽베기, 쪽쩨기, 쫄랑박, 쫑글박	쪼롱박, 쫄랑박, 쫑골박	쪼곱빡, 쪽박, 쫍박, 쫍빡	쪼곱빡, 쪽박, 쫍박, 쫍빡	쪼롱박, 쪼박, 쪽박, 쫍빡, 쫑구레미박,	쪼롱박, 쪼릉바기, 쪽박, 쫑굴박, 쫑글박	쪼롱박, 쪼구래이박	
조무래기	명사								쪼무래기, 쪼무랭이	
족제비	명사	쪽제비	쪽제비, 쪽제피, 쪽재비, 쪽째비, 쪽지비	쪽제비, 쪽재비, 쪽지비, 쪽째비, 쪽쩨비	쪽지비, 쪽제비, 쪽째비	쪽지비, 쪽제비, 쪽째비	쪽지비, 쪽제비, 쪽재비, 쪽째비, 쪽쩨비, 쪽찌비	쪽지비, 쪽재비, 쪽제비, 쪽제피, 쪼쩨비, 쪽째비, 쪽쩨피, 쪽찌비	쪽지비, 쪽재비, 쪽제비, 쪽째비, 쪽쩨비, 쪽찌비	
족집게	명사		쪽집게, 쪽집께, 쪽찍께, 쫍찌비	쪽집게, 쪽찌께, 쪽찝께	쪽지께, 쪽집게, 쪽찌깨, 쪼찍깨, 쪽직깨, 쪽직께,	쪽지께, 쪽집게, 쪽찌깨, 쪼찍깨, 쪽직깨, 쪽직께,	쪽지께, 쪽집게, 쪽찌깨, 쪽찍개, 쪼찌깨, 쪼찟깨,	쪽직개, 쪽집게, 쪽직게, 쪽찌깨, 쪽찍개, 쪽짭깨,	쪽집게, 쪽직게, 쪽찌깨, 쪽찍개, 쪽지게	

					쪼집깨, 쪽찝깨	쪼집깨, 쪽찝깨	쪽지깨	쪽찌께, 쪽찝께		
좀	명사				쫌					
좀처럼	부사				쫌처럼					
좁다	형용사		쫍다	쫍다	쫍다	쫍다	쫍다	쫍다	쫍다	
종달새	명사								쫑달새	
종지	명사						쫑지			
좆다	형용사							쫏다	쫏다	
주름살	명사		쭈굼살, 쭈굴쌀, 쭈그럼살, 쭈름	쭈름쌀, 쭈그럭살, 쭈그럼살	쭈룸, 쭈름쌀	쭈룸, 쭈름쌀	쭈구름, 쭈룸, 쭈그럼	쭈그럭살, 쭈걸사리, 쭈구랑살, 쭈구람살, 쪼그락살	쭈굴사리, 쭈럼쌀	
죽지	명사		쪽지, 쪽지, 쪽찌	쪽지, 쪽지	쪽지, 쪽지, 쪽찌, 쪽찌	쪽지, 쪽지, 쪽찌, 쪽찌	쪽지, 쪽찌, 쪽찌	쪽지, 쪽지, 쪽찌	쪽지, 쪽지, 쪽재, 쪽찌	
줄기	명사		쭐거리, 쭐개이, 쭐기	쭐기, 쭐거리	쭐기, 쭐거리	쭐기, 쭐거리	쭐거리, 쭐기, 쭐고리, 쪽대기, 쪽때기	쭐거지, 쭐기, 쭐거리, 쭐가지, 쭐개이, 쭐구리, 쭐그리, 쭐게이	쭐갱이, 쭐기, 쭈구지, 쭐거리, 쭐게이, 쭐구래이, 쭐구리, 쭐구지	
줄이다	동사						쭈리다		쭈리다, 쪼르은다, 쪼른다	
쥐	명사								찌	
지껄이다	동사									찌껄이다
지느러미	명사		찌내미							
지랄	명사							찌랄	찌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지렁이	명사		찔겡이, 찔공이, 찌링이, 찔껭이, 찔꽁이			찌레이, 찌렝이,	찌레이, 찌렝이, 찌랭이	찌렁이		
지리다	형용사			찌리다				찌리다	쨀렀다	
지린내	명사	찌린내	찌린내	찌린내	찌린내	찌린내	찌린내	찌린내, 찌렁내, 찌링내, 찐내, 찔래	찌린내	
지지다	동사			찌지다	찌지다			찌지다	찌지다	
지짐이	명사							찌짐	찌짐	
진드기	명사		찐드기, 찐디기, 찐대기	찐드기		찐데기, 찐드기, 찐듸기, 찐디기	찐드개, 찐드기	찐드기,	찐기기, 찌드리, 찐대기, 찐더기, 찐드기, 찐디기	
진딧물	명사								찐디물	
진흙	명사								찐득	
질경이	명사					찔겨이		찔기이		
질다	형용사						찔다			
집게	명사	찍게	찍게	찍게	찌께	찌께	찌께, 찍게, 찝께	찍개, 찍게	찝개, 찍게	
집다	동사						찝다	찝다		
짚	명사									찍, 찝
짚신	명사			찚세기						찝신

<中文摘要>

现代韩语的词首硬音化研究

张笑韵

到目前为止，关于现代韩语中出现的'감다→깜다，닦다→딲다'这样的词首硬音化现象的论文为数不多，主要是因为这一现象是随机出现的，很难把握其产生的原因及规律。但是，作为在韩国全国都普遍存在的一种现象，如果将其判定为一种偶然现象显然并不合理。本文将韩语词首硬音化现象视作一种语言现象，运用共时的语言分析方法，从地理和语言学的综合角度来分析其出现的环境倾向，并以此来推定其发起地和传播路径。

本文的第二章分析词首硬音化现象的地理特征。分析和讨论的资料依据是《韩国方言资料集》和《方言资料集》，从这两份资料所收的2235个词首为清音的词汇中整理出520个出现词首硬音化现象的词语。然后，根据各个词汇在不同区域出现的频次（以道为单位），将520个词首硬音化词语分为五种类型。根据五种类型的词语的比例分布，来判定各个地区的词首硬音化现象的出现的频度。根据分析词首硬音化现象在全国的各区域出现的频度，从高到低依次为庆南，庆北，全南，全北，江源，忠北，忠南，济州，京畿。据此可以推断，词首硬音化现象的中心地区是庆南地区，然后通过相邻地带传向全国。总体来看，现代韩语的词首硬音化现象，南部和东部更为活跃，其中在庆南地区最为活跃；北部和西部频度较低。

本文第三章运用计算语言学的计算方法分析了现代韩语的词首硬音化现象。首先，通过观察词首子音、后行母音、音节数和音节结构来分析词首硬音化现象出现的环境及其倾向。根据词首子音硬音化现象，从高到低，硬音化的出现频度依次为'ㅅ，ㄱ，ㅈ，ㄷ，ㅂ'。通过各个词首子音的出现率分布地图，可以发现词首子音'ㄱ，ㄷ，ㅂ，ㅈ'的发源地和传播路径互为表里，都是通过庆北的东南部和庆南的北部相接的地域传向全国。词首'ㅅ'则是从庆南西部地域绕过庆北，主要通过全罗道传向全国。根据后行母音词首硬音化现象的出现频度，从高低到底的顺序为'ㅐ，ㅗ，ㅐ，ㅜ，ㅏ，ㅣ，ㅓ，ㅡ'。此外单音节的

出现频度大于多音节，开音节的出现频度大于闭音节，并不受第二音节的首音影响。

第四章则从词汇，形态，语义论的角度分析了词首硬音化的实行倾向。根据分析，词首硬音化现象与词汇的使用频度并没有比例关系，在各个地区基本上都以表现动作和状态的谓语性的词最活跃。在形态结构上，词首硬音化现象在合成和派生的过程中，其词根与其合成词、派生词的地理分布基本一致，大部分情况下合成词和派生词的地理分布比词根的地理分布范围要稍微小一些，据此可以推测词首硬音化现象在合成和派生的过程中能产性有降低的倾向。除此之外，还利用已有的语义分类方法将词首硬音化形容词和名词进行了分类，并强调了在同音异义词中，词首硬音化现象并不存在所谓的同音冲突回避原理。

最后，第五章结论部分总结了本文所分析的词首硬音化现象，并提出本文所遗留的一些问题。

关键词：词首硬音化，方言，实行倾向性，发起地，地理分布，语义分类，同音异意词

学号：2015-22101